

충남문화

2003 · 제7호



全國文化院聯合會忠清南道支會

충남문화 제7호



발행일자
2003년 12월 15일

발행인

민 병 달

편집인

이 정 우

편집위원

박노을 박응진 신상찬 신정교 윤병배 이상용

이지호 이하영 장 영 장영석 정우영 정재권

정재욱 정정희 조성민 지해두

발행처

전국문화원연합회충남도지회

330-935

천안시 성정동 694-7 <041>575-3004 FAX 577-3004

인쇄처

도서출판 한국문화



- 006 권두언
문화적 주체성을 유지하는 충남문화 / 민병달
- 008 축간사
유익한 문화생활의 길잡이로 / 심대평
200만 도민과 함께하는 「忠南文化」 / 이복구
- 012 기획특집
 - ① 자생형 행정수도 건설과 문화 / 황재훈
 - ②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개발원칙 지키자 / 유상호
 - ③ 시대정신 반영하는 신도시를 위하여 / 김규원
 - ④ '문화'의 이름으로 밀그림 그리자 / 류제홍
 - ⑤ 문화적 관점에서의 신행정수도 건설방향 / 장용일
- 032 지역연구
 - ① 지역 문화인프라 확충의 실질적 과제 / 김세훈
 - ② 문화원의 활성화와 앞으로의 과제 / 이해준
- 042 진단 / 역사 · 문화마을 만들기
 - ①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의의와 과제 / 이흥재
 - ② 지자체의 역사 · 문화마을과 경관관리 / 오민근
 - ③ 태안·반도의 역사 '소금마을' / 태안군추진협의회
- 059 충남의 명소를 찾아서
- 067 해외문화탐방 / 일본 주요도시 순례
「간다神田 고서점가」 순례 / 이정우
일본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 / 김인권
- 076 2003 향토문화축제
제49회 백제문화제 등 충남도내 향토축제
- 102 2003 문화단신
- 109 충남의 인물
 - 성삼문 · 사계 김장생

Contents

2003 · 제7호

- 116 충남의 민속
 - 금산농악 · 부여 내지리 단잡기
- 122 충남의 전설
 - 아홉거리 · 향천사
- 127 충남의 문화재
 - 태안 마애삼존불과 경이정
 - 機池市 줄다리기
 - 정산 서정리 9층 석탑
- 140 충남의 향토축제 순례
 - 제7회 추사문화제
 - 지역문화축제 '한우리'
 - 단오절 민속축제
- 149 충남의 향토사 연구
 - 「효녀심청」의 근기설화로 추정되는
 - 관음사 사적기
- 160 2003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2003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2003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2003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2003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2003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 184 2003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2003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2003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2003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2003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 196 2003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2003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2003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2003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 209 2003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문화적 주체성을 유지하는 충남문화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장 || 민 병 달

지방화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지역문화는 중앙중심의 문화집중에 의한 일방적 종속상태에 놓여 있다. 문화의 생산·전달·소비의 모든 측면에서 서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적 독과점 현상 속에서 각 지역문화의 자주적인 성격과 활력은 불가피하게 박탈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충남지역의 문화도 취약한 문화재정, 빈약한 문화인력과 문화예술 활동, 문화기반시설의 절대적 부족 등 다른 지역과 거의 유사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열악한 상황이지만 사명감과 책무감을 짊어지고 반세기 동안 지역문화의 파수꾼으로, 동산지기로 그 소임을 다해 온 도내 문화원들은 전통에 기초하면서도 변화하는 거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충남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즈음에, 지역문화의 선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문화원들은 지금까지 해 온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보다 새로운 문화적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문화의 지역화, 문화의 민주화, 문화의 산업화라는 세 가지 전략적 축을 중심으로 발전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새로운 충남문화는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을 지향해야 한다. TV 등 대중매체의 문화적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과 비례하여 각 지방 특유의 문화적 개성은 사라지고 전국이 문화적 측면에서 동질화되어 가는 문화적 획일화가 진행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여의도의 3개 TV방송사가 발신하는 문화적 기호와 상징이 개인의 의식, 삶의 양식이 생



산·재생산되는 생활세계를 재단하는 문화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느 지역의 문화가 그 문화만의 고유한 개성이나 특성을 상실하고 서울문화의 '축소판'이나 '복사본'에 그치고 만다면 지역문화로서의 본질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겉껍데기만의 문화에 그치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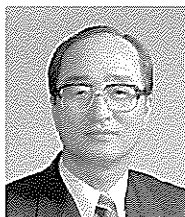
그러므로 충청남도만의 고유한 문화적, 환경적, 인간적 자원에 바탕을 둔 지역문화의 창조만이 문화적 주체성을 유지하고 충남문화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두 번째로 새로운 충남문화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이 만 들어가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문화이어야 한다. 모든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의 문화에 대해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는 문화결정권의 자율성을 행사할 때, 다시 말해 단순한 관객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모될 때 더욱 새롭고 의미 있는 지역문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를 호흡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에의 접근'과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문화복지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관점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문화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즉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자원의 하나로서 문화를 재인식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충청남도과 같이 산업화시기에 발전의 폭을 더욱 넓히지 못한 경우 문화의 자원화는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지향점이 되어야만 한다.

축 간 사



유익한 문화생활의 길잡이로

충청남도지사 || 심 대 평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03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알찬 준비를 다짐하는 이 시기에 '충남문화' 7호가 발간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알찬 내용의 문화정보지 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병달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문화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오늘날에는 생활 속의 문화향수 정도가 선진국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비롯해 사회교육사업, 향토의식 고취사업과 지역 고유문화를 보급·보존·계승하고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화원의 역할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후보지로서,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서, 가장 높은 발전 가능성을 안고 있는 중부권의 핵심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성에 걸맞는 선진도민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수준의 고양을 위한 지역공동체 전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연히 이러한 노력의 선두에 서 있는 충남 도내 17개 문화원들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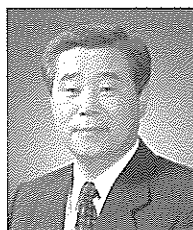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 온 우리 충남지역 문화원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 등 지역문화사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획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누리는 문화의 고장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기를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민들도 내 고장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생활속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문화원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호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충남문화'가 충남도민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문화정보와 문화예술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 도가 수준 높은 문화와 깨끗한 환경 속에서 풍요와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해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본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와 도내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간사



200만 도민과 함께하는 『忠南文化』

충청남도의회 의장 Ⅱ 이복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 창달의 기틀을 다지며, 충남문화의 혼을 심어온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민병달 지회장님을 비롯한 시·군 지역문화원장님, 그리고 도내 文化家族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화는 예술이나 문화재만을 지칭하지 않고,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나 역사를 통해 만들어온 문명과 그 밖의 모든 총체적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존재의 근원과 독창성을 발휘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왔지만, 역설적으로 근대 사회와 현대 물질문명의 발전 속에 오히려 인간이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가리켜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의 세기'는 자신이 만들어낸 문화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존재를 되찾고 문화의 중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시대이며,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바탕 위에서 인간다운 본래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지역문화의 문화적 주체성을 살리고, 계승·발전시켜 확대·재생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도내 지역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는 문화활동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 모두가 인생의 깊은 맛을 느끼며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충남이 지향해야하는 문화시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7호「忠南文化」발간을 계기로 문화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우리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의「忠南文化」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도내 文化家族 여러분의 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생형 행정수도 건설과 문화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 황재훈

브라질리아, 캔버라, 워싱턴 등은 하드웨어를 통한 상징성을 부각시키려 한 결과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측면이 소홀하여 정신에 대한 정체성과 사회 구성의 균형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즉 신도시는 역사적 도시 형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회 구성과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새로운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모아지면서 다양한 현상과 논의를 양산하고 있다. 크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찬반의 대결구도를 비롯하여, 지자체 간 지역 내 건설을 위한 합종연횡, 그리고 대상 지역에서의 부동산 급등 움직임 등 나라 전체에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 단순히 대통령의 정치적 전략에서 출발한 행정수도 건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왔

다고 생각하고 있는 충청권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역 발전의 호기로 생각하여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수도의 새로운 건설은 국운과 연계되어 많은 경제·사회적 비용이 통시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한 환경에서는 지역 간, 집단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로 예상된다.

국민들 동의 구한 후 자생형·자립형·한국형 문화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은 철저한 과정의 준비와 검증 속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국토계획의 큰 그림 속에서 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시대를 겨냥하여 왜곡된 남한 공간 구조의 개편 연장선에서 접근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으로 인한 지정학적 특성과 물류 이동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측면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과 어우러진 남겨진 수려한 땅과 충분한 수자원 그리고 교통물류의 'X' 축과 '3×3축'의 형성, 그리고 도로,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의 완성용이성에 따라 입지가 선정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중심의 관리적 기능(Head Quarters)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자생형 문화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



호주 캔버라의 전망대 및 방송수신탑

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례의 경우 형태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 물리적 요소가 강조되어 브라질리아는 비행기(혹은 새)의 모습, 캔버라와 워싱턴의 주변 강 선형과 대비되는 기하학적 형태 등 하드웨어를 통한 상징성을 부각시키려 한 결과로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측면이 소홀하여 정신(Spirit)에 대한 정체성과 사회 구성의 균형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캔버라의 경우 행정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정주체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문화의 빈곤으로 인해 문화결핍현상(Domestic Cultural Gap)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신도시는 고유의 역사적 도시 형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회 구성과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도시문화의 경우 계획적 의도에 의한 인공적 조성보다는 자생적 형태로 유도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셋째, 한국형 행정조직의 구축을 통한 자립형 도시를 계획해야 한다. 현재의 개혁적 추세를 감안한다면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규모도 선진국처럼 가능한 축소되어 현재의 영향력 있는 위상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특히 지방 분권화가 가속화되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부부처가 분산되어 입지한다면 행정수도의 성격은 기존의 의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하게 변할 정부조직에 대한 효율적 구축과 운영방안을 통한 미래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스템 결정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간체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도시의 주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행성을 확보하고 배려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 배려는 도시의 존재적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로 전문가에 의한 계획을 행정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계획대로 활용·관리하는 자세가 아울러 필요하다. 마음이 없는 도시에 인간성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더불어 사는 모듬살이, 함께 가꾸고 즐기는 모듬살이가 가능하다.

정주환경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게 도시 구성 원칙

이런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신행정수도의 도시 형태는 기능적인 효율성과 공간적인 장소성을 바탕으로 원활한 도시성장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적 장소성과 구성원의 정체성 확립에 계획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분야별 고려 사항으로는 다섯 가지 정도로 대별된다.

우선 정치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구조의 결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형태(대통령제, 내각제, 양원제 등)는 도시 형태 구성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도시공간 중심을 형성하게 되어, 이에 따라 도시의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이론적 도시 구성 원칙인 다양한 계층의 혼합(Social Mix)과 현대 도시 구성의 새로운 추세인 계층의 분리(Social Segregation)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되, 기본적으로 독립적 사회구조가 형성이 되도록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담화를 통한 경제권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내부적으로 자족적 경제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적으로는 행정수도에 맞는 문화의 규

정을 통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반시설의 인위적 계획보다는 일반문화의 속성인 장기성, 자생성, 변화성에 기인하여 기초적 환경과 구성원의 교육, 그리고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관리조직을 통한 민중문화 형성에 힘쓴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기획하기보다는 시민들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은 물리적으로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동선의 종류별로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면서 최소한의 교차를 허용하며 용도지역간의 전이를 충분한 완충공간을 두면서 공간적 영역성을 확립한다. 또한 도심의 생태적 중심 역할을 하는 공원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많은 지역으로 녹지축을 형성시켜 경관적 생태적 안정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도시는 유명한 도시역사학자인 루이스 머포드(Lewis Mumford)가 지적한 “현대의 도시는 몸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삶의 영역”이라는 비평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의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몸과 마음이 있는 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도시공간 구성 원칙은 아주 단순하다. 우리의 정주환경을 예전처럼 다시 인간에게 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걸으면서 편안한 그리고 그 속에서 과거

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여 다양한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모듬살이의 터를 의미한다.

도시에 인간성 불어넣을 때 모듬살이 가능해

이를 위한 구체적 제언으로 첫째, 모든 도시의 건물과 공간은 인간척도(Human Scale)와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지나가는 차량이나 비행기에서 보는 도시가 아닌 인간이 편하게 느끼는 인체 규모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고층 아파트나 대규모 복합시설처럼 심리적, 시각적 위압감으로 배타적인 것보다는 작지만 주제가 있고 애깃거리가 있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적 공간이 필요하다.

둘째는 도시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형태와 모습이어야 한다. 효율성을 강조한 직선적 느낌, 경제성을 강조한 획일적 건축물은 얼굴이 없는 도시의 전형적 표상일 뿐이다. 따라서 지형에 순응하고 주변의 형태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마치 물이 흘러가는 공간의 구조와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도시에서 스토리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셋째, 도시의 주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행성을 확보하고, 여기서부터 사회성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한 다양한 광장에서 여러 계층의 만남과 융합으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행자를 위한 다양한 배려는 도시의 존재적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로 전문가에 의한 계획을 행정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사용하는 시민들이 계획된 의도대로 활용



호주 전쟁기념관

하고 관리하는 자세가 아울러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이 없는 도시에 인간성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더불어 사는 모듬살이, 함께 가꾸는 모듬살이, 그리고 즐기는 모듬살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행정수도는 정치·사회·문화·경제적으로 안정된 구조 속에서 이를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그리고 치밀한 지혜의 결집이 필요하고, 당장 계획과 건설하는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에 가거나 구체적인 윤곽과 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소아적인 발상과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안목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고 통일시대를 생각하면서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개발원칙 지키자

녹색연합 녹색도시위원장 · 유 상 호

바람직한 행정수도 개발방향은 주민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생적 상향적, 생태적 수도 기능을 하고, 새로운 특별법에 의한 행정제도 도입이 아닌 기존 도시와의 조화를 유도해야 하겠다. 또 인접 도시와의 연계에 의한 내발적 도시 구조 형성을 유도해 도시와 농촌이 유기적 순환고리로서 도농통합적 도시를 형성해야 한다.

지난 대선의 최대 쟁점은 신행정수도 이전이었다. 지난 40여 년 수도권 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2000km² 면적에 전 인구의 35%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46%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구 집중은 도시의 환경과 기반시설을 악화시켜 거주하기 불편한 도시를 만든다. 우리와 같이 조밀한 수도집중을 지향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11%, 영국의 경우는 12%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국민 중 32%가 수도권에, 민간기업 본사 중

34%가 도쿄에 집중되어 있는데 “도쿄 일극 집중이 일본을 망치고 있다”고 하면서 수도 이전 등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노무현정부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생태적인 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리고 최선을 다해 만들기 위한 자연환경의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가의 비전 제시할 그랜드디자인이어야

지난 해 10월 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발표 후 10월 25일 충청권 발전 공약이 본격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전국 국토 면적에 대비할 때 서울의 면적은 0.6%, 수도권 면적은 11.8%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인 46.6%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인구밀도로 따지면 일본의 1.6배, 프랑스의 2배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제조업체의 56%, 취업자의 46%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88%와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예금의 68%, 대출의 62%가 수도권 차지다.

수도권에 자본이 집중하면서 기업이 뒤따르고 그 결과 인구 집중과 자본 축적이 순환되는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수도권에서는 지가와 생산비용, 생활비가 상승하고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폭등하여 수도권 지역민 나름대로 불만이 고조된다.

수도권지역으로의 집중적 자원 배분과 이동은 결국 지역경제의 침체, 지방자치의 유명무실화,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소외감 확산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한 서울-지역 간 갈등, 지역 간의 이질감과 반목의 심화는 국민통합과 국력 결집의 실패를 가져오고 결국은 사회 전반에 경쟁력 약화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국토 불균형과 이용 비효율성 심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방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라 지역 간, 도농 간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 간 낙후지역이 상존해 지역 간 과밀 과소지역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수도권체제 유지하는 각종 인프라 비용 증대를 야기시키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도로, 물류, 항만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물류 비용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신규 인프라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국민생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용 증대로 인해 주택, 상·하수도, 공원 등 삶의 질에 관련된 시설의 부족과 열악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현상이 된 지 오래다.

넷째, 토지 및 부동산투기 현상을 심화한다. 즉, IMF 이후 심화된 부동산값 앙등에 따른 각종 투기로 인해 재정 흐름의 왜곡과 서민주거환경 악화 및 건전한 부의 축적 의미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수도 이전은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과 동시에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소외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도 이전 구상의 방향은 단순히 수도권 과밀과 주거안정 및 쾌적한 도시정비 차원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21세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랜드디자인이어야 한다.

그러면 향후 신행정수도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첫째,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방도시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본질은 수도권에 종속돼 있는 중앙집권제와 이에 대항하는 지방분권, 문화와 경제의 회생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바람직한 행정수도 개발방향은 주민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생적, 상향적, 생태적 수도 기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특별법에 의한 행정제도 도입이 아닌 기존 도시와의 조화를 유도해야 하겠다. 이는 새로운 활력과 지역 고유의 특성이 담긴 기성 도시를 아우르는 방안이 되는 것이 보다 생태적이라는 판단이 전제가 된다. 또 인접 도시와의 연계에 의한 내발적 도시 구조 형성을 유도해 도시와 농촌이 유기적 순환고리로서 도농통합적 도시 형성을 이룩해야 하겠다. 이러한 배경의 근거에는 친환경적인 철학이 배경으로 있어야 한다.

신행정수도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공원 녹지량을 다른 도시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40~50%선을 유지하며 녹지량을 녹지질로 전환하여 생태서식공간 확보를 위한 비오톱 조성 및 연계해야 생태수도로 조성이 가능하다. 주요 연결 지점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하고 지형 지세를 최대한 살리는 대기순환로를 구축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적인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의 개략적인 일정은 1) 2004년 상반기 중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를 지정한 뒤, 2) 2005년부터 구체적인 설계와 현지 주민에 대한 보상작업에 들어간다. 3) 2007년 상반기 중에 선도 부처를 이전할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4) 201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 택지 확보

택지 확보가 기본적인 형태인데 신수도를 집중형 수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산형 수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택지 확보에 대해서는 대략 1500만 평에서 4000만 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권용우 교수의 안(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서울상공회의소 2003.1.27)은 약 2000만 평 정도이다. 이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한 공주 장기수도 안이 1950만 평 정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워싱턴이 약 50만 명/5370만 평, 브라질리아가 50만 명/4500만 평, 일본의 경우가 60만 명/2670만 평 정도의 규모로 우리보다는 저밀하게 공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 토지 이용 관련 계획 대책

토지 이용은 아직 구체적인 모델이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집중형과 분산형 혼합형 모델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중 혼합형 모델은 집중과 분산을 충청권에 집적시키는 모델로서 핵심 부처를 수도에 두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주요 지역에 포진시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과 밀을 억제하면서도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촉진시키며 과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공원·녹지 확보 관련

신행정수도의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공원 녹지량을 다른 도시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40~50%선을 유지하며, 녹지량을 녹지질로 전환하여 생태서식공간 확보를 위한 비오톱(Bio-top) 조성 및 연계해야 생태수도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주요 연결지점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하고 지형 지세를 최대한 살리는 대기순환로를 구축하여 쾌적하며 자연과 인간이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 단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원녹지에 관련 DGN 6, 7등급을 원형 보전해 생태주거지로써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 환경시설 관련

신행정수도 건설시 지형지질은 가급적 원



신행정수도 대전발전연구소 회원들이 지난 9월 16일 대전 중구 홍명사가 앞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정국회통과를 위한 대전·충청 100만인 서명운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형존치를 통해 최대한 지형 변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구릉지 녹지를 보전하고 이것이 지역의 활력이 되도록 유도한다. 사업지구 내 녹지자연도 변화를 충분히 검토해 동식물상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대기질과 수질을 보전해 공사 과정상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사 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심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환경·도시·사회·경제적 원칙 일치된 가이드라인 있어야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수동의 상징성과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행정수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원칙, 도시적 원칙, 사회적 원칙, 경제적 원칙이 일치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환경적 원칙

- 생태계를 구성하는 제 요소간 상호 네트워크에 대한 배려
- 지역환경용량에 대한 고려 및 항상성 유지
- 생물 다양성 유지 및 촉진

■ 도시적 원칙

- 단지 내 공원·녹지 확보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도
- 지역 특성이 가미된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개성 있고 여유로운 행정수도
- 자연생태계 보전 및 공해요소 배제를 통한 건강하고 깨끗한 행정수도

■ 경제적 원칙

- 주거지와 자연환경을 통합적 접근
- 행정수도지구 주변의 자생력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
- 지구의 보행공간 접근을 통한 활력 증대

■ 사회적 원칙

- 지구잠재력에 기인한 시설 도입과 주민 참여에 의한 시책 수립과 시행
- 저소득계층, 장애인, 노인과 어린이를 배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확충
- 주민과 지자체가 건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
- 지역 고유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문화·예술적 환경을 지원하는 공간계획

3

시대정신 반영하는 신도시를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 규 원

여러 신행정수도는 새로운 세상, 이상, 이념을 신행정수도의 모습에서 구현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도 참여정부로서의 신행정수도, 평화를 지향하고 새로운 시민사회를 구상하는 정부와 국가로서의 신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 시대상을 확립하고 수도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문화적인 신행정수도라……. 기본적으로 누구나 찬성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문화적으로 조성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여기서 일단 막한다. 항상 진부하게 하듯이 일단 다른 나라를 살펴보기로 하자.

쌍트페테르부르크,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이면엔?

서유럽을 닮은 선진국가를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만든 러시

아의 옛 행정수도 쌍트페테르부르크(Санкт-Петербург)를 살펴보자. 1712년 핀란드로부터 빼앗은 요충지에 군사하게 건설된 쌍트페테르부르크는 18세기 후반에는 러시아 최대의 무역항이자 무기·금속·조선·섬유공업의 중심지였다. 현재는 모스크바를 수도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쌍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머리’,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심장’이라 불리며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여준다.

쌍트페테르부르크 행정수도 건설 당시 단순히 서유럽의 산업과 과학, 행정을 본받으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문화도 전적으로 도입하려고 애썼다. 결과 키로프 기념극장, 푸슈킨 기념극장, 고리키 문화궁전, 러시아 민족 박물관(옛날 미하일로프 궁전), 자연사박물관, 그 유명한 에르미타주 미술관 등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건축물, 정원, 가로, 게다가 세계적인 미술관까지 있는 그런 신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할까? 그러나 러시아의 사례는 전제주의 냄새가 강하고 베끼기에도 역부족이며 아름답고 화려한 이면에는 서유럽 지향주의가 너무나 짙게 깔려 있다.

1791년 계획된 미합중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프랑스의 군인이며 토목기술자인 랑팡이 설계했다. 겉모습은 유럽적이다. 특히 바로크적으로 조성된 새로운 공화국의 모형은 흡사 전제국가였던 시절 프랑스에서 건설된 베르사유를 따르는 듯하다. 물론 워싱턴 DC의 중심은 루이14세가 아니라 시민이다. 그러나 바로크적인 선은 단순히 유럽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권위적이면서 팽창지향적인 야릇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쩌면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던 미국 속내에 싹트고 있던 제국주의의 모습이 도시 구조에서 표현된 듯하다. 특히 요사이의 제국주의적 행보를 보면 이러한 배경은 이미 신행정수도의 도시계획에서 예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적이지 못한 상상도 해본다.

신행정수도의 대표적 사례인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는 어떤 모습인가. 1960년 4월 21일 쿠비체크 대통령에 의해 신행정수도로 정해진 아마존의 새로운 수도 브라질리아는 어쩌면 인간의 욕심과 이성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근대건축의 전성기인 1960년대 루시우 코스타의 계획과 오스카 니마이어의 건축물로 대표되는 브라질리아는 당시 50만 인구를 예상하며 조성, 현재 200만이 거주하고 있다. 대서양 연안에 좁게 밀집되어 있는 브라질 국토계획의 균형적이며 적극적인 개발과 발전을 상징화하기 위해 정말 어렵게 조성됐다. 내륙으로 돌진하는 ‘새’의 모양으로, 팽창하는 브라질을 상징한다. 특히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전형으로, 기능적인 새

로운 도시라는 개념으로 조성되었다. 함께 새로운 건축물과 충분한 녹지, 깨끗하고 기능적인 환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념으로 브라질의 미래를 상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대서양의 리우데자네이루가 정치·문화·외교의 중심이 되어 있고 행정 기능은 나뉘어 있다. 도시 건설은 예산 부족으로 대중교통이 완비되지 못하고 있고, 극단적인 야심과 개념으로 지어지면서 ‘인간적인’ (특히 브라질에서 중요한) 냄새가 없는 떠 있는 유토피아가 되었다. 반면 브라질의 저명한 소도시 꾸리치바는 인간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문화·생태도시가 되고 있다. 같은 60년대의 신행정수도로 파키스탄



쌍트페테르부르크는 서유럽을 닮은 수도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건축물, 정원, 가로, 미술관 등 문화적 도입에도 신경을 쓴 결과, 현재도 '러시아의 머리'로 불리고 있다.

의 이슬라마바드와 조금 앞서 호주 캔버라 (1927년 멜버른에서 수도 이전)도 브라질리아와 유사한 행보를 걸었다.

국가의 수도는 아니지만 인도 편잡 주의 주행정수도인 산디가르(Chandigarh)는 60년대 모더니즘 건축운동의 왕초격인 르코르브지예의 도시에 대한 욕망이 아낌없이 발휘된 사례이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건축가이지만) 그는 프랑스에서 시도할 수 없었던 도시에 대한 꿈을 인도에서 완성시켰다. 인도의 문화·기후·전통을 무시한, 어쩌면 도시계획가의 만용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불편한 근대도시를 버리고 교외의 인도적인 주거환경을 선호하던 당시 시대의 이상을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도 멋있는 신행정수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잇장으로 끝난 1979년의 백지수도계획이 아니라 아직도 활발한 문화도시로 살아 있는 경기도의 '수원' 시이다. 수원시는 단순히 화성의 아름다운 모습만으로 기억하기는 세계적으로 아까운 도시다. 역사적으로 신도시가 단순한 왕의 피난처가 되어버린 베르사유 같은 비겁한 면도 없으며 베르사유 기능만 만족하는 신도시도 아니다. 오히려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자급자족하는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이며 군사 및 정치적으로 안정된 완벽한 도시로 계획되었다. 한편으로는 실학의 모든 기술과 사상의 실험장으로서 학자와 기술자로서의 당시 선비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마당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가장 중요한 산업인 농업의 중심지로 가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도시였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은 만석거(현재 만석공원)와 서호라는 인공호수를 통해 농업과 백성을 사랑하는 정조의 뜻을 엿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행정수도의 모습을 이야기해보자. 우선 두 가지 전제를 취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문화동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문화도시' 혹은 요사이 회자되는 '문화수도'의 모양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문화정책의 전개 및 발전방향은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문화 인프라 구축→문화기반시설 활용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개발을 통한 문화향수 진흥→문화향수의 양적 증가에서 질적 발전 추구, 문화창작활동 지원→문화정책을 통한 도시 이미지 개발, 도시 마케팅' 과정으로 성장 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에는 많은 도시가 문화를 통한 마케팅으로 문화도시로 불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동네의 '문화도시'에 대한 바람은 신행정수도의 문화적 조성이라는 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문화都市는 우리의 모든 도시가 이루어야 할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숙제이다.

둘째, 신행정수도의 문화적 가치는 일반적인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적 공동체'와 같은 개념의 종합이 아니라 큰 문화로서 그리고 국가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세계관과 시대의식'이란 개념을 표출할 수 있는 도시의 모습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대정신·개념 어우러진 도시가
문화적인 신행정수도

앞서 소개한 해외 그리고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신행정수도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새로운 세상, 이상 그리고 이념을 신행정수도의 모습에서 구현하려 했다는 것. 우리의 새로운 행정수도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상징 무대가 되어야 한다. 근대 기능주의 이전의 모든 도시는 '정신'과 '영혼'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일본과 우리의 도시 모델이 된 중국의 '장안'은 동양사상과 행정철학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프로토타입이며, 로마 역시 현실과 종교가 결합한 '상징'이었다. 메카나 예루살렘 같은 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후 많은 도시들의 모델로서 그것도 문화적, 정신적 모델로서 존중받았다.

문제는 현재 우리의 시대정신을 구명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도시로서 그리고 도시의 공간, 도시의 사회성, 한편 도시의 문화로서 구체화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참여정부로서의 신행정수도, 평화를 지향하고 새로운 시민사회를 구상하는 정부와 국가로서의 신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오히려 현재의 시대상을 확립하고 신행정수도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그리고 병행하며 우리의 시대정신을 구체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와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수입 도시계획의 기술과 이론을 재검점하고 버릴 필요가 있다. 비인간적인 zoning 계획이라든가 비환경적이고 비인간적인 교통계획, 철학과 문화가 없는 거리, 그리고 경제성장 위주, 소통의 억제로서 독재적인 도시가 아닌 참여와 열림의 도시를 만들



이상으로서의 도시 예루살렘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도시, 문화적 상징도시로 가는 길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도 단순히 기능성만을 추구하는 도시로 급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박정희정권의 백지계획에 대하여 한마디한다면 백지계획은 새로운 외국의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고 멀리 앞으로를 내다보는 우리 현대사에서 드문 장기적인 계획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니와 이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외국 이념의 수입품일 수밖에 없었다. 30년 후인 현재 우리가 창조해 낼 새로운 수도는 우리의 시대정신과 개념이 어우러진 우리의 상징 도시 '신행정수도'가 되어야 하고 바로 이것이 큰 틀로서의 문화적인 신행정수도라고 볼 수 있다.

4

'문화'의 이름으로 밀그림 그리자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류 제 홍

처음부터 다시 사고하자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안은 수도권의 집중화와 중앙화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정권창출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인 제안이다. 이 제안의 정치적인 출발이 향후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도 유일한 원리로 관철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경제적 차별과 착취를 통해 축적된 한국의 구조적 모순들이 공간적으로 집중된 서울의 문제가 정치적인 분권과 공간적인 분산만으로 해결되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치문제를 단순한 문화문제로 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범주들을 재사고해야 한다.

사회를 정치·경제·문화로 분해하고 각각을 분산하여 활성화시킨다고 전체 사회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과 전체, 개별과 집합, 분해와 조립의 변증법은 근대의 ‘과학적’ 인식 틀로서 개념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진보’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과국’을 면치 못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변

화하는 현실을 범주화하는 데는 새로운 경계 설정과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경제 중심도시인 서울에서 정치·행정 부문을 떼어내어 충청권에 분산하고 서울을 경제 중심도시로 만든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재고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공간 배치에 문화도시의 옷을 입히려는 ‘의상철학’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실이 사물화된 기존의 개념 틀 내에서는 정치와 경제 범주를 문화 범주로 치환해 봤자 문제가 이전될 뿐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섬세하고 역동적인 구분과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배치는 새로운 구분과 개혁 속에 각각이 재생성돼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합체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라는 범주로 새로운 배치를 해보자.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가 ‘삶의 총체적 양식’이라면, 이는 예술과 문화산업이라는 협의의 지시에서 벗어나 삶의 양식을 조직 또는 재조직할 수 있는 자아능력의 실현, 이를 위한 제도나 정책의 마련, 그리고 시·공간적 환경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캐나다 오타와의 국립미술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문화’는 문화적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문화정의를 실현하는 문화정치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도시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역시 공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간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되겠다.

문화적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평등의 구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선 삶을 초고속으로 앞지르는 정치·경제적 속

도주의와 영속적인 죽음을 찬양하는 유행의 순환논리를 들 수 있다. 경쟁적 속도전을 통한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는 유흥공간에서 광기로 변화하여 폭발한다. 자본의 회전속도를 가속시키는 것을 무기로 삼고 있는 남한 자본주의는 유행의 순환을 더욱 더 빠르게 만들고 공간의 파괴·생성도 독려한다.

문화 통해 정치·경제·사회 부문 개혁해야

죽음을 부르는 속도주의는 또한 삶의 공간을 사물화시키는 개발논리와 연결된다. 경제적 계급상승을 위한 부동산 투기, 특히 아파트 투기는 개발논리의 연장인 건설논리를 앞세워 주거공간을 삶의 공간이 아닌 재(財)테크의 주요한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삶의 질을 꿈꿀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경제문화적 구조는 시민들을 개발이익에 눈멀게 한다. 현재 점차 공간 생성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로서 시민 참여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문화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큰 장애 요인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사물들의 세계에서 남는 것은 개인들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쾌락의 주체도 책임의 객체도 개개인 단위로 부여되는 개인주의뿐이다. 특정한 시험을 통과한 일부 사람들에게 부와 권력을 보장해주는 국가교육체계는 특권 계급의 재생산을 통해 불평등을 합리화해 왔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 속에서 개개인이 사적으로 복지를 책임지고 위험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공간 경험은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먹고, 마시고, 입는 사적 행위에 의해 지배된다. 따라서

문화도시는 문화적 삶을 자생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성찰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민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도시문화가 도시라는 공간을 문화화하고 그 속에 시민문화를 배치한다면, 문화도시는 문화라는 삶의 양식으로 공간을 생성해 문화시민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신행정수도가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문화도시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



도시계획·환경·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단의 '브라질 현지조사단'이 브라질리아의 이전 경험과 계획도시 건설 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의 삶을 위한 진정한 공공공간도 개인의 삶을 위한 사적공간도 왜곡되고 마는 것이다. 공간 경제학의 측면에서 보면 불평등의 양상은 더욱 분명하다. '경제적 이성'에 기초한 한국 자본주의는 지방으로부터 끌어들이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로 이윤을 창출하였고, 국가 외부 시장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내부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남한 자본주의는 따라서 공간의 차별적 배치를 통한 착취에 크게 의존하여 성장해 온 셈이다. 단적인 예가 특정 공간을 중심화하고 동시에 나머지 지역을 주변화하는 공간정책을 들 수 있다. 공간의 정체성은 따라서 지역 자체의 정체성보다 보이지 않는 외부의 사회적 영향력들에 의해 규정된다. 서울 중심성과

동북아 또는 세계 지향성은 지역 개발의 가장 중요한 공간구조의 외연이다. 이렇듯 공간의 불평등은 계급 사이에서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인 지방 사이에서 재생산된다. 지방분권과 공간분산은 오히려 보기 좋은 허울일 수 있다.

'문화'를 삶의 양식과 관계, 자원으로서 재배치한다면 기존의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구태의연한 차별적 구조를 깨고 삶을 우선시하는 '문화 패러다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부문의 불평등 구조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갈 기반을 잃고 말 것이다.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건설과 개발의 명목은 서울을 경제수도로, 신행정

도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분리시킬 뿐, 불평등의 구조를 보지 못하게 했던 개발지상주의와 성장제일주의의 신화를 계속 재생산할 것이다. 결국 정치·경제적 이성이 사회 모든 영역들을 지배하는 제1원리로 작동하는 한 역사는 탈역사화되고 자연은 탈자연화되고 문화는 탈문화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인간은 탈인간화되고 말 것이다.

주민이 공간문화 개발하는 것이 문화도시

이런 의미에서 대규모의 급격한 공간생산은 공간파괴와 같다. 공간생산보다 공간재생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공간을 개발하여 채우는 것보다 열어 놓고 거기서 공간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공간을 공급하기 전에 자생적인 공간의 수요를 증진시켜야 한다. 여기서 공간의 문화는 공간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 즉 공간살이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을 점유하는 삶의 방식, 공간을 사용하고 배치하는 삶의 방식, 공간을 조성하고 변형시키는 삶의 방식, 공간과 역사를 섞는 삶의 방식, 공간과 자연을 섞는 삶의 방식, 공간과 몸을 섞는 삶의 방식, 공간에 꿈과 기억을 섞는 삶의 방식, 공간에 욕망과 환영을 섞는 삶의 방식 등이 되겠다. 이 과정에서 공간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삶의 방식이나, 공간과 이데올로기를 섞는 삶의 방식, 그리고 공간을 주물화·사물화·연물화하는 삶의 방식 등은 지양해야 하겠다. 따라서 문화도시는 당국과 업자, 그리고 전문가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주체인 주민들이 공간문화를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행정당국이 주체가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구체적 상이 정해지면 주민이 끼어드는 절차가 아니라 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 스스로가 발안하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간담회·워크숍·주민회의·위원회·조정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개적 주민참여 방식들도 구상해야 한다. 물론 종래의 투표방식이나 여론조사와는 다른 참여 형식과 내용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행정당국의 하강식 통보와 이를 승인 또는 반대하기 위한 투표의 형태를 벗어나 단순한 의견의 수렴 또는 조율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이 지점에서 문화교육과 문화연구가 당국과 업자,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에서 참여와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도시는 문화적 삶을 자생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성찰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민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도시문화가 도시라는 공간을 문화화하고 그 속에 시민문화를 배치하는 방식이라면 문화도시는 문화라는 삶의 양식으로 공간을 생성해 문화시민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신행정수도가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문화도시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신행정수도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정치·행정·경제·문화라는 범주들과 실천 양식들이 삶의 문화를 위해 재구성되고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5

문화적 관점에서의 신행정수도 건설방향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 장 용 일

신행정수도 건설은 물질적 기초관계 속에서 '지역과 계층의 관계와 세대'라는 관점에서 과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것이 문화적 맥락에서 도시의 생활양식이 원활하게 의사소통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문화는 상품이 아니라 삶이며, 오락처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참여 속에서 일상사의 풍요로움과 다양한 가치의 실현을 위한 의사소통이므로 3대 과제 속에서 도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기획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문화적 접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껏 한국사회의 도시나 농어촌 개발 및 건설은 50~60년대부터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에 의한 일원적 경제기능주의로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발과 건설의 관계가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원적 관계 속에서 삶이란 행위 활동의 일상사가 경제기능주의로 환

원되는 회전율에 맞춰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에서 배제된 것은 다름 아닌 시민이며 '국가와 시장'의 유착이 생활양식이란 의사소통의 왜곡을 많은 부문에서 초래하였다.

흔히 그 사회의 총체적 삶의 양식이라 지칭되는 문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도시의 한 부문으로 이해되어 왔다. 문화는 사회의 한 부문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물적 기초와 삶의 운동논리를 아우르는 국가와 시민과 시장의 3자연대의 총체적 생활양식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도시 건설은 문화를 둘러싼 논의들이 전무하거나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고, 왜곡된 생활양식을 생산 및 재생산하는 구실을 해왔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과 대안들이 많은 부문의 개발 및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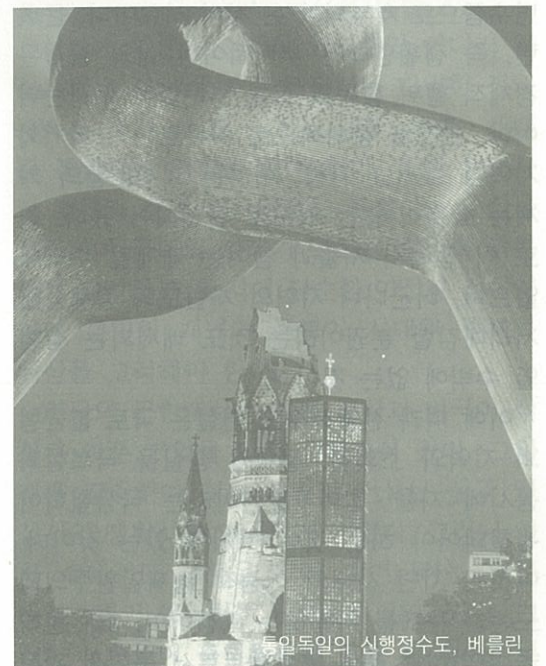
특히 대안들로 나타나는 해결 방법으로 삶

의 질에 역점을 두는 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이 요청하는 것은 지역의 문맥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방화라는 관점을 의미하며 동시에 요구되는 세계화의 한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문화는 지역적으로 일방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삶의 교환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양식의 의사소통이며, 넓은 범위로는 세계화라는 흐름에 다양하게 대응하는 자기관점이자 준거 틀이다. 그러므로 도시 건설에서 문화적 관점의 접근은 그만큼 중요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의 문화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질문이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다.

이 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문화적 접근의 논의 방향성을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총괄적 문화적 방향성 기준 제시로서 첫 번째 3대 원칙과 두 번째 3대 과제, 세 번째 5대 주요 사항을 상징하여 신행정수도가 지향해야 할 문화적 접근을 개괄적으로 시도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의 도시건설과 계획은 기술적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며, 50~60년대 이후부터 만연된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며 그 속에서 생활양식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경제가 발전되면 지역의 경제도 발전된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불균형 성장, 집중 투자,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이라는 국가 정책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피해와 도시와 농촌의 소득의 격차라는 문제점을 떠 안게 되고, 그 해결책으로 지역의 경제가 발전되면 국가가 발전된다는 상향식 개발이 강조되기도 했다.

70년대 무렵은 경제의 자주와 자립의 강조



독일독일의 신행정수도, 베를린

로 상기의 두 가지 방식이 통합적 개발정책으로 지역과 지역 간의 거시적 관계의 개발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 개발을 시도하였다. 80년대는 환경문제 강조로 한정되어 있는 자연재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보존 및 절약하며 계속 공급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시기였다.

지역, 계층, 세대 관점에서 도시 패러다임 기획

그 시기의 주된 관점은 경제적 방식으로서의 접근이며 생활양식은 그에 따르는 종속

변수점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문화란, 즉 생활양식은 부차적이며 삶의 중심은 경제적 행위 활동의 토대 부문만이 우선순위이며, 그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국가와 지역민 그리고 시장’이라는 의사소통의 기제는 효용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바로 이 점에서 자율과 참여는 배제될 수밖에 없으며, 더군다나 지역의 자립도와 정체성을 자리매김할 분권이라는 것도 배제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 불균형과 지역의 소외감, 정체성 상실을 극복함과 동시에 자율·참여·분권이라는 국정철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시대의 기능적 경제일원주의의 모순과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며, 3대 원칙을 실현하는 촉매 프로젝트로서 문화적 관점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위상에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이란 것은 도시와 농촌 등의 이분법적, 감정적, 적대적인 단어로 통용되거나 일상적으로 낙후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 또한 계층이나 세대라는 것도 한국사회의 질곡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맥락으로 동일선상에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함의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본 글에서 3대 원칙을 전제로 풀어야 하는 문제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3대 과제를 상정하고자 하였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한국사회에 흐르는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자 실천하고자 하는 진행형의 건설이다. 그렇다고 지금껏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국토의 불균형에 따른 지역 소외와 중앙으로의 집중에 따른 또 다른 여러 부문 간의 불균형이 단번

에 해소할 수는 없다. 지역과 계층 그리고 세대의 갈등은 오랜 ‘국가와 시장’의 오랜 독과점적인 결과이자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극명한 단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의 해결에 많은 정책이 있어 왔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국토의 균형이란 전제 하에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많은 치유책으로 등장하는 정책들은 그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수단이었고, 삶에 대한 의사소통의 단절로 지역별·계층별·세대별로 더욱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국가와 일방적인 시장의 2자 관계 내에서만 성립되는 개발은 생활양식을 담아낼 수 없을 뿐더러 신행정수도 건설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제된 것은 지역만도 아니고 계층과 세대만도 아니라 지역과 계층 그리고 세대라는 복합적 정체성이 배제된 것이었다. 지역과 세대의 정체성과 계층성은 단순한 물질적 분배로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에서 극복되어야 할 점은 물질적 기초 관계 속에서 ‘지역과 계층의 관계와 세대’라는 관점에서 과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문화적 맥락에서 도시의 생활양식이 원활하게 의사소통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는 상품이 아니라 삶이며, 그것은 오락처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참여 속에서 일상사의 풍요로움과 다양한 가치의 실현을 위한 의사소통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신행정수도의 관점은 3대 과제 속에서 도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기획해야 한다.

다음 세대도 올바로 계승될 가치 실현이 수도 건설 방향

■ 문화 패러다임의 변동

근대화라는 그 총체성인 근대문화의 패러다임은 변동에 와 있다. 21세기는 패러다임의 변동의 시기이며 그 시작점에 와 있다. 역사적 사회적 미래적 모든 측면에서 신행정수도는 다양한 가치와 새로운 기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계속적 지속적인 진행형

하나의 전제 아래 모이고 흩어지던 이데올로기적 속성이 아니라 가치의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그 의사소통의 전달체계의 네트워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 네트워크란 생활양식 속에서 형성되고 합의된 것은 실현을 위해 참여적 속성을 갖는 현실 가치 지향적인 민주주의의 속성을 갖는 진행형이어야 한다.

■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집합행위

중앙과 지방 등의 이전의 역할과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각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 하에 지방의 역할이 분권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참여적인 정체성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 경제·사회정책의 역사문화적 재편성

한국 사회의 낡은 패러다임의 이행 시기에 주요한 문제인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대립적인 모델이 아닌 협력적인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책임과 권리의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재편성을 반영해야 한다.

■ 광범위한 다차원적 혁신적 통합

상기에 따른 사건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사의 미시 수준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정의 속에서 국가·시민·시장, 지역·계층·세대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세계사의 흐름과 문명사적 관점을 포괄하는 위상을 고려하여 국내외 사례가 던지는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동시에 단순한 이전과 건설이 아닌 통일의 개념과 동북아 시대의 주체적 위상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많은 굴곡과 비극이 점철된 아픈 기억을 담고 진행되어 왔다. 그와 궤를 같이하여 많은 개발과 건설은 삶의 일상사와 생활사를 왜곡되게 하였다. 그러나 왜곡 속에서도 새로운 것이 태어나려는 많은 의사소통과 행위활동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러한 노력들이 축적해왔던 것을 현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3대 원칙과 3대 과제 그리고 5대 주요 사항으로 문화적 방향성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성 기준 제시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욱이 앞에서 말한 물리적인 토대의 창출에만 국한되서는 안 된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방향성 기준 제시는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올바로 계승·전승되어야 할 유·무형의 가치 실현에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가치 실현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최종점으로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 미래적 맥락’이란 세가지 측면이 중요하며, 이것을 문화적 관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지역 문화인프라 확충의 실질적 과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 세 훈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충청북도 문화발전계획(1999), 부산시 문화발전계획(2000), 전라북도 문화예술발전 중장기 계획(2000), 강원도 문화르네상스계획(2001) 등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구미문화발전계획(2002), 양평군 문화발전계획(1999)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문화발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문화발전 · 인프라 확충 계획의 취약점

이와 같은 중장기 문화발전계획들은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 문화관광 등 문화 관련 전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사업별 세부계획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 예산의 추정과 조달 방법까지 모색하고 있어 발전계획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문화발전계획들이 보여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높은 문화 발전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 분야를 망라하면서 문화 분야에 대한 전체 사업 및 투자 규모 등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화발전계획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인프라의 구축이 지역의 발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둘째, 문화 인프라의 확충이 새로운 시설 건립에만 국한되어 있다. 셋째, 설립된 문화기반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을 보완하면서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본다.

문화 인프라의 확충 계획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계획 단계에서는 건립될 시설의 규모

구 분	내 용
계획단계	• 시설 건립 및 운영의 타당성 • 운영 계획의 부재 (운영과 관련된 예산 및 인력 예측 부재) • 시설별 통합적 발전계획 부재
운영단계	• 운영 인력의 부재 및 전문성 부족 • 제한된 관객층 • 다양하지 못한 운영 프로그램 • 시설별 연계 운영 미흡 (프로그램의 중복 운영)
평가 및 지원측면	• 평가 체계의 미비 • 체계적 지원 방안 부재

및 유형, 운영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부재,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예측 및 조달 방법 부재, 통합적 시설 발전 계획 부재 등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고, 둘째,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인력의 부재나 전문성 부족,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수요 관객 부재,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미흡한 시설별 연계 운영 등이, 셋째, 평가 및 지원 측면에서는 평가 체계의 미비, 체계적인 지원 구조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표참조)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다 효율적인 문화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반드시 시설 설립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나아가 이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시설 건립 자체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 문화 인프라 확충하려면

- 종합 계획을 통한 통합적 시설 설립 · 운영체계 구축

문화시설의 확충계획은 일반적으로 시설별로 수립된다. 곧 문화의집,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등은 상호 연계 운영이라는 관점보다는 개별 시설의 독립적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화시설 확충은 지역 발전과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 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설이 지향하는 대상 관객층과 대상 장르를 구분하고, 각각의 시설들이 어떻게 종합적인 지역문화복지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그에 맞게 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시설별 운영의 특화와 연계 체계를 사전에 고려하여 운영 시 상호 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화시설의 통합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시설 건립 · 운영 타당성 조사 위원회 설치

현재 문화기반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설의 규모나 유형, 그리고 세부적인 운영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지와 지방비의 확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특정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이 다른 시설보다 건립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건물이 해당 문화시설의 전문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규모는 지역인구 규모와 비례하여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없이 시설의 건립이 추진됨으로써 건립 후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초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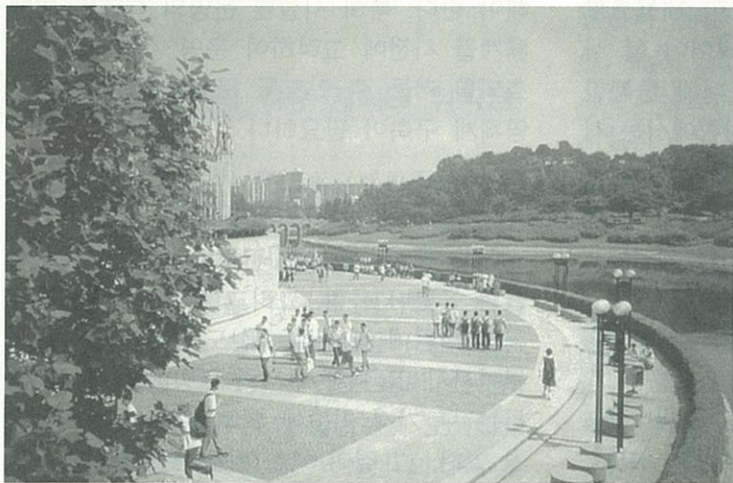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다 내실있게 시설이 설립·운영되기 위하여 시설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 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 실험적 시도를 통한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추정된 예산은 일반적으로 설립에만 국한된 예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설립된 시설의 운영이나 시설 운영을 위해 소요될 인력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추경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시설이 완공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예측되지 않음으로써 실제 시설이 설립되었을 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설 확충 계획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의 행정 관행을 넘어서는 새로운 실험적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지역 차원에서는 시설을 맡아 운영할 문화 관련 단체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특정의 문화기관 혹은 단체들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탁기관의 유형을 법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시설의 운영 실적이나 사업에의 의지, 운영계획서의 충실성이나 현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체나 개인에



문화시설 확충은 지역 발전과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 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도 수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반드시 법인에만 위탁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나 개인인 경우에도 위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준용하여 수탁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시설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혹은 위탁 과정이나 절차가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경우가 문제로 제기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평가 체계의 완비를 통하여 시설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 평가체계의 강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시설의 설립과 확충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설립 이후 운영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큰 정책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 운영과 관련된 평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있으나,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지역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평가의 의미가 있으므로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평가에 응하는 문제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평가가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평가의 부재로 말미암아 부실한 운영을 방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합리적인 평가 및 이에 따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 문화정책연구 기능의 강화

한 지역 내의 종합적 문화기반시설 발전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문화시설간 연계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문화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문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들을 연구할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역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연구원이나 일부 지역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연구원’ 등이 확보하고 있는 문화 분야 연구인력 규모가 대부분 1~2명 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외부의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연구인력 풀을 구상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는 지역 내·외부 문화정책연구자들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들을 문화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지역 문화정책연구를 위한 중요한 인력 풀로 활용할 수 있다.

문화원의 활성화와 앞으로의 과제

공주대 교수 · 이 해 준

1. 머리말

-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대안을 중심으로 발제
-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
- 문화행정 · 문화정책 기본방향 = ‘시민, 일반교양인 중심’, ‘체험과 참여’
- 참여 정부의 문화분권 정책과 문화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2. 지역문화 현장의 변화 양상

■ 문화수요층의 다양화와 요구변화

- 문화향유층이 특수 계층 독점에서 → 일반화 · 교양화 경향
- 다양화, 고급화하는 요구에 대응책 마련이 급선무
 - : 초 · 중등학생, 일반시민, 성인 남녀, 노인 등등
 - : 교양 교육, 체험, 토론, 창작 등등
- 전통, 과거지향보다는 현재 · 미래적 관점의 문화가치가 부각
 - : 전통문화나 문화재 중심 → 점차 생활문화 전반으로
 - : 현재적 가치와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

■ 권위 · 보수 · 과거지향 · 관제적 성향에 대한 비판

- 과거의 권위적 · 지적 과시는 이제 시민사회 및 시민 참여의 확대과정에서 반감
- “우리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일방 논의도 시효 지남

- 객관과 명분, 시민의 동조가 없으면 “官制”단체로 先導力 상실

■ 콘텐츠 · 소프트웨어의 개발 필요

- 21세기 문화는 H/W 보다 S/W · C/W 중점이라는 공동된 인식이 확산
-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나 정책이 아직도 우선
- 콘텐츠 확보 → 소프트개발 → 하드 구축이라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
- 이 과정에서 기초자원 조사정리, 분석, 활용방안까지 고려하는 자세가 요청됨

➔ 문화원의 역할과 기대

■ 문화경쟁과 산업화 요구

- 21세기는 ‘문화의 산업화’내지 ‘산업의 문화화’ 현상이 일반화될 시기로 전망
- 문화산업, 문화상품, 문화경쟁력, 문화전략 등등의 사회경제적 활용요망 제기
- 지역의 문화 지원이 과거와 같은 단순한 자기 정체성과 동질성 확보 차원
 - ➔ 문화적 특성과 이미지가 바로 “상품”이 되고 “경쟁력”, 살아남는 수단

3. 미래의 문화원(1) - 지역문화의 先導 기능

■ 문화원 : 지역의 도덕 · 문화 · 지성적 보루

- ‘참 지성’과 ‘어른’의 존재
 - 현대화 · 서구화 · 정보화 사회 가치 혼돈에 대한 대응논리이다.
 - : 중국의 여자 걸인 ≠ 한국의 미래 가능성
- 학교 밖의 문화교육 필요성 문제도 커다란 과제로 주목
 - : 학생의 문화교육, 평생교육, 인문교육, 성인교육을 담당

■ 기능 분담적 종합문화 운동 지향

- 지역별 문화 · 예술 · 역사 · 교육 · 자원 개발 관심차증 많다.
- 유사하고 목적이 같은 단체들의 분산성 극복 필요
- 문화원은 지역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문화센터이다.
- 따라서 문화원이 (1) 통합적 목적 제시와 조율
 - (2) 각각의 고유기능과 역할이 책임 있게 수행되도록 지원

- 문화원은 분산·소모·중복적 문화활동을 총괄·조정·선도하는 기구로

4. 미래의 문화원(2) - 자료뱅크와 싱크탱크 기능

■ 지역문화의 자료 뱅크화

- 지역 문화자원(문화 콘텐츠)의 발굴·정리문제는
: 지역 문화 정체성 확보의 기초작업
: 지역문화 차별성, 경쟁성, 자원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
- ① 문화 콘텐츠 발굴에 소홀
⇒ ② 자원화 가능한 지역문화 형성화 부진
⇒ ③ 자기식의 문화자원 활용 방향 없고 결국 타 지역 모방
⇒ ④ 경쟁력 감소, 지역민의 자긍심 저하의 악순환 계속
- 미래의 문화원은 지금보다도 더욱 진보된 지역문화조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주민 공유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 지역별로 문화자료의 생산자이자 공급원인 향토사 연구자들이 많고, 또 지역문화자료를 전시할 자료실·민속관·특수 박물관 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수집하고 정리한 수많은 자료들이 과연 유기적으로 그리고 효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본다면 그 대답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대개의 경우 이들 자료들은 특별한 관심자나 연구자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거나, 극히 일부의 자료들이 평면적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던져져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문화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문화가 지닌 특수성(상품성)을 알리는 데도 기여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문화원이 이러한 자료관을 지역문화 자료센터로 운영하고, 이곳에서 생산조직되는 자료를 정보화, 전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해당지역의 전통문화와 의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는데 매우 유용한 기반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상징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 예컨대 프로그램의 내용, 목표 관리, 평가 등 목표나 계획성이 매우 미흡, 소극적 등등 - 도 이러한 자료 뱅크의 운영을 통해서

해소되리라 기대된다.

■ 문화분권과 문화 싱크탱크화

- 참여정부의 문화 분권 개념
: 의식 고양 → 격차 해소 → 다양, 창조력(참여) → 문화관리 → 문화주도 선도
-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매체, 중심체이기를 기대
- 역할분담과 상생적 구조의 인정
: 교육 창작 연구 운동 자료
: 싱크탱크 인력 풀, 아웃소싱
: 인력 풀이 이루어지면서 지역문화 연구 및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 지역학은 실현가능한 '학제간 연구' 시스템이고 성공 확률이 높다(?).

5. 미래의 문화원(3) - 지역문화 자원의 다양한 활용

21세기 문화가 H/W보다 S/W·C/W가 중심이라는 인식은 거의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 정책이나 행정, 계획분야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기초적 노력이나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콘텐츠 정리 없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나 정책이 앞서서 이루어졌고, 이를 활용하고 응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자원으로 활용될 지역문화자원 예컨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과거의 유형적인 문화유산 이외에 지역 인물이나 정신, 민속, 인심과 같은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 특산물, 토속음식, 자연경관과 레저(전원, 휴양림, 백사장, 낚시터 등) 같은 자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형 자료(유적·유물·문서 등) 이외에 최근의 문학작품, 논문, 신문기사 등까지 포괄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적 특성이 강한 생활문화와 민속 같은 분야에 대한 색다른 의식,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현대문화사 같은 광범한 문화 소재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모두가 종합적 구도 속에서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를 체계화하여 차별적인 문화 특징을 구별하게 함으로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1,000개의 콘텐츠 확보
⇒ ② 5~10종의 소프트 개발

⇒ ③ 1~2개소의 하드웨어 구축

- 객관이나 상징성·정체성·경쟁성·투자효율성 점검
- 유형별, 수요층 수준별 콘텐츠 발굴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준비

지역문화원이 활용될 때, 우선은 그 문화를 대하는 수요층의 기호와 흥미,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 ‘억지로 먹인다’가 아니라 ‘골라서 먹게 하는’ 개발이 되어야 하며 그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다양한 문화 체험 이벤트 개발, 패키지 구축, 비교문화 관점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첫째 유형별 소프트웨어 개발로 <교육형/관람형/체험형/레저형/복합형> 등으로 구분하거나, <역사/유적/생태/민속/특산/음식/인물> 등의 소재와 테마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개발은 강한 문화특성과 내용성이 강조되어 “해당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집중성이 있는” 콘텐츠로 특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요구, 수요계층의 수준이나 기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수요자를 정확하게 보고 그들의 수요에 맞도록 남·녀, 노·소, 내국인·외국인, 학생·전문가 등등의 대상에 따른 기호도,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소프트웨어의 내용 구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그 매체와 채널을 다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정보화라거나, 축제·이벤트화, 교육프로그램화, 문화상품 개발, 창작예술로 연계 등등 방법은 수없이 많다고 본다.

■ 자원의 정체성과 활용의 경쟁력 문제

- 콘텐츠 발굴과 소프트웨어 개발 없는, 단발적·주인없는 사업추진의 지양
: 정동진, 왕건 촬영장 식의 관광개발 / 인삼 도자기 축제, 비엔날레의 난무 / 박물관 건립, 민속마을 복원 등 하드중심 시설 투자
- 부족한 지역문화 경쟁력과 대응력
- 집중성과 종합성, 아이템의 패키지화
: 산발·분산적 나열보다 “집중성과 종합성” / “아이템 차별화” 필요
- 활용 영역의 확대
: 창작 예술 소재 / 관광자원 개발 / 축제·이벤트 / 정보화 / 문화상품화

6. 맺음말

이상에서 향후 문화원의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부분적 지적이어서 매우 부족한 발표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과거의 문화원과 현재의 문화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많은 업적과 함께 사회여건에서 비롯된 여러 한계들도 없지 않아서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다면 현재의 條件不備를 탓하는 3세대 젊은 인력들에게서, 1세대나 2세대가 느꼈던 ‘관심과 비평에 대한 그리움’은 전혀 이해도 되지 않을 듯 싶다. 그만큼 발전을 해온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교육현장을 비평하는 말 중에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 있다. 우리의 문화원 현실도 그런 점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 서두에서 발제자는 변화를 인식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다행히 문화원과 지역문화의 현장 변화는 결코 나쁜 방향으로의 변화는 아닌 듯 싶다. 나는 그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기만 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선도적이고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문화인이고, 참 지성인의 자세일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화원은 그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다른 어느 기관보다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의의와 과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 · 이 흥 재

지방 시대를 맞아 지역들은 역사적 문화유산이 산적해 있음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참값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 문화적 분권화와 문화적 주민자치를 위해서 지역은 이제 개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며 지역을 지역답게 하는 지역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이 지역다운 문화적 마을로 탄생되도록 여러 가지 고심 어린 정책을 제시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늦었지만 이러한 정책 설정이 이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제대로 보고 의미를 찾는 계기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창조성이 관건...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은 이러한 지역 만들

기의 소재로 가장 적절하다. 예컨대 자연을 이용한 역사적 건축물(하천·수로), 거리와 이에 딸려 있는 시설(거리·골목에 딸려 있는 시설), 근대 이전의 공공건물(종교시설·성곽) 등이 보편적이다. 그 외에도 근대 이후의 공공건물(행정관청·교육시설·대중이용 건물·교통시설·산업시설), 마을이나 민가(역사적 마을·사찰·민가·농어촌 마을·근대 건축물), 전설·생가·명소(지역 이름 관련 전설·기타 전설의 공간·역사적 장소·생가·구택·명소), 유적(이미 알려진 유적·미 발굴된 유적) 등이 모두다 훌륭한 문화 자산이자 마을 만들기의 소재거리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선 지역의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마을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창조성에 유의하여 문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정보를 발굴하고 공개하여 지역 내외의 주민들이 공유하도록 한다.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여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해 올려야 한다. 지역의

문화 원형을 최대한 발굴·공개하여 문화 산업의 콘텐츠로 활

용하도록 제공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향토사와 마을단위의 마을사를 기록하여 최근의 지역 정보화 사업에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그렇다면 누가 추진할 것인가. 관 주도는 가급적 피하고 민간 주도의 협의회 체계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NPO 시대인 만큼 지역 문화원 같은 비영리 문화단체들이 중심이 되고 자주적인 주민조직체, 상공회의소, 농협, 시·군 등이 참여하여 주민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5,000여 개의 단체가 활동하는데 그 중 반절 정도는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건축, 도시계획, 고고학, 문화재보호 등에 관심 있는 각 단체들과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나름대로의 기준과 평가를 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다.

☐ 지속 추진 · 추진 과정이 중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 형성과 관련하여 가급적 조례로 제정하여 지속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와 단체의 협력적 추진이 중요하다. 문화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역사적 시가지를 정책적으로 보전·활용하기

추진 주체간의 역할 분담과 문화협동 네트워크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업에 필요한 재정 동원과 추진방향의 설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애착을 위해 주민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해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한 방안이 중요하다. 역사적 거리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려면 지역개발정책이나 국가정책과 일단 부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방정부 등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추진해야 한다. 즉 지역의 보존계획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하에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총체적인 계획 속에 다른 분야와 협조
- 토지 이용의 정비, 도로 정비 등
- 관광사업의 발전계획
- 보존 대상의 등급별 구분 등의 작성
- 건물의 높이, 색채, 양식 제한 등
- 문화재의 보호, 수리와 그의 환경 보존

이러한 사업 중 상당 부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사업 보조금을 받아 단체들이 부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로 보조금에 의해 자치단체들이 도로 등의 인프라스트락처의 정비, 보존 지구 내의 오염원, 특히 공장 등의 이전, 풍속이나 거리의 집들 보존,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관광시설의 건설 등을 추진하고 민간단체들은 협조 내지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또한 중요하다.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야 한다. 이 중에 대규모 프로젝트는 관민계획협회의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어떤 것은 지역 주민 상호간 합의 형성의 수단으로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추진할 때 이벤트화해 지역 내외에 파문을 불러 일으켜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 이로써 이 사업의 명분을 삼고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영국은 역사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좋은 건물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 '시빅 트러스트'를 구성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등록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기도 한다. 이런 운동은 '지역발전협의회'가 주민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추진한다.

이탈리아도 1970년대부터 도시 중심으로 문화역사마을 가꾸기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로니아의 상·레오나르도 지구, 솔페리노 지구 등은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다.

중국도 역사문화도시제도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1982년에 정해져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도시계획제도 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중국 국무원은 1982, 1986, 1994년 3회에 걸쳐 모두 99개의 역사문화도시를 지정하였고, 각 성청도 104개의 도시를 지정하였다. 지정된 역사문화도시의 역사상 저명한 도시, 민족문화의 측면에서 가치가 큰 도시, 정치 경제 사회의 종합적인 면에서 역사상의 지위와 지명도가 높은 도시, 근대 혁명 역사상에서 중요한 도시

와 같은 특징을 지닌 도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80년대 말부터 문화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고향창생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였다. 그것이 이제는 지역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었다. 역시 민간단체가 5,000여 개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반절 정도는 민간 주도적인 자주적 조직체이다. 즉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도록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국가, 자치체, 경제단체, 민간기업, 시민 등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거리추진협의회'는 사업계획의 마무리, 각종 사업에 관한 사업자간의 조정, 국가 등에 진정, 회원단체의 확보와 교류, 계획 전반에 관한 홍보활동, 공동홍보 등을 추진한다. 사업예산은 회원단체의 회비, 홍보 협력금, 수탁조사비 등이 주 수입원이다.

단체들이 수행할 사업은 크게 하드와 소프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하드 면에서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공동 디자인을 통한 역사거리 안내표시 사업 : 로고, 심벌마크, 디자인 매뉴얼 등의 제작, 안내표시 정비·역사문화의 지역 조성
- 자연환경, 역사적 경관,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과 활용 추진·역사문화거리에 걸 맞는 신규 건조물 건립
- 역사문화거리의 명소 만들기
- 역사거리 모델 사업

한편, 소프트사업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벤트와 캠페인의 실시
- 홍보사업 실시
- 역사문화거리 안내 센터 운영
- 지역의 새로운 축제 개발
- 주변을 아름답게
- 지역간 교류 및 해외교류

㉕ 가능성 있는 주제로 사업 추진 주체간 네트워크 절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기하는 데는 앞에서 보았듯이 주제와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가능성 있는 주제를 지역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하여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애정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공 부문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문화원과 같은 많은 문화단체들이 잘 해왔던 사업이다. 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사업화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단계이다.

그리고 가급적 당해 지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살려야 하고, 이를 지역의 상표 자산으로 활용할 만큼 지역 상징성이 커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유사한 문화자원을 통한 유사한 문화행사화로 관심을 끌기는 어렵다. 보다 개성 있게 꾸미고, 차별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표 자산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자원은 가급적 다른 문화

자원과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동적인 것과 정태적인 것, 원형과 변형, 국내의 비교가 가능한 것, 전통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결합시키는 것 등 다양한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민간의 다양한 역량을 결집시켜 가능한 사업을 스스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추진 주체간의 역할 분담과 문화협동 네트워크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업에 필요한 재정 동원과 추진방향의 설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애착을 위해 주민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민관협동체를 구성하여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 지역의 각종 문화단체나 주민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원하는 지원 주체들과의 협력적 추진이 아쉬운 경우를 본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본 사가 현 요시노케 마을의 경우 지역 만들기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높이게 된 것은 지역 사람들의 성실 때문이라고 평가받는다. 유적에서 식당, 토산물점, 주차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제3섹터의 사가 현 요시노케 마을 유적보존협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 개발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일본 역사 · 문화마을 가꾸기 사례

지자체의 역사 · 문화마을과 경관관리

동경대 도시공학과 객원연구원 · 오 민 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채 안되는 요즘 지역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려는 시도가 축제라든가 문화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명 그러한 시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 곧 지역 고유의 경관을 보전하고 형성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역사문화마을 가꾸기의 공간적 접근은 해당 마을 가꾸기가 지속 가능하도록 그릇을 가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역사 · 문화환경을 담은 그릇으로써의 경관

지역의 역사경관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는 것은 해당 지역 마을 만들기의 주요 내용이 된다. 보전과 함께 역사 · 문화경관이 잘 보전

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 또한 잘 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전만으로는 역사경관 및 문화경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역사 · 문화경관의 경제적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역사 · 문화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로 ‘문화관광 혹은 생태관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보전 및 활용에 더하여 환경에 대한 고려 역시 역사 · 문화마을 가꾸기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역사 · 문화마을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경험을 우리들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환경이 훼손되고 오염된다면, 10년 후 혹은 20년 후 우리들의 후손들이 같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적어도 똑같은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 · 문화경관은 해당 지역의 전통건물, 오래된 가로 패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 전설이 존재하는 장소 등 유무형의 역사 · 문

가마쿠라 시는 도시경관조례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고제도를 두고,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경관 형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녹지가 풍부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풍치지구와 고도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화자원이 해당 지역에 점(點)적, 선(線)적, 면(面)적으로 존재하는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유무형의 역사 · 문화자원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역사자원이 존재하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 · 문화자원의 가치는 떨어지고 만다.

예컨대 경주와 같이 역사자원이 지역 전체에 산재해 있는 역사도시뿐만 아니라, 역사자원이 적게 존재하더라도 역사 · 문화자원의 주변 경관을 보전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아울러 해당 지역의 나머지 공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 가나자와 시 최초 조례 제정 후 발전

일본의 역사 · 문화환경 가꾸기는 동경올림픽 이후 엄청난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경관 및 역사경관은 물론 도시경관까지 파괴되어, 1960년대 말 이후 이에 대한 행정 및 제도적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가나자와(金澤) 시에서는 일본 최초로 ‘전

통환경보존조례’가 제정된 이후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역사 · 문화경관 보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인 ‘조례’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1975년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제도와 고도보존법이 제정되어 개체 보존에서 면적 보전으로서의 변모하게 된다. 즉 역사경관 보전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보전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1978년 고베(神戸) 시의 도시경관조례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 수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때부터 경관의 보전을 포함하여 경관의 창출을 위한 경관 유도 시책이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마쿠라(鎌倉) 시는 고도보존법(고도에서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고도(古都)’인 ‘7시1정1촌’ 중 하나이자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 ·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잘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잘 갖추고 있다.

가마쿠라 시 도시경관조례에서는 도시경관 형성기본계획을 책정하고 경관형성지구를 지정,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광고물 및

총칙	도시경관의 형성						표창 및 원조
	경관디자인 위원회	도시경관 형성기본 계획책정	경관형성 지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광고물 등의 경관 유도	경관중요 건축물 등	경관 어드바이저

〈가마쿠라시 도시경관조례 체계〉

경관 중요 건축물 등에 대한 내용과 경관 어드바이저를 두어 경관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표창 및 원조를 통해 경관 보전 및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표창조).

가마쿠라 시 도시경관계획은 시 전체를 대경역(大景域)으로 정하고 지형·지역성·경역·종합계획이라는 네 가지 시점에서 가마쿠라의 경관구조를 2개의 경역과 4개의 경관지역, 4개의 벨트, 4개의 거점으로 구성하고 있다. 도시경관 구조체계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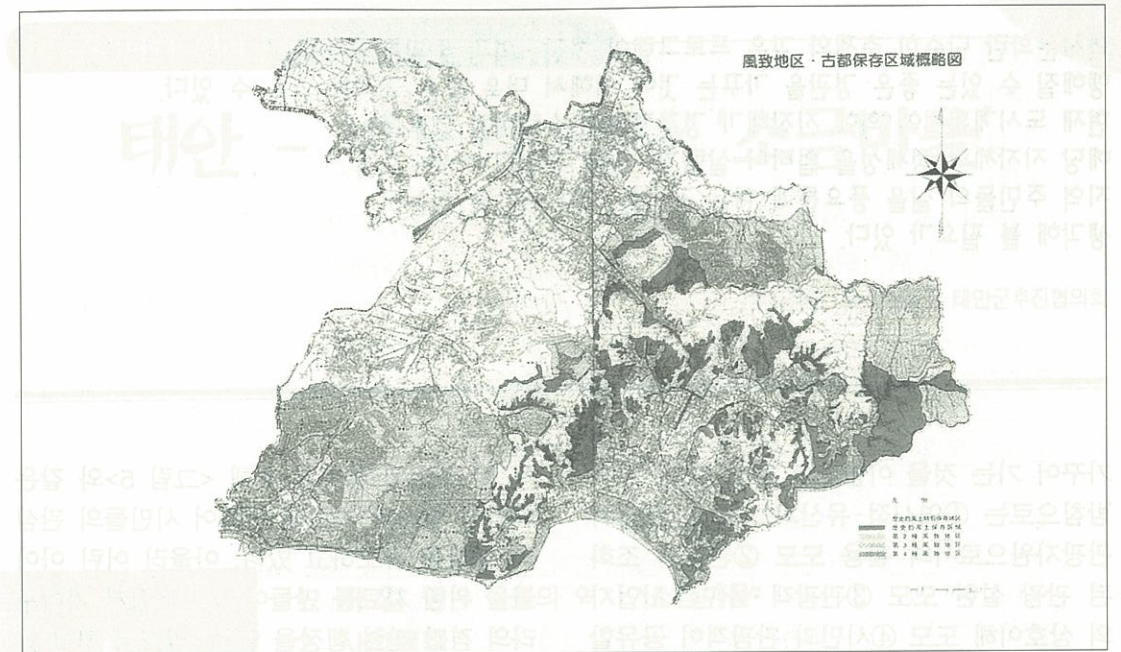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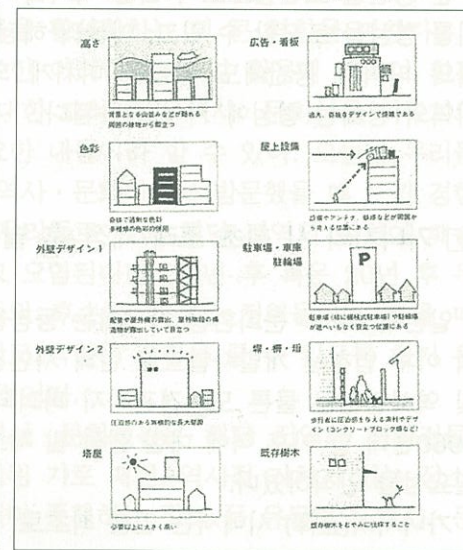
▼ 그림1. 도시경관 기본구조도



2개의 경역은 '고도 가마쿠라' 과 '새로운 가마쿠라' 라는 두 가지 테마를 설정한 것이며, 5개의 경관지역은 2개의 경역을 기본으로 평지, 곡호구릉(谷戸丘陵)과 같은 지역적 특색 및 토지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였다. 4개의 벨트는 2개의 경역과 4개의 경관지역을 관통하는 유기적으로 연속하는 축 모양의 골격이며, 3개의 거점은 '고도 가마쿠라' 과 '새로운 가마쿠라' 대표하는 도심적 기능을 갖는 장소이다.

도시경관조례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

▼ 그림2. 가마쿠라 건축물 등의 디자인 작법



▲ 그림3. 풍치지구 및 고도보존구역 개략도

축물에 대한 신고제도를 두고, 가마쿠라 시의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경관 형성 가이드 라인을 정하여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관 형성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①가마쿠라에서의 건축물 등의 디자인 작법 ②건물별 경관 형성 가이드라인 ③지역별 경관 형성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다.

녹지가 풍부한 마을 만들기 위해서 풍치 지구와 고도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양호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풍토를 보존하고 있다. 특히 고도보존구역은 역사적 풍토보존구역 및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로 나누어 중심시가지 주변에 지정하고 있다(<그림 3> 참조).

☐ 시민 및 관광객과 행정이 함께 가꾸기

풍치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이나 증축, 택지 조성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도보존구역에서는 특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마쿠라 시에서는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간 약 20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환경 변화 및 관광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있다.

기본 이념은 '살기 좋고 방문하기 좋은 가마쿠라' 로 시민 및 관광객과 행정이 함께

역사문화란 단순히 축제와 같은 프로그램이 해당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해질 수 있는 좋은 경관을 가꾸는 것에 의해서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정체성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지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을 가꾸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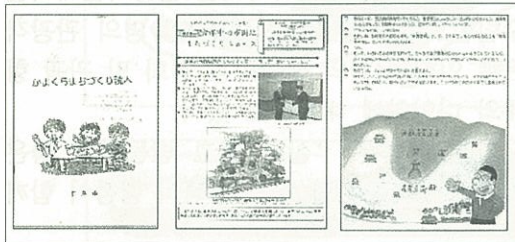
가꾸어 가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기본 방침으로는 ①역사적 유산과 자연의 보전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도모 ②환경과 조화된 관광 실현 도모 ③관광객·시민·사업자의 상호이해 도모 ④시민과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관광 기반 정비 도모 ⑤가마쿠라 관광의 질 향상 도모 ⑥관광에 의한 경제 활성화 도모를 정하고 있다.

한편 가마쿠라의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정



◀ 그림 4. 가마쿠라 관광 기본계획

▼ 그림 5.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 자료들(가마쿠라 마을 만들기 독본, 고도 중심시가지마을 만드미 뉴스 제23호, 고도보존법은 무엇일까요의 내용 중 일부)



책 및 사업의 홍보를 위해 <그림 5>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가마쿠라의 경관 관련 행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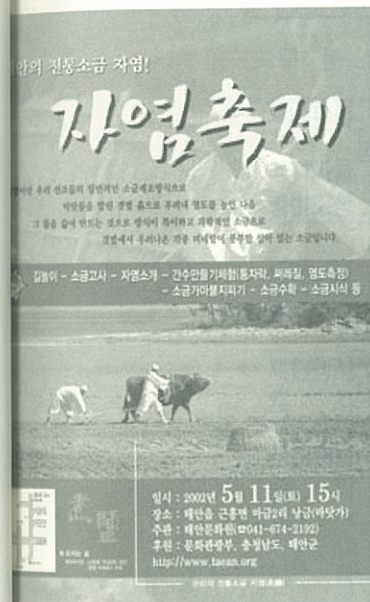
지금까지 가마쿠라 시의 역사·문화마을 가꾸기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다. 역사·문화마을 가꾸기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계획과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공간을 잘 가꾸어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역사·문화란 단순히 축제와 같은 프로그램 하나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해당 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해질 수 있는 좋은 경관을 가꾸는 것에 의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정체성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을 가꾸어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사·문화마을 가꾸기 사례

태안 - 반도의 역사 '소금마을'

우리문화·역사만들기 태안군추진협의회



1. 사업명 : 반도의 역사 "소금마을"

2. 사업목적 :

소금 생산 여건이 좋았던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소금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소금인 자염을 중심으로 소금의 역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소금의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함.(중심지:군흥면 마금리 남금마을)

자염이란 천일염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소금을 만들어 내던 전통의 방식으로 바닷물을 말린 갯벌 흙으로 우려내 염도를 높인 다음 그 간수를 끓여 소금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염도가 높은 간수를 만드는 방식이 특이하고 과학적이며 소금의 맛이 좋고 갯벌에서 우려나온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한 살아 있는 소금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자염 생산에 대한 문헌이 거의 전무하고 기록용 사진 하나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태안군에서는 지역 노인들의 고증을 통하

여 50년 만에 옛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냄으로써 학계·언론계·교육계의 커다란 관심거리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매년 자염생산 시연을 통해 태안 지역의 생활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중요한 옛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의장으로 마련하고 지역의 고유한 전통생활문화로써 그 기능과 방식의 희소성은 물론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 매년 행사를 통해 체계적인 자료의 정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개요

- 사업성격 : 지역문화기반조성
- 사업주체 : 태안문화원
- 사업추진의 개요 :
 - 2002년도 문화관광부 후원하고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
- 현재 사업진행상황 :

진행일	진행상황
2002. 9. 25	문화관광부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통보
2002. 10. 15	문화관광부 우리문화 역사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계획 통보
2002. 11. 15.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신청서 제출
2002. 12. 7.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예비 지원 사업 설명회 자료 제출
2002. 12. 13.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예비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2002. 12. 27.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1단계 지원사업 심의결정
2003. 1. 7.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1단계 선정사업 예산지원
2003. 1. 8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추진위원, 자문위원 보완 선임 요청
2003. 2. 10.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자문위원, 추진위원승인요청
2003. 2. 14.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 마감리주민 1차 공청회
2003. 2. 24.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 마감리주민 2차 공청회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마감리 주민협의회 구성 (대표 박병래외 8인)
2003. 3. 6.	천일염전 현황 조사
2003. 3. 17.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현장 답사
2003. 3. 22.	천일염전 임대관련 및 현장 답사
2003. 4. 2.	우리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 자문·추진위원 위촉식
2003. 4.	현재 공유수면사용허가에 대한 서류검토 및 신청서류 작성중
2003. 7. 2	공유수면점용 승인

○ 협조기관(단체) :

태안군, 태안화력, 농협중앙회, 서산수협, 근흥면, 충남발전연구원, 배재대학교, 태안군의회, 마금리 주민, 참여자치시민연대, 민간기업체 등

4. 사업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용(1단계)

- 가. 소금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남금마을 주민협의회 구성, 자연과 소금에 대한 고증작업
- 나. 현재 조성된 기반시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도구제작 및 베타 수리 및 보강작업 실시
- 다. 통조금(간수를 얻기 위한 과정)을 이용하여 간수를 확보한 뒤 베타(가마터)에서 가마에 불을 때서 소금을 생산함.(행사전 시험생산 2회 실시) (재현행사실시)
- 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마을의 각종 문화 자원을 활용한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 (갯벌, 천일염, 자연, 바지락양식장등 과 연계)
- 마. 생산된 일정량은 태안군의 홍보 및 축제기념품으로 활용함.
- 바. 소금에 대한 고증(남금 마을 중심)을 실시하고 연구자료의 정리 및 발간 방안 모색
- 사업추진일정(1단계)

구분	내용	추진시기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우리문화 역사마을 기반조성	· 마을기반조성 · 체험학습장조성													
고증 및 연구개발	· 재현행사관련연구													
	· 역사문화자료연구													
재현행사 개최	· '재현행사개최'													※별지1을 통해 보충
추진위원 회의	· 재현행사, 활용방안, 기금모금에 대한 협의, 연구성과논의													· 추진위원회를 통한 세부계획서작성
기록	· 화보집,비디오제작 · 축제관련자료집 · 연구자료집발간													· 소금관련 기초자료 확보
홍보	· 재현행사 및 체험학 습장에 대한 홍보													
경상운영	· 행사진행, 연구보조, 추진위원회운영, 역사마을조성및관리													
체험프로 그램운영	· 연중 홍보를 통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사업의 필요성

태안군에는 200여 군데의 자염 벚터가 있었으나 전부 소멸되었으며 자염을 생산할 만한 입지 조건이 있는 곳은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문화원 임원진들이 3년 동안 적지를 물색하던 중 태안군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적지를 발견하여 고증을 통하여 옛 방식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자염의 생산방식에는 크게 갈개조금과 통조금의 형태로 간수를 얻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염 생산에 대한 문헌이 거의 전무하고 기록용 사진 하나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태안 문화원에서는 마금리 낭금 마을의 노인들에 의한 고증을 통하여 50년 만에 옛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내는데 성공을 하였다.

현재 고증을 해줄 노인들이 연로하여 불과 수년이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리의 전통 소금생산방식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자염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생활문화로써 그 기능과 방식의 희소성은 물론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 재현 및 발굴이 시급한 과제이며 체계적인 자료의 정리를 통한 보존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낭금 마을은 현재 자염을 고증함은 물론 천일염전이 남아 있어 소금마을 조성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 1단계 소요예산 및 확보계획

소요예산	(단위:천원)			
	국고지원	지방비	자체예산 (사업주체)	기타
170,000	100,000	50,000	10,000	10,000

○ 확보계획

사업선정에 따른 국비의 지원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으로 지속적인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전통소금 문화마을로 조성함으로써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축제를 통한 부가치를 창출함(마을관 관련된 유료체험프로그램개발, 축제상품개발등)

7. 사업기대효과

- 전통성, 독창성, 희소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역의 생활문화인 자염제조방법을 꾸준히 재현함으로써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학술적인 가치 등 여러가지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태안군을 찾는 내·외 관광객들에게 마금리 낭금 소금마을에서 우리의 전통 소금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역사 체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마을을 형성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소금생산의 역사를 한곳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낭금 마을 자체로 역사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활용계획

- 우리나라 최초의 소금(자염)역사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소금 문화 체험장으로 활용
- 재현방식의 시연을 통한 체험학습의장 운영
- 역사성과 독창성을 이용한 관광지개발
- 지역의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
(해수욕장, 바지락 양식장, 인근갯벌 등과 연계)
- 학술적으로 역사자료의 보존지로 남김
- 지역소득에 기여
-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향후 소금박물관 조성의 기반마련

9. 기타(특징)

화려한 유형의 보물, 독창적인 기술, 유서 깊은 민속놀이만이 중요한 전통 문화재는 아닐 것이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서민들의 생활문화야말로 우리나라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조상들의 대중적인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을 보존함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소금이라는 문화적 소재를 이용하여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한국의 문화로 정착시켜 세계의 문화적 자산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경우 낭금마을은 광범위한 계층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가족단위 역사·문화 관광지로 그 소재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조수에 따라 하루 두 번 바다에 잠기는 갯벌 공간의 매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염(煮鹽)제작과정과 시설 및 도구

1. 자염(煮鹽)에 대하여

① 자염이란

햇빛에 말린 갯벌 흙을 바닷물로 걸러 염도를 높인 다음 가마에 끓여 만든 소금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재래 소금을 말함.

② 자염 제조에 적합한 장소



- 마금리 갯벌
- 모래가 20%정도 섞인 갯벌
- 조금동안(바닷물이 적게 들어오는 약7~8일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

③ 자염제조 방법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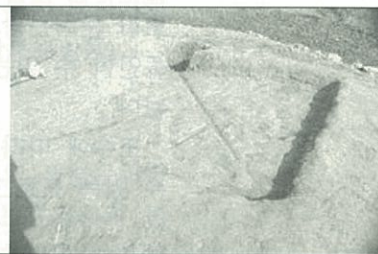


▪ 통조금방식

갯벌 가운데 함수(鹹水)를 모으는 웅덩이를 파고 조금 때를 이용하여 중앙에 통자락(물이 모이는 통)을 설치한 다음 웅덩이의 흙을 통 주변에 펼쳐 써레질을 이용하여 말린 다음 바닷물이 밀려오기 전에 다시 말린 흙을 웅덩이에 밀어 넣어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스며들게 한 다음 그 물을 가마에 끓여 소금을 만드는 방식

▪ 갈개조금방식

육지에 웅덩이를 파고 그 위에 갈대나 소나무를 덮고 잘 말린 갯벌 흙을 모아 쌓은 다음 바닷물을 부어 염도가 높은 함수를 만들어 끓이는 방법



공산성

2. 자염제작과정

① 베타(가마터)만들기



- 움막짓기 : 자염을 끓이기 위한 장소
- 가마술 달기 : 움막 안에 8자 -12자 직사각형의 솔설치
- 버긱만들기 : 움막 안과 바깥에 통하는 간수저장 웅덩이
- 나래 두르기 : 바람을 막기 위한 나래 두르기

② 통자락만들기



- 웅덩이파기 : 통자락을 만들기 위하여 갯벌에 지름 8~9미터 중심깊이 1.5미터의 웅덩이를 판다.
- 말뚝박기 : 웅덩이 안에 통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뿔모양의 말뚝으로 기초를 만든다.
- 통만들기 : 말뚝의 둘레를 띠풀 또는 갈대로 엮어 통을 만든다.

③ 갯벌흙말리기



써레질

갯벌 흙이 빨리 마르도록 소를 이용하여 하루 두세 차례 써레질을 함

덩이질

써레질하는 과정에서 생긴 흙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작업

흙덮기(나래질)

7,8일 동안 말린 갯벌 흙을 통 자락 주변에 밀어 넣어 덮는다.

백제의 궁성이 있던 공산성



공북루 (도지정문화재 제37호)
조선시대 선조 36년 (1603년)에 망북루터에
신축한 공산성 북문이다.



연지와 만하루
공산성에 있던 백제시대 연못 중 하나이다.
깊이는 약 9m이며, 연못과 금강 사이에서 있는
정자가 만하루이다.



금서루
공산성 4개 성문 중 서쪽에 설치된 문루이다.
문헌 기록과 동문의 유구를 조사한 결과와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1991년 복원하였다.



공산성은 옛 백제의 궁성인 웅진성이 있던 곳으로 추
정되는 백제의 대표적인 성곽이다. 문주왕 원년
(475)위례성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여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
을 거쳐 성왕 16년(538)에 사비성(지금의 부여)으로 옮길 때
까지 5대 64년간 왕도를 지킨 곳이다.

주말이면 백제 시대의 수문병 근무 교대식을 재현해 보이
는 서문을 지나 성내로 들어가면 쌍수정, 진남루, 광북루,
공북루 등을 만날 수 있다. 숲과 흐르는 강물과 더불어 옛
백제 역사의 숨결에 젖어보고 싶다면 공산성 산책이 제일
이다.

공산성 공주시 산성동~금성동 일대 TEL. (041) 856-0331

④ 간수 옮기기



▪ **염도 측정**
사리 때 밀물이 들어와 통자락안으로 간수가 스며들면
다시 조금 때가 되어 통의 뚜껑을 열고 대름(염도를 측정
하는 도구)을 이용하여 염도를 측정한다



▪ **간수운반**
통자락 안의 간수의 염도가 알맞으면 가마터로 간수를
운반한다.



▪ **간수저장**
가마터로 옮겨진 간수는 솔에 붓고 남은 간수는 버섯
(간수저장웅덩이)에 보관한다.

⑤ 소금끓이기

- **떨감준비** : 소금을 끓일 솔가지를 준비한다.
- **불지피기** : 가마솔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 **불순물제거** : 가마솔 안에서 간수가 끓기 시작하면 불순
물이 거품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후리채나
대칼을 이용하여 걷어낸다.
- **불 조절하기** : 소금의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불을 적
당히 조절하여 뜸을 들인다.
- **소금수확** : 소금생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소금을 되
주걱으로 퍼서 삼태미에 담아 물을 뺀 뒤 소
금섬(가마니)에 담는다.



국보 12점이 출토된 무령왕릉

백제 제25대 무령왕(501~523)과 왕비를 합장한 왕릉(사적 제13호)으로 금강이 아늑하게 감싸
도는 곰나루 가까이의 송산리 고분군에 있다. 이곳에서는 108종 2,906점의 유물이 출토
되었고, 그 중 특히 왕과 왕비의 지석 2점이 있어 백제 25대 무령왕릉으로 밝혀졌다. 출토유물
중 12점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무령왕릉 공주시 금성동 141번지 관리사무소 TEL. (041) 850-4546



금제관식 (왕, 국보 제154호)

순금판 위에 문양륜랑(文樣輪廊)을
선각하여 예리한 조각도로 도려냈으며,
관식의 각 부위에 127개의 영락(瓔珞)
을 금사로 꼬아 매달았다.



금제관식 (왕비, 국보 제155호)

왕 관식처럼 한 쌍이 발견되었는데 역시
금판을 도려내었다. 좌우대칭을 이룬
인동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영락(瓔珞)이
달려있지 않아 간결한 인상을 준다.



석수 (국보 제162호)

왕릉을 수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진묘수이다.



지석 (왕, 국보 제163호)

왕릉에 들어가는 연도 중앙에
왕비의 지석과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삼국시대 지석이 왕릉에서
발견된 최초의 금석문이다.

국립부여박물관

부여시내 남동쪽 금성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국립부여 박물관은 백제 유적지
에서 발굴된 각종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곳에는 선사실, 백제 유물 중심의 역사실, 백제시대 불교 미술품 중심의 불교미
술실, 박만식 교수 기념실, 야외전시실 등 11,0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온화하고 아름다운 '백제의 미소'로 상징되는 백제미술의 명작 백제관세음보살
입상(국보 제293호)과 완숙한 조각 기술을 보여주는 금동미륵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 1993년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높이 64cm, 몸통 지름 19cm의 청동주
조물로 백제의 정신과 예술적 역량이 응집된 최대의 걸작품 백제금동대향
로(국보 제287호)가 전시되어 있다.

부여국립박물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 16-1
TEL. (041) 833-8562~3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

도림공원 칠갑산은 충남의 알프스라고 일컬어지며 신라시대에 창건한 장곡사를 품에 안고 있다. 까치대를 비롯한 맑고 푸른 계곡과 작은 시냇가 절벽 아래를 휘감고 돌아오고, 숲이 좋아 피서지로 제격이다. 장곡사 입구에 100여개의 장승을 세워놓은 장승공원도 볼만하다. 공주에서 청양으로 넘어가는 칠갑산 한치고개 10여리 길은 굽이굽이 돌아 드라이브 코스나 산책길로 아주 좋다.

칠갑산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정산면 마치리 / 칠갑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TEL. (041) 940-2530~1

늦가을 억새밭으로 유명한

오서산

오서산

홍성군 광천읍 담신리 TEL. (041) 630-1423
홍성군 문화관광과 TEL. (041)630-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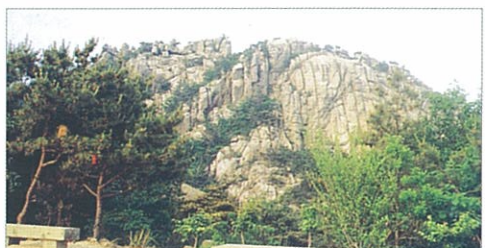
차령산맥이 서남으로 달리다가 마지막으로 꿈틀거리 솟구친 것이 오서산이다. 오서산은 산세와 늦가을 억새밭으로 유명하며, 남동쪽 기슭의 크고 작은 암반과 괴석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명대계곡은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용과 봉황을 닮은 홍성의 명산

용봉산

용봉산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TEL. (041) 630-1784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덕산면에 걸쳐 있는 용봉산은 기묘한 돌기둥들이 모여 절경을 빚어내고 있으며, 그 기암 절벽 사이에 용봉사가 걸려 있다. 용봉산은 용과 봉황을 닮았다고 하며, 홍성의 명산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다. 용봉사 입구에는 바위면에 양감있게 새긴 마애입불상(충남 유형문화재 제118호)과 부도가 있다. 용봉산 등산을 마치고 덕산온천에서 피로를 풀면 안성맞춤이다.

한 폭의 그림처럼 바닷가에 자리한

오천성

오천성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성 위에 오르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바다와 마주한다. 이 성은 서해안 방어기지로 조선 중종 5년(1510)과 선조 35년(1602)에 쌓았다. 조선시대 내내 중요한 군수기지였던 오천성(충남 기념물 제9호)은 현재 1km 남짓하며, 북문의 홍예와 진흥청(문화재 자료 136호)이 남아 바다와 함께 한 폭의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다. 오천성 바로 아래에 있는 오천항에서 자연산 굴과 각종 해산물 등 별미를 맛 볼 수 있다.

충남문화

꿈과 낭만이 넘치는

바닷가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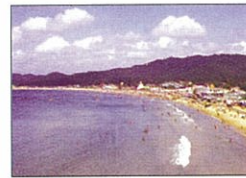
파도와 갈매기소리, 가슴이 확 트이는 몽글한 바다풍경은 서해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감동적인 매력입니다. 서해대교를 따라 펼쳐진 멋진 바다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철 관광객이 북적대는 **대천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은 서해안 최대이며, 동양 유일의 조개껍질 모래밭으로 유명하다. 여름철에는 해수욕뿐만 아니라 머드축제가 열려 전국 각지의 여성들이 몰려 온다. 또한 대천해수욕장은 윈드서핑, 수상스키, 유람선 등을 즐길 수 있고, 놀이동산(대천 해변랜드), 각종 유흥·숙박시설, 횃집·식당 등이 즐비하여 여름 피서철 뿐 아니라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만리포 사랑' 노래가 들려오는 은빛 해변 **만리포**



「꼭꼭선 기적소리 젊은 꿈을 신고서...」로 시작되는 '만리포 사랑' 노랫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한 만리포는 태안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다. 썰물 때 드넓은 백사장이 드러나는 해변의 길이는 3km가 넘는다.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이곳은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가족단위 해수욕장으로 사랑받는다. 인근에 천리포·백리포·십리포·일리포 해수욕장이 연달아 있다.

'모세의 기적'으로 명성높은 **무창포**

무창포에서는 대개 매월 음력 보름과 그믐 두 차례에 걸쳐 무창포와 석대도 사이 약 1.5km의 물갈림 현상이 일어난다. 바닷길이 약 1시간 30분~2시간 가량 열리는데 그동안



바지락, 낙지, 소라 등 해산물을 건져 올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곳은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있으면서도 아주 호젓하여 가족 단위 피서를 즐기기에 적당하며, 보령 8경의 하나인 '무창포 낙조'는 황홀함을 선사한다.

태안반도 최북단 해수욕장 **학암포**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최북단에 있는 학암포는 학이 노니는 듯한 기묘한 리아스식 해안이 펼쳐지는 곳이다. 포구를 중심으로 두 곳으로 나뉘는 학암포는, 동쪽에는 곱고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서남쪽에는 모래밭과 기암괴석이 바다와 어울어져 있다. 한 여름에는 동쪽 백사장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비시즌에는 서남쪽 해안에서 학암포의 운치와 진수를 즐길 수 있다.



맛조개잡이 매력의 **춘장대**



춘장대는 소나무숲이 울창해 운치가 돋보이는 해수욕장으로 썰물 때는 바닷물이 수백 미터나 빠진다. 물이 빠질 때 삽으로 모래를 파고, 작은 구멍에 맛조개를 넣으면 바다조개의 일종인 맛조개가 쏙 올라온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손으로 잡아 빼면 된다. 맛조개의 긴 속살은 부드럽고 맛이 일품이다.

겨울 해돋이의 명소 **마량포**



서천의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4km 정도 떨어진 마량포는 당진 왜목과 더불어 서해안 해돋이의 명소이다. 다만 이곳은 겨울철에만 바다에서 뜨는 해를 볼 수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산 위에서 해가 떠올라 아쉬움이 남는다. 해돋이는 마량 방파제에서 보아야 제격이다.

충남문화

서해 해돋이 연출 왜목마을

당진 왜목마을은 서해 해돋이이라는 기이한 모습을 연출한다. 바다의 물안개가 살짝 낀 날의 해돋이가 더욱 신비에 가깝다는 왜목마을 해돋이는 일년내내 아름답다. 그러나 10월 말에서 11월초 무렵, 2월 중순 무렵의 해돋이가 더욱 절묘하다. 특히, 바다 쪽의 노적봉과 용무치 해안 사이 남근 바다위로 솟구치는 해돋이는 서정적 아름다움이, 가장 깊숙한 언저리에 뭉클하게 다가온다.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열린 곳 안면도

‘꽃과 새문명’이라는 주제로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안면도는 해안으로 12개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일년내내 푸르름을 자랑하는 소나무는 ‘안면송’이라 불리울 정도로 이름이 나있다. 아름다운 해안과 파도, 늘 푸른 소나무, 수줍은 해당화, 안면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몰... 안면도는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낭만의 섬이다. 안면도는 우리 나라에서 6번째 큰 섬으로 다리를 통해 건너가지만, 원래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배를 지나치게 하기 위해 운하를 뚫어 섬이 되었다 한다.



대전해수욕장
무량포해수욕장
춘장대해수욕장

윤봉길 의사를 모신 사당

충의사



충의사 예산군 덕서면 사랑리 137
TEL. (041) 337-4108

덕산온천 가까이에 있는 윤봉길 의사 사적지(사적 제229호)에는 윤의사의 영정을 모신 충의사가 있고, 길 건너편에 윤의사의 생가, 네 살 때부터 중국 망명 전까지 살았던 옛집, 기념관, 동상 등이 서 있는 매현 유적지가 있다. 기념관 안에는 상해 홍구공원(현 노신공원)에서 의거를 할 때 지녔던 회중시계를 비롯한 소지품, 생전에 쓰던 유품과 서책, 글씨들이 전시되어 있다.



시대를 고뇌한 시인, 독립운동가

한용운의 생가터

시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등으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 선생(1879 ~ 1944)의 생가터(홍성군 결성면) 소재에 초가집을 복원해 놓았다. 일생을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로 채운 한용운 선생은 독립운동가, 불교개혁가, 사상가 그리고 시인으로 당대의 현실을 고뇌하면서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다.

한용운의 생가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TEL. (041) 642-6716



민족 정신과 역사의 발자취를 담은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을 유관순의 만세운동으로 유명한 목천면의 120만평 부지 위에 거대한 집과 전시관 등을 짓고 1987년 8월 15일에 개관하였다. 이곳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어 민족 정신과 역사의 발자취를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 현장이다.

천안독립기념관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 TEL. (041) 560-0114

옛 마을의 구성진 정취가 물씬한

외암리민속마을

아산 송악면 외암리 민속마을은 '전통건조물 보존지역 2호'로 지정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마을로, 옛 전통 가옥과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충청지방 고유의 양반집들과 초가집이 고향의 향수를 일깨우듯 들어서 있고, 강당골에는 용추담과 관선재(서원)가 있어 정취를 더한다.



외암리 민속마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9번지 관리사무소 TEL (041) 544-8290

책의 향기가 있는 곳,

『간다神田 고서점가』 순례



이정우 / 천안문화원사무국장

백년이 넘는 역사, 전문성과 종합성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도쿄의 고서점가 「간다쇼텐카(神田商店街-간다 고서점가)」는 이번 일본여행 첫머리에 서 있던 나를 감동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이는 동경의 현란함과 요코하마의 고즈넉함, 오타와라성의 아름다움과 세계문화유산 닛코 '동조궁'의 화려함, 일본 3대 절경의 하나라는 '송도', '즈이간지'의 절제있는 단아함의 멋스러움, 끝없이 펼쳐진 아오모리의 스기(森)나무 산지, 그리고 눈부신 하코다테의 야경과 삿보로의 목가적 풍경으로 이어진 일주일간의 일본문화탐방 모두를 돌이켜 볼 때에도 간다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자리할 것 같다.

낡은 책의 향기와 더불어 시 낭송과 음악이 함께 하는 진보쵸 거리 한복판에 있는 '간다'. 함께 동행한 온양문화원장은 몇 해 전 이곳에 들렀다가 우연히 우리말 역사서 한 권을 발견해 오백엔을 주고 샀는데, 온양향토사

연구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자료였다고 한다.

일단 표지라도 괜찮으면 책의 양로원이라고 하는 헌 책방, 즉 고서점으로 보내지는데, 후루혼야(古本屋)라고 하는 여기에서 일본문화의 힘이 나온다고 일본인들은 믿는다.

동경 한 복판 간다 고서점가는 오차노미즈 역부터 진보쵸역, 그리고 수이도바시 역에 걸쳐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곳은 소위 '종로통' '을지로통'이라는 말처럼 일직선의 특점거리가 아니라 이와나미(岩波)출판사 건물이 있는 진보쵸(神保町)를 중심으로 2km 안에 있는 고서점가를 통칭한다. 따라서 간다 서점가는 큰 길목 하나를 살피는 것보다 골목골목 그물처럼 이어져 있는 전문서점을 구석구석 순례하는 게, 마치 우리의 인사동골목을 거니는 듯해서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현재 간다에는 고서점이 136곳, 대형의 신간서점이 30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 외에도 출판사, 편집기획사가 밀집되어 있고, 인쇄소와 제본소도 골목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일본의 지성을 모두 모아놓은

듯 했다.

이곳 간다가 서점가로 변신한 것은 1868년 메이지 시대의 시작과 같다고 한다. 개화과정에서 학교가 생기고, 몰락한 武家の 저택에 새로운 정부 관리나 지식계급들이 이사 오면서 이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책방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특히 부근에 있던 관립·사립 학교들이 대학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이화여대와 비교되는 오차노미즈 대학부터 메이지 대학, 츄오 대학, 도쿄 대학 등으로 인해 그때부터 간다 거리는 '책의 계곡'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가 오래된 책 동네인 만큼 고서점들 대부분이 몇 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들은 가문이 자랑하는 고서는 판매하지 않고 서점 한 구석이나 2층에 전시만 해놓고 있었다.

마침 어느 고서점 앞에서 시 낭송회와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관중을 의식하지 않는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그 주위로 모래알 속의 진주를 찾듯 책 속에 빠져있는 젊은이가 있었고, 도수 높은 안경에 꾸부정한 허리를 가누고 있는 중노인네 몇몇, 조금 험렁한 백을 어깨에 맨 60대 노인, 그 옆으로 잘 다려지지 않은 무릎 나온 바지를 입은 3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간다 서점가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책을 찾는 이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만화를 전시한 특색 있는 카페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복잡하지도, 혼란스럽지도 않은 간다의 여러 모습들.

오래 묵은 거리다 보니 무작정 걸어나니면서 둘러보는 일조차 힘이 들었다. 그래서 입구 쪽에서 확보한 'Book Map'을 펴 들었다. 이 지도책에는 간다 고서점가의 책방들이 모두 소개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딱히 어느 서점을 들르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효율적인 순례의 길에서는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았다. 내가 지나쳐 온 길은 펜으로 표시하면서 새로운 서점가를 하나씩 밟는 일도 재미있을 듯 싶었다.

간다 고서점거리에서 '탐방단'과 함께 ▼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은 책방과 거리를 순회하지만, 일본인이나 이곳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책방을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단골손님에게는 책방 주인이 새로운 책에 관한 자료를 보내 주거나 전화를 해주기 때문이란단다. 매니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의 전화번호부처럼 두툼한 책방 브로슈어(大古書市)를 선물로 받기도 한단다.

두리번거리며 시간 반 가량을 걸었기 때문인지 다리가 제법 뻣뻣해져 오기 시작했다. 시장기나 달래겠다는 생각에서 작은 소바 전문 식당을 들렀다. 퇴근거리라 그런지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지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 간다의 거리 곳곳도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은 책 고르는 일 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식당을 찾기 위해 밀려들고 있는 사람들이란단다.

간다 서점가를 즐기는 일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라고 한다. 서점가를 기웃거리다 지칠 정도의 자리쯤이면 어김없이 식당이나 찻집이 있어 다리를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서점 순례란 먹고, 즐기고, 구하는 편리한 책방 나들이라는 것이다.

수이도바시(水道橋) 역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니 오래 묵은 레코드와 카세트테이프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끝자락에 이와나미 출판사가 오랜 연륜을 자랑하며 서 있었다. 마지막 코스로 진보초에서 방향을 틀어 대형서점 산세이도(三省堂) 쪽으로 향했다. 마침 그곳에서는 '중요도서 복각본 판매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그 옆 고서점들의 연합회에서는 '고서점 대시장'을 연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복각본 도서전을 둘러 본 나는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기할 정도로 원본과 똑같은 복각본들을 보면서 책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책은 부활한다고. 좋은 책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주인만 만나면 저 술한 고서들은 가장 사랑 받는 보물로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분명 간다의 고서들은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일본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



김인권 / 부여문화원사무국장

들어가는 글

충청남도내 문화원장 및 일부 사무국장이 참가한 선진문화 발전 모색을 위한 해외문화 탐방은 2003. 7. 24~7. 30까지 6박 7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탐방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인 닛코(日光)의 동조궁 등 20여곳의 문화유적지와 박물관 3곳을 답사하였다. 이 글은 몇가지 주제별로 정리하여 우리의 향토문화재 보존과 문화원 사업 등에 활용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적의 보존과 관리

문화재의 원형보존

일본은 문화재를 철저히 원형을 보존하고 있었다. 가마쿠라(鎌倉)는 12세기 말부터 150여년간 일본 최초의 무신 정권이 들어선 곳으로 삼면이 비교적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 바다를 안고 있는 천연의 요새 지역이다. 이곳은 막부시대에 사용했던 길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데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교통로는 그 좌우 쪽에 뚫어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길이 매우 좁고 구불구불 했지만 놀라웠다. 동경에서 가마쿠라까지는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정도 떨어진 거

리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일본은 국보급 문화재라도 관람객이 직접 들어가도록 하고 사진도 비교적 마음대로 찍을 수 있게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관람객의 관람 질서가 높아 가능한 일이겠지만 공개하면서 관리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았다.

화재 복원과 재활용

일본은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못지않게 복원과 활용에도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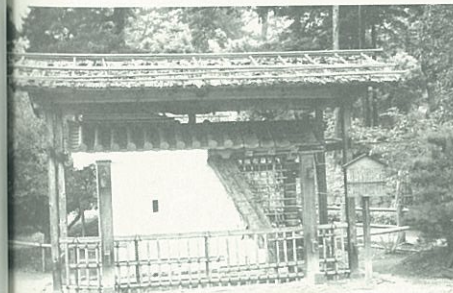
오다와라성은 1960년에 성의 상징인 천수각(天守閣)이, 1971년에 동문(銅門)이 복원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복원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철근 콘크리트조 외증으로 복원된 천수각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 면적 522평에 건물 높이만 27.20m(기단 포함 38.70)인데 지하 1층은 수장고(收藏庫), 지상 1~3층은 전시실, 중 4층은 특별전시실, 4층은 전망실(展望室)로 활용되고 있었다. 문화재를 철거한 고층에 의해서 복원하고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교육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알뜰기까지 하였다. 일본의 문화재 복원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반드시 활용을 전제로 한 복원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복원을 하면 바로 역사왜곡이라는 시비가 따라 붙고, 복원된 문화재조차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붙여있는 우리의 문화현실에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컸다.

또한 문화재의 복원뿐만 아니라 유적지 내에는 유적 보존에 지장이 없는 구역에 자료관, 기념관 등 현대적 시설을 지어 관람객에게 각종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다와라성(小田原城, 일본 사적)의 경우에는 역사견문관(歴史見聞館), 시향토문화관(市郷土文化館), 성기기념관(星崎記念館)등이 건립되어 있다. 역사견문관의 경우는 모형과 영상물로 성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해놓았다. 오다와라성은 성지공원(城址公園)이라 하여 성내부를 공원화하여 코끼리와 원숭이를 사육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놓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성지공원에서는 매화 마쓰리(2월 상순), 벚꽃 마쓰리(4월 상순), 오다와라 여름 마쓰리(7월 하순), 오다와라성신능

▼ 오다와라성 성벽모형



일본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

(9월 하순), 오다와라성 국화전시회(11월 3일~15일) 등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었다.

센다이성(仙臺城, 일명 靑葉城, 仙臺市 靑葉區 소재)에도 청엽성자료전시관이 있고 이 곳에서는 150석 규모의 영상실이 있어 성의 옛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에 의해 완벽하게 복원하여 상영하고 있다.

일본 최초의 서양식 성곽인 고료카쿠(五稜郭, 특별사적, 函管市 五稜郭町 소재) 역시 성내에 박물관을 건립해 놓은 것은 물론 공원과 해놓았다. 이곳에서는 오름과제(봄), 시민창작야외극(여름), 오름성의 꿈(겨울) 등의 행사를 계절에 따라 개최하고 있다. 고료카쿠 주변에는 북양자료관, 하코다테 미술관이 있고, 더불어 입구에는 높이 60m의 오름과 타워를 건립하여 성의 모습과 시가지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 타워에는 1층은 전시실, 2층은 식당 연회실, 3층은 전망대가 시설되어 있다.

하코다테 개항지에 있는 메이지칸 창고 아울렛은 1869년에 지어진 수십 채의 창고 건물의 외양을 그대로 두고 내부를 개조하여 전시관, 공연장, 가게 등을 시설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삿포로의 비어 가든(Beer garden, 札幌市 東區 北6條 소재)도 개척시대에 지어진 붉은 본관, 목조 별관, 붉은 지붕의 포플러관을 맥주 박물관, 식당, 맥주 홀로 사용하여 인기를 모으고 있다. 맥주 홀은 한꺼번에 1,6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로 낡은 건물이라도 당장 헐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문화재 원형을 철저히 보존하면서 이것을 박제화, 화석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교육 및 여가선용 자료로 주도면밀하게 활용하는 자세는 분명 나무랄 수 없다고 본다.

■ 문화재 관람의 관람객 편의 제공

일본은 문화재 지역에서 관람객을 위하여 철저히 배려하는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문화재 지역에는 관광협회와 관광안내소가 있어 무료 안내 및 유인물 등을 나누어 주고 있음은 물론이었다. 유인물도 1장 정도로 보통 2~3종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특히 에도 도쿄박물관과 오다와라성, 마쓰시마(松島), 북해도개척촌(北海道開拓村)에는 한글



▲ 메이지칸 창고 아울렛

로 된 리플렛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관람객들의 즐거움과 추억을 위해서 다양한 관광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오다와라성에는 중심 건물인 천수각 앞 광장에서 일본 전국시대의 갑옷과 기모노를 대출해 주고 있다. 천수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가라는 배려인데 이용 요금은 어른 200엔, 청소년은 100엔이었으며 성내에 탈의실까지 있다. 그리고 전시실 입구 등에는 장군복 등 옛 복장을 입힌 실물 크기의 인형을 만들어 놓아 기념사진을 찍도록 해 놓았다.

또한 오다와라성은 옛 성 쌓은 모습을 성 내부가 보이도록 약 5m 정도 복원하여 놓았고, 센다이성(仙臺城)에는 커다란 돌을 옛 방식 대로 쪼개는 모습을 재현하여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 특이한 입장료 징수

일본은 문화재 입장료 받는 방식이 우리와 달랐다. 오다와라성의 경우 성 입장료는 없었지만 천수각, 역사전문관, 시향 토문화관의 입장료는 각각 따로 받는 식이었다. 센다이성도 성내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자료전시관 입장료는 받고 있다. 고료카쿠(五稜郭)도 박물관과 타워 입장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일본 3경의 하나인 마쓰시마 역시 그곳의 상징적인 존재인 고다이도(五大堂, 일본 중요문화재)는 무료 입장이지만 주변에 있는 칸란테이(觀瀾亭, 현중요문화재)·마쓰시마 박물관(松島博物觀), 후쿠우라지마(福浦島, 현립자연식물공원), 즈이간지(瑞巖寺, 일본 보물) 등은 유료입장이다. 문화재 자체는 무료 개방이지만 전시관 등 주요 시설의 입장료를 따로 받는 방식인데 시설마다 특별전 등을 기획하여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처럼 문화재 지역 입구에서부터 입장료를 받는 방식보다 일본의 이 방식이 주민들의 문화재 접촉을 위하여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3. 박물관·기념관 시설 및 운영

일본의 박물관과 기념관은 주민들의 사회교육 및 휴식공간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해외문화

교류탐방에서는 에도 교토박물관〔江戸東京博物館〕, 요코하마 개항자료관〔横浜開港資料館〕, 북해도 개척기념관(北海道開拓記念館) 등 3곳을 집중적으로 관람하였다. 일본의 박물관과 기념관은 관리자 보다 관람객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또한 관람객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유물을 관람하도록 꾸며놓은 것이 무엇보다 눈에 띄었다.

■ 에도교토박물관

에도교토박물관(東京都 黒田区 横綱 소재)은 교토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되돌아보고, 미래의 도시와 생활을 생각하고자 하는 뜻으로 1993년 3월에 개관된 박물관이다. 전철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할 정도로 관람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건립되어 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에도시대의 다리를 복원하여 관람객이 다리를 밟고 건널 수 있도록 하였고,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피곤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전시 유물도 진품과 함께 옛 시가지 모습 등은 축소모형으로 만들어 놓아 흥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람 동선에 바로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물을 배치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전시실 안에서 자유롭게 유물 사진과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관람객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곳곳에 놓여 있으며 별도로 체험 학습실을 갖추고 있는 등 그야말로 부러운 시설로 가득하였다.

■ 요코하마 개항자료관

요코하마 개항자료관(横浜市 中区 日本大通3 소재)은 막부 시대 말기, 명치, 대정 때의 요코하마와 일본의 역사관계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있다. 옛 영국총영사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으며, 상설 전시실로 제1, 제2 전시실과 기획전시 등 3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수장 자료는 행정자료, 국내행정자료, 해외자료, 시내외 고문서, 신문, 잡지, 사진, 문헌자료 등 무려 18만점에 이르고 있다. 이 요코하마 개항자료관은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있으며, 자료 열람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유락도시 요코하마, 명치시대 요코하마의 신문 등 금년에만 5개의 기획전시와, 요코하마의 역사, 해외에서 본 요코하마, 기획



▲ 에도 박물관 가마체험 (전시실 안에서 직접 체험)



▲ 아오모리 네부라 축제 자료관



▲ 네부라 축제 자료관 내부

전 기념강좌 등의 강좌·강연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 것에서 수 많은 수장 자료 만큼이나 운영 실적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 등에 설립될 기록물 보존소 운영의 모범 사례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 북해도 개척기념관

북해도 개척기념관은 삿포로시 교외의 노포로(野幌) 삼림공원 내에 있는 북해도개척촌에 위치해 있다. 북해도개척촌은 1983년도에 약 54ha의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야외 박물관으로 명치, 대정시대의 건조물 약 60 동을 시가지군, 어촌군, 산촌군으로 나누어서 전시되어 일본의 옛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북해도 개척기념관은 이곳의 중심시설로 실물 유물, 모형, 복제품을 다양하게 전시하였다. 전시실에는 동선 중간에 비디오를 설치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러 종류의 휴게 의자 배치와 화장실을 전시실 내에 시설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휴게소를 갖추고 여기에서 각종 자료와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점으로 여겨졌다. 북해도 개척기념관은 개관 20년 동안 57회의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 각종 강좌, 체험학습행사, 이동박물관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다. 역시 전시물 자체보다는 각종 사회교육 우선시 하는 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 마치는 글

일본의 문화재는 정책은 원형보존과 그것의 적극적인 활용에 목적이 있고 박물관, 전시관은 단순히 유물전시가 아니라 체험과 교육, 여가선용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번 해외문화 탐방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문화 정책은 우리 문화원의 향토문화재 보존과 향토사료실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번 해외문화 탐방교육은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없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귀중한 기회를 준 충청남도과 충남도내 시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친다.

제 백제

백제문화제

The 49th Baekje Cultural Festival

The 49th Baekje Cultural Festival
The 49th Baekje Cultural Festival



제49회

백제문화제

백제문화제 반세기

세계로 미래로

2003. 10. 9(목) ~ 10. 12(일)

- 주 최 : 공주시 ·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
- 주 관 : 공주문화원
- 후 원 : 충청남도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관광공사



76

백제문화제



백제중흥 사왕(文周王 · 三斤王 · 東城王 · 武寧王) 추모제

■ 일시 : 2003년 10월 9일(목) 09:30

■ 장소 : 무령왕릉 제단

헌 관

초헌관
공 주 시 장 오영희
아헌관
공주시의회장 정한석
종헌관
공주향교전교 황흥주



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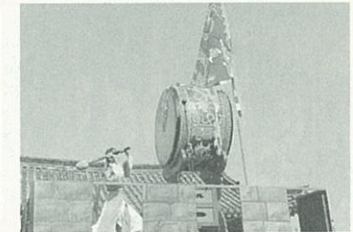
거제선언
전 폐 례
초 헌 례
독 축
아 헌 례
종 헌 례
음 복 례
망 료 례
중제선언

서 / 막 / 식 / 전

- 범종울림
- 식전입장행사 행차대열
공주사대부고 혼불 봉안대
- 백제혼불점화집전 백제왕 · 왕비(공주영상정보대학)
· 백제는 영원하리라 공주여고 합창단 · 시민일동
- 개식선언 공주시의회의장
· 북치기
- 국민의례(국기배례)
- 취지문 낭문 공주백제문화제집행위원장(공주문화원장)
- 식사 공주백제문화제선양위원장(공주시장)
- 격려사 충남도지사
- 축사 국회의원
- 축가 공주여고 합창단 · 시민일동
· 공주에 살자
- 범종울림
- 폐식선언

■ 일시 : 2003년 10월 10일(금) 10:00

■ 장소 : 공주종합운동장



무령왕 즉위식

■ 일시
10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공산성 상설무대



무령왕 즉위식



대관식



천제의식

사극아 물렸거라!
백제전통의 역사드라마가 펼쳐진다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은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국내·외에 선양하기 위하여 철저한 역사적 고증에 의해 제작된 의상과 소품을 이용하여 왕성을 호위하던 수문병의 근무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은 수문병을 대폭 증원하여 더욱 웅장한 교대의식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웅진성 수문병근무교대식 일정

▶ 일시 : 2003년 10월 9일(목)~12(일)
오전 10:00~오후 8:00까지 매시간

고증에 의해 제작된 백제의상을 대여합니다.

관광객에게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의상 및 소품을 대여해 드립니다.

- 백제의상체험, 투호놀이 체험, 어가체험, 수문병캐릭터와 의 사진촬영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문화체험

참여 신청자에 한해 실시하며 현장에서 직접 훈련하여 수문병근무교대식을 거행합니다.

백제문양 탁본 체험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백제시대의 전통문양을 이용하여 탁본합니다.



동성왕 승전 개선장군 환영연회 재현



▲ 개선장군의 승전 보고



▲ 승전개선장군 어검하사



▲ 동성왕 입장행렬



동성왕 승전 개선장군환영 연회재현 축하연 ▶

백제복식 패션쇼



백제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익살스런 모습과 표정으로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한다.

▶ 일시 : 10월 12일(일) 오후 3:00
▶ 장소 : 공산성 상설무대





알짜배기 역사탐방! 여보~! 우리 애들 데리고 올 걸



▲ 백제장군 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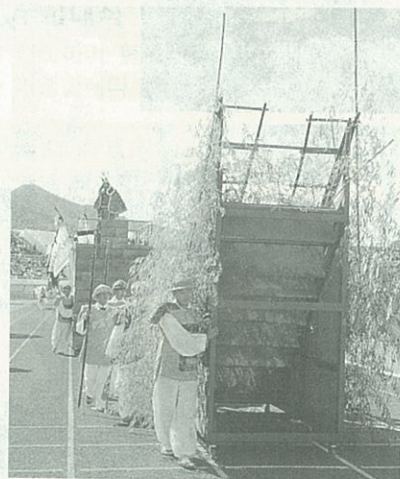


▲ 기마병 행렬

서막식 식후행사 / 부채춤 ▼



▶ 백제대국 민병대



역사대행렬



화려하고도 장엄한 역사대행렬
백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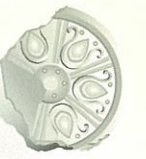


- 취 타 대(육군본부)
- 기 마 병
- 백제훈불 봉안대
- 문주왕 웅진성 천도 행차
- 동성왕 북벌 기상 행차
- 무령왕 어검천룡 행차
- 성왕 사비성 천도 행차
- 신흥면 선학리 지게놀이
- 왕도 터뜨리기 큰 굿놀이
- 강강수월래
- 부 채 춤
- 화 관 무
- 선 녀 무
- 소 고 춤
- 비암사 석불비상 행차
- 일본국 야마구찌시
- 오우찌 문화역사 행렬



제49회 백제문화제 행사일정

일시		행사명		장소	비고
일	시간				
10월 8일(수)	18:00	백제혼불 채화익식		공산성 쌍수정	
	20:00	백제소재 영화상영 "공산성의혈투"		공산성 주차장	
전야제 10월 9일(목) 제1일	08:30	백제혼불 봉송익식		국민도서-연문광장	
	09:40	백제중흥사왕 추모제		무령왕릉제단	
	10:30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연문광장·금서루	
	10:40	백제혼불 점화익식	점화식	연문광장	
	10:50		화관무	"	
	11:00		선녀무	"	
	11:10		농악놀이	"	
	11:00	백제문화제 기념 학술세미나		공주대학교 (공과대학강당)	
	13:00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제 제3호)		공산성 상설무대	
	14:00	이리농악(중요무형문화제 제11-3호)		"	
	15:00	송전무(중요무형문화제 제21호)		"	
본제 10월 10일(금) 제2일	16:00	공주의 민요한마당		"	
	17:00	왕도 터 닦기 축하공연		"	
	18:30	공산성 금강교조명 점등식	식전행사	"	
			점등식	"	
			햇불 성 밝기	"	
			불꽃놀이 및 불배놀이	"	
	19:00	왕도 터 닦기 큰 굿놀이		"	
	08:30	서막식전 백제혼불 봉송익식		중동사거리-연문광장	
	09:30	서막식전 식전행사 장승제 시연		종합운동장	
	10:00	서막식전 입장행차	취타대-육군본부·공주고	"	
			기마병	"	
			백제혼불 봉안대	"	
			문주왕 웅진성 천도행차	"	
			동성왕 북벌 기상 행차	"	
			무령왕 어검천룡 의식 행차	"	
			성왕 사비성 천도 행차	"	
			선학리 지게 놀이	"	
			왕도 터 닦기 큰 굿놀이	"	
			강강수월래	"	
			부채춤	"	
			화관무	"	
			선녀무	"	
			소고춤	"	
본제 10월 10일(금) 제2일			비암사의 석불비상 시납행차	"	
			오우피문화역사행렬 (자매도시:일본국 야마구찌시)	"	
	11:20	서막식	식후	"	
	11:30		부채춤	"	
	11:40		소고춤	"	
		역사대행렬	강강수월래	"	
	15:00		취타대(육군본부)	공주고-연문광장	
			기마병	"	
			백제혼불 봉안대	"	
			문주왕 웅진성 천도 행차	"	
			동성왕 북벌 기상 행차	"	
			무령왕 어검천룡 행차	"	
			성왕 사비성 천도 행차	"	
			선학리 지게 놀이	"	
			왕도 터 닦기 큰 굿놀이	"	
			강강수월래	공산성 쌍수정	



일시		행사명		장소	비고
일	시간				
본제 10월 10일(금) 제2일	15:00	역사대행렬	부채춤	공산성 쌍수정	
			화관무	"	
			선녀무	"	
			소고춤	"	
			비암사의 석불비상시납	"	
			오우피문화역사행렬 (자매도시:일본국 야마구찌시)	"	
	14:00	백제기악 학술세미나		공주문화원 강당	
	17:00	전통민속극(자매도시:서울송파구)		공산성 상설무대	
	18:30	요사고이춤(자매도시:일본국 야마구찌시)		"	
	19:00	인기가수와 함께 교향악의 밤		"	
본제 10월 11일(토) 제3일	21:00	웅진 문화제		"	
	09:00	충청남도 풍장경연대회		종합운동장	
	13:00	연정국악원 국악한마당		공산성 상설무대	
	14:00	무령왕 즉위식		"	
	15:00	남도들노래(중요무형문화제 제51호)		"	
	16:00	은율탈춤(중요무형문화제 제61호)		"	
	17:00	유학자의 우리춤 한마당 공연		"	
	18:30	아시아1인극제 추천 외국작품-중국 "악기 대연주"공연		"	
	19:00	백제를 소재로 한 가곡의 밤		문예회관	
	19:00	불전축제의 밤(영산대제, 관동선픽우기)		금강둔치공원	
본제 10월 12일(일) 제4일	19:30	중국 진달래 예술단 공연		공산성 상설무대	
	21:30	아시아1인극제추천 외국작품-몽골 "1인광대"공연		"	
	11:00	에쿠아도르 "안데스 민속음악"공연		공산성 상설무대	
	11:30	필리핀 "패즈 & 팝"공연		"	
	12:00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중요무형문화제 제90호)		"	
	13:00	서해안 배연신국 및 대동국(중요무형문화제 제82-나호)		"	
	14:00	러시아 "무직댄스"공연		"	
	15:00	동성왕 연회재현(백제복식 패션쇼)		"	
	17:00	콜롬비아 "라틴 쇼댄스" 공연		"	
	18:00	일본교류공연(클래식기타 그룹공연)		"	
	19:00	폐막식	수문병 철병식	"	
			백제혼불진혼의식	"	
			뒤돌이마당	"	

계속되는 행사(10.2~10.12)

행사명	장소	비고
백제문화제	공주예술제	문예회관 외
반세기	문화제 의상소품 전시회	10/2~10/8
기념행사	백제문화제 사진전	공산성 성안마을
	전국 수석전	10/9~10/12
체험코너	백제체험마당	백제체육관
	전통문화체험(항음주례, 인절미, 다도, 백제토기)	공산성 상설무대
	전통문화의 흥미체험	"
우리고장 농산물 및 특산물 시장		"
어린이 백제나라 배움마당 프로그램	공산성 쌍수정	
야외시화전	상설무대 진입로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금강둔치공원	10/10~10/12
전국 궁도대회	관동정	
전국 시조경창대회	공주문화원 강당	10/11~10/12

2003 충남의 향토문화축제

2003 충남의 향토축제

2~3월

- **3.1절 기념 봉화제**
2.28 / 병천아우내장터
TEL. 041-564-1781
육군의장대시범공연, 마당놀이, 만세크게 부르기 대회, 횃불행진, 봉화제 등
- **은산별신제**
3. 5~9 / 부여은산은산리
TEL. 041-834-1929
조리술담그기, 성당, 본제, 독산제, 장승제 등 마을안녕기원
- **동백꽃 주꾸미축제**
3. 30~4. 12 / 서천서면마량리
TEL. 041-950-4018
동백꽃, 일출감상, 활터터운영, 관광객 노래자랑 등

4월

- **논산딸기축제**
4. 12~13 / 논산공설운동장
TEL. 041-730-1551
논산딸기시생대회, 딸기품평회, 지역특산물 전시 등
- **계룡산산신제**
4. 17~20 / 신원사일원
TEL. 041-855-4933
유물부기신천제, 승무, 박첨지놀이, 최영장군추모, 일본비추카라구라와 구루마니교공연 등
- **도원문화제**
4. 14 ~20 / 연기군일원
TEL. 041-861-2224
거리축제, 군민걷기대회, 복사꽃잔치, 각종예술행사 등
- **칠갑산 장승축제**
4. 20 / 칠갑산장승공원
TEL. 041-934-4774
가족장승각기, 장승대제, 전국장승만들기대회, 장승조각전, 장승그리기대회 등
- **은양문화제**
4. 26 ~28/아산신정호국민관광지
TEL. 041-540-2544
다례행제, 전아제, 무과전시제

연, 전술비연시연, 이순신퍼즐 맞추기, 벽화그리기, 영웅씨름 대회, 학술회의 등

□ 매현문화제

4. 27 ~29 / 예산충의사
TEL. 041-330-2224
전국학생사물놀이, 보부상놀이, 내포지방노래자랑, 읍면대항민속경기 등

5월

□ 모시문화제

5. 1 ~5. 6 / 서천한산모시관
TEL. 041-950-4018
모시패션쇼, 모시디자인공모전, 세계모시공예전, 모시체험, 삼국시대모시옷전시 등

□ 안면도현대예술축제

5월 중순
안면도 고남바람아래해수욕장
TEL. 041-673-4604
무세중의살풀이, 행위예술, 한영애춤, 바디페인팅, 째즈댄스, 대북연주 등

6월

□ 백마강수박축제

6. 1 / 부여청소년수련원
TEL. 041-836-2331
수박선발대회, 수박먹기대회, 수박작품전 등

□ 해미읍성역사체험

6월초 / 서산해미읍성 내
TEL. 041-667-0417
조선시대장터재현, 관아·옥시 체험, 조선시대생활체험 등

7월

□ 보령머드축제

7. 19 ~25 / 대천해수욕장
TEL. 041-930-3226
대형머드탕, 머드슬라이딩, 머드인간마네킹, 머드사진촬영대회, 셀프머드마사지 등

□ 금강민속축제

7. 26~27 / 금산부리평촌리
TEL. 041-754-2724
물떼기농용, 농바우끄시기, 금산농악, 물고기사진전, 금강물고기탐사여행 등

8월

□ 만해제

8. 13~14 / 푸른섬터
TEL. 041-632-3613
만해문학의 밤, 학생백일장, 마당극 공연, 추모제, 주민한마음 걷기대회 등

□ 청양고추·구기자축제

8. 28~29 / 청양지천둔치
TEL. 041-940-2224
읍면농악시연, 청양자랑특산물 퀴즈와 선발, 고추·구기자음식 전시, 고추·구기자왕선발 등

□ 금산인삼축제

8. 28~9. 7 / 금산군일원
TEL. 041-750-2225
국제인삼교역전, 인삼·약초요리 55선전시, 인삼약초만들어먹기, 인삼캐기 여행 등

9월

□ 청양길잡문화제

9. 28~10. 1 / 청양지천둔치
TEL. 041-940-2224
읍면대항민속경기, 농악경기, 향토작가 전시회, 약선요리전시 등

10월

□ 백제문화제(대제)

10. 9~12
공주종합운동장, 공산성성안마을
TEL. 041-852-9005
시왕추모제, 역사대행렬, 동성왕의 신라와 결혼동맹, 1528명의 농악놀이, 무형문화재제연 등

□ 백제문화제(소제)

10. 3~6 / 부여구드래공원
TEL. 041-830-2544
백제혼불봉송, 사비정도축제,

백제대왕제, 삼신제, 삼충제, 궁녀제, 오천결사대 등

□ 추사문화제

10. 12~13 / 예산추사고택
TEL. 041-335-2441
추모제, 전국서예사생대회 등

□ 강경갯길축제

10. 17~21 / 논산강경유원지
TEL. 041-730-1224
강경포구용왕제제현, 갯길담그기대회, 갯길주먹밥만들기, 논산문학, 가을음악회 등

□ 천안삼거리문화제

10월초 / 천안삼거리공원
TEL. 041-550-2031
민속놀이, 마당놀이농소전, 흥타령페스티벌 등

□ 천안농산물축제

10월초 / 천안삼거리공원
TEL. 041-550-2380
거봉포도·배품평회·시식회 등

□ 상록문화제

10월중 / 당진군 일원
TEL. 041-350-3133
심훈선생추모제, 심훈문학상, 청소년축제, 민속경향 등

□ 광천토굴새우젓 축제

10월 중 / 송서광천일원
TEL. 041-630-1225
음식경연대회, 새우젓숙성체험, 전통음식전시판매전 등

□ 남당리대하축제

10월 중 / 홍성서부남당리
TEL. 041-630-1225
풍어제, 어선퍼레이드, 대하음식경연대회, 대하끼기, 장기자랑 등

□ 백사장대하축제

10월중 / 태안안면도백사장
TEL. 041-670-2544
대하먹기대회, 대하끼기, 대하요정선발, 열린음악회, 커피장기자랑 등

□ 고불맹사성축제

10월중 / 맹사성고택
TEL. 041-540-2544
청백리상, 전국남여시조경향, 어린이맹사성선발, 국악경연대회 등

2003년 예술행사(20건)

4월

■ **제10회충남연극제**
4월중 / 연기문화회관
041-858-3289 도내연극단체경연

5월

■ **제15회도지사배민속대제전**
5월중 / 042-530-4312
15개시군대표출다리, 씨름 등 4종목
■ **제32회충남미술, 사진, 서예 문인회 대전**
5. 24 / 천안시민회관
041-555-4300 한국화 등 7개분야 공모

6월

■ **제21회전국연극제**
6. 11~30 / 공주문예회관
041-858-3289
15개시도대표단체참여경연

7~8월

■ **금강에서국제자연예술제**
7. 25~8. 30 / 공주산성고수부지
041-858-3033 15개국 50명참가
■ **고마나루예술제**
7~8월 / 공주고마나루공원
041-858-3289
무용, 연극,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행사
■ **제7회 충남무용제**
7월중 / 공주문예회관
041-855-6373
전국대회참여무용단 선발
■ **제4회 공주전국판소리명창명고대회**
8월중/공주문예회관
041-856-7770
판소리·고수대회(명창부, 일반부, 학생부, 명고부 등)

9월

■ **제3회 예산국제풍물제**
9. 6~8/예산덕산온천
041-335-9825 세계풍물대회

■ **제7회 충청남도청소년연극제**
9월중/공주문예회관
041-858-3289
도내청소년단체참여경연대회

10월

■ **제8회 아시아1인극제**
10. 10~12 / 공주문예회관
041-855-4933
아시아지역1인극 공연
■ **제13회 설화예술제**
10월중 / 아산시일원
041-545-8737 각종공연전시
■ **제29회 충남합창경연대회**
10월중 / 천안문화회관
041-557-8210
15개시도 아마추어합창단참여
■ **충청남도사진협회전**
10월중 / 서산문화회관
041-936-5859
도내사진작가회원전시
■ **제41회 충남학생음악경연대회**
10월중 / 충남학생회관
041-557-8210 도내학생참여경연
■ **제41회 주사추모전국서예백일장**
10. 12~13 / 예산추사고택
041-330-2204
전국서예공모백일장(사생대회)

11월 ~ 12월

■ **제5회 금강청소년영상예술제**
11.26/공주영상정보대학
041-850-9000
애니메이션, 카툰, 만화, 댄스 등 경연
■ **제13회 대전일보국제사진대전**
12월 중 / 대전시민회관
041-251-3311 국제사진공모전
■ **2003년문학예술인대회**
12월 6일 / 논산문화회관
041-555-4300
충남문학예술인 참여

지역특산물과 관광명소

시군별	특 산 물	관 광 명 소
천안시	성환배, 입장거봉포도, 광덕호두, 성환개구리참외, 천안호도과장	독립기념관, 유관순생가지, 상록리조트, 광덕산
공주시	우성오이, 정안밤, 계룡백일주, 통천포배, 표고버섯	백제무령왕릉, 공산성, 민속극박물관, 웅진수문병근 무교대식(4.1~10.30)
보령시	보령수산식품절감, 버루(웅천), 청리양송이, 까나리액젓	석탄박물관, 냉풍욕장, 성주산자연휴양림,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아산시	도고쪽파, 선장김치, 아산청결미	온양온천, 현충사,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리민속마을
서산시	서산마늘, 서산수산어리굴젓, 간월도어리굴젓, 서산생강	서산해미읍성, 마애삼존불상, 축협한우개량사업소(해미)
논산시	맛가마된장, 간장, 반이주조왕주, 양촌감식초, 논산딸기, 강경새우젓	탐정호수, 견훤묘, 돈암사원, 계백장군묘, 관촉사(은진미륵)
계룡출장소	계룡산 물엿	
금산군	금산인삼, 추부깻잎, 금산땅두릅, 금산약초	서대산레저타운(추부), 대둔산, 남이·진산휴양림, 칠백의총(금성)
연기군	연기복숭아, 조치원배, 약선으뜸김치, 평만두	운주산성, 고북저수지, 향토박물관
부여군	세도방울토마토, 부여밤, 부여표고버섯, 백마강수박	국립부여박물관, 부소산성, 구드레 조각공원
서천군	한산소곡주, 한산세모시, 서천자하젓, 서천단감, 판교표고버섯	한산모시관, 춘장대해수욕장, 금강하구둑, 신성리갈대밭, 미량포구
청양군	청양구기자농축액, 청양구기자, 청양구기자한과, 한울김치	칠갑산자연휴양림, 칠갑산장승공원, 장곡사
홍성군	서해수산, 홍성사과, 영지버섯, 남당리 대하, 광천토굴새우젓	홍주성, 용봉산, 마애석불, 남당항구궁리방조제
예산군	예산능금사과, 삽교쌀	수덕산, 추사고택, 덕산도립공원, 덕산온천
태안군	서해수산물김, 옥쪽마늘, 안면도건고추, 정산포돌김, 까나리액젓, 대하	안면도자연휴양림, 꽃지·방포·삼봉 해수욕장
당진군	합덕청결미, 면천파리고추, 신평사과, 면천두견주	삽교호관광지, 왜목마을, 서해대교, 함상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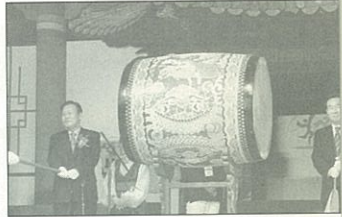
충남의 향토문화 축제

떠나기 전에 클릭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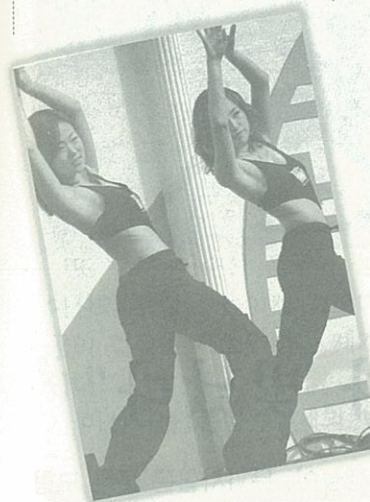
천안시 www.cheonan.chungnam.kr
 공주시 www.gongju.chungnam.kr
 보령시 www.boryeong.chungnam.kr
 아산시 www.asan.chungnam.kr
 서산시 www.seosan.chungnam.kr
 논산시 www.nonsan.chungnam.kr
 금산군 www.geumsan.chungnam.kr
 연기군 gun.yeongi.chungnam.kr
 부여군 www.buyeo.chungnam.kr

서천군 www.seocheon.chungnam.kr
 청양군 www.cheongyang.chungnam.kr
 예산군 www.yesan.chungnam.kr
 태안군 www.tae-an-gun.chungnam.kr
 당진군 www.dangjin.go.kr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cult21.or.kr>
 안면도 꽃축제 홈페이지 <http://www.florito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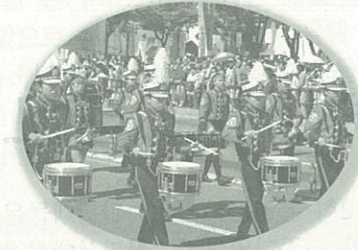
천안흥타령축제 2003



'천안흥타령 축제 2003'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천안삼거리공원과 아라리오 광장에서 43개 춤공연팀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흥'을 주제로 신명과 감동, 화합의 모습을 표출한 흥겨운 축제 마당을 만들어 갔다.



▲ 전통 춤 뿐만 아니라 힙합, 브레이크댄스, 라틴댄스까지 다양한 춤들이 선보였다.



▲ 거리 퍼레이드에 참가한 열광적이고 고적대



▲ 흥타령 춤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한 충남예고팀. '길'이란 주제로 삼거리의 만남과 떠남을 춤으로 표현했다.





무과시험재연 ▶

"온양문화제 어느 해보다 빛났다"

이충무공 탄신을 기념하는 제42회 온양문화제가 예년에 비해 다양하고 알찬 가족단위의 역대 최고 체험행사로 시민 및 관광객의 큰 호응속에 성료됐다.

특히 이번 문화제는 이충무공에 대한 테마를 주제로 과거 고정관념을 탈피, 전혀 색다르고 특색있게 열려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충무공 탄신 458주년을 기념하는 온양문화제는 지역 최대의 축제인 지난 26일부터 3

관객들은 전쟁놀이, 무과시험은 물론 모형 거북선에서 노를 젓고 장군복을 입어 보는 등 직접 체험을 통해 조선시대 당시의 착각에 빠지는 등 보기드문 알찬 행사로 치뤄졌다.

또한 행사기간중 궁도, 동호인 테니스, 산악 자전거, 핀수영, 검도 등 전국규모의 대회가 펼쳐져 전국 각지에서 대거 몰려든 관계자 및 관광객들에게 온양문화제에 대한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함께 과거 먹자판 행사로 전락케한 풍

이충무공 테마체험 등 관광객 '갈채'... 국가지정 축제 기대

일간 주무대인 신정호 국민관광지에서 70여 종목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이번행사는 국가지정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과거 의식적인 종목을 축소하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충무공의 소년, 청년, 명장, 성웅 등 4가지의 테마성 체험행사로 시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물아시장을 행사장과는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 질서정연한 행사가 이루어져 그 어느해보다 뜻깊은 축제로 치루어 졌다.

하지만 각종 행사가 주간에 열려 야간에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은 불거리 없이 풍물시장에서 배를 채우는데 그치는 아쉬움을 남겨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온양문화원 '국가축제'

문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최고 1억 지원 등 경제 큰 몫 할 듯

온양문화제가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온양문화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5000만~1억원에 이르는 행사비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관광발전 활력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성웅 이순신 장군이 성장한 본거지로서 아산의 위상을 높이게 됐으며 앞으로 이 충무공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온양문화제의 변신을 위해 지난

2002년 10월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올해 쾌적한 여건을 갖춘 신정호 관광지에서 소년, 청년, 명장 성웅 이순신의 일대기를 스토리화한 테마가 있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대국민 교육장 화에 성공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충효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시가 올해 국가 예비축제 지정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한 온양문화제에 13만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당진 상록문화제 열려

청소년축제 한마당 행사 다채

제27회 상록문화제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당진군민회관 앞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상록문화제는 상록수 정신의 발상지로서 애국심과 애郷심을 북돋우고 당진의 문화를 빛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상록문화제집행위원회(위원장 김천환)에서 주관 실시하였다.

상록문화제는 저항시인이자 농촌계몽문학의 선구자인 소설 '상록수'의 작가 심훈 선생의 정신을 계승코자 지난 1977년 10월 28일 제1회 행사가 개최됐다.

따라서 매년 송악면 부곡리 필경사를 기점으로 상록수 정신의 금지를 살려 추진하고 있는 행사다.

사전행사로 23일부터 25일까지 문예행사

에 이어 26일 심훈선생 추모행사 개막식행사, 27일에는 군민회관 앞 무대에서 각종 축제가 펼쳐졌다.

특히 청소년 축제 한마당, 김혜정 무용단 초청 공연과 푸른 음악회를 28일 12시부터 군민회관앞에서 민요경창대회, 투피아노 콘서트, 헤어쇼, 외국인 장기자랑, 군민노래자랑등이 열렸다.

이와 병행 26일 어울마당행사로 보디페인팅, 가훈써주기, 도자기 만들기 등과 쌀, 원예, 화훼, 술, 한과 등 홍보관이 운영되었다.

전시행사로 25일부터 28일까지 서예전시회, 심훈 육필 원고 전시회, 사진전시회, 아마추어 무선등 다채로운 각종행사도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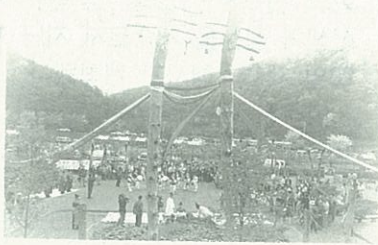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대성황'



국제 전통 조각 연맹회원들이 시연을 보이는 가운데 동심어린 어린이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한국 최고의 장승문화 보존지역으로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5회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가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 청양군 칠갑산 자락 장승공원 일원에서 관광객,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칠갑산 장승문화축제선양위원회(회장:안종일, 청양문화원장)와 청양군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충청남도, 한국문화예술회관, 청양군의회, 청양경찰서, 청양교육청, 청양청년회의소가 후원한 이번 장승 축제는 개막식에 앞서 1백 여명이 참가한 제5회 회장기 칠갑산 산악마라톤대회의 출발에 이어 개막식, 국태민안과 청양발전을 기원하는 칠갑산 장승 대제와 국제전통조각연맹회원들의 장승짜기 시연, 창작 장승 전



김시환 청양군수



안종일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 선양위원장

시, 장승제 시연, 장승 명문식, 가족 장승짜기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 안종일 축제선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양은 푸른 빛 고을의 아름다운 고장,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자긍심 높은 사람들이 소망과 꿈을 일구며 살아가는 자랑스런 땅이라'고 소개하고 '오늘 다섯번째 맞는 칠갑산 장승문화축제에서 이러한 매력과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껏 담아 보람찬 내일을 준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인사했다.

김시환군수는 축사를 통해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장승을 깎아 세우면서 고통과 액운을 물리치고 마을의 발전과 풍요를 기원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우리의 생활속 깊이 뿌리를 내린 소중한 민족문화 유산을 잘 계승·발전시키고 폭 파인 불, 휘어진 허리, 웅기박힌 이마를 비롯하여 잘 생긴 모습은 아니지만 소박하고, 친근한 장승이, 청양이라는 자랑스런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슴에 길이 기억되길 바란다'며 축사했다.

유병준 군의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청양군은 장승을 청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이자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장승축제를 개최함은 물론 칠갑산 옛길을 장승공원으로 조성하고 마을 장승제 보존 등 청양장승 명문화에 주력해 오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 문화축제가 길이 발전·전승될 수 있도록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홍보를,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금번 행사는 부대행사로 칠갑산 산악 마라톤대회와 학생 그림그리기, 산나물 채취, 가족사진 찍어주기, 국악공연등의 행사가 펼쳐져 행사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현재까지 칠갑산 주변에서 장승제를 지내는 마을은 대치면 대치리와 이화리, 정산면의 용두리 천장리, 박대리, 해남리, 송학리, 운곡면의 위라리, 신대리 등 10여개 마을에서 수백년동안 장승제를 올리고 있다.

웃음 희망 부르는 '지구촌 건강축제'

23회 '금산인삼축제' 9월 7일까지 인삼종합전시관 등서



건강·웃음·희망을 부르는 가장 한국적인 축제, 지구촌 최고의 축제인 23회 금산인삼축제가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금산인삼종합전시관과 인삼약초시장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전국최우수축제 4연패의 금산인삼축제는 명실공히 세계인이 함께하는 지구촌 건강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세계인삼엑스포 개최가 확정되면서 금산인삼축제는 세계화의 길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신비의 건강여행,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웃음·희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인삼축제에서는 마음껏 웃으며 놀고, 건강을 선물받는 다양한 특화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전국 지방축제 체험코너 신설의 기폭제가 된 금산인삼축제는 올해에도 인삼캐기 등 주

요인삼약초 체험 이벤트가 수요자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인삼캐기여행에는 금산만의 독특한 삼장제 체험과 함께 직접 캔 인삼으로 간단하게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며, 최고의 품질인 금산인삼을 현장에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았다.

또한 추억이 될 인삼병만들어가기, 인삼약초 요리 직접 만들어 먹기, 관광객 약초썰기 등의 체험코너가 준비돼 있고 금산인삼동의보감에서는 침, 뜸시술, 간단한 한약처방 등을 무료로 진료 해 주었다.

전국 최대·최고의 인삼약초시장과 동서양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인삼약초요리, 세계의 명주 금산인삼주, 인삼약초차, 건강을 다지는 다양한 인삼약초제품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인삼축제 기간에 체험형 특화공간으로 변신해 큰 호응을 얻었던 인삼약초거리가 올해에는 '신시 소도놀이마당'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금산만이 갖고 있는 소중한 보석인 금산농악을 비롯한 물떼기농요, 농바우끄시기 등 금산전통민속공연은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울림 마당으로 과감하게 변신, 보여주는 민속에서 함께 느끼고 호흡하는 체험형 이벤트로 변화를 꾀했다.

국내최초로 선보이는 안숙선 명창의 '금산가'와 국립창극단의 전국적인 관심속에 금산인삼축제의 위상을 한껏 높여 주었다는 평이다.

전국대회로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프로그램인 전국N세대축제, 유니세프와 함께 하는 웃는 얼굴 그리기, 인삼어린이선발등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흥미진진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될 촛불행진

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작은 소망과 기원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났다.

축제기간 중 인삼종합전시관에서는 금산인삼축제를 산업형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게 해준 5회 국제인삼교역전이 열려,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제품이 모두 전시되고 참여업체와 외국바이어들과의 무역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 무역성과 1,000만불 돌파에 힘입어 행사기간을 3일에서 10일 간으로 늘렸다.

전국 최고의 기량을 가진 팀들이 참가하는 전국족구대회, 3,000여명에 가까운 건각들이 인삼고을을 달리는 하프마라톤대회, 전국자전거대회, 전국궁도대회 등 전국규모의 스포츠행사가 열려 생활스포츠 저변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건강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제1회 조치원 복숭아 축제

8월 8~9일 연기 문예회관

제1회 조치원 복숭아축제가 8월 8~9일 이틀간 연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연기군과 농협 연기군 지부가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를 알리기 위해 처음 여는 것으로 축제추진위(위원장 최병무)가 주관했다.

첫날 복숭아 품평회를 시작으로 복숭아 홍보탑 제막식(소정면 소정리)과 야간 영화제가 열린다. 둘째날은 식전행사와 개막식(오전 10시)에 이어 복숭아 전자상거래



개소식, 복숭아와 어울림, 장기자랑, 복사골 새싹공연, 축하공연, 군민화합음악잔치, 폐회식(밤9시)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 축제기간 이틀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특별행사로 복숭아 직판, 서예전, 복숭아 사진 및 수석 전시회가 열렸다.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개최

전통민속문화 볼거리 '풍성'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가 서산시 해미면에 소재한 해미읍성(사적 116호)에서 5월 31일부터 2일간 개최되었다.

서산문화원(원장 김현구) 주관으로 펼쳐질 이번 축제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관아체험 ▲옥사체험 ▲군영체험 ▲장터체험 ▲민속공연체험 ▲민속놀이체험 등 관광객이 직접 역사속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또 체험 프로그램 외에 사생대회, 사진촬영 서비스, 현장수배체험 등 예년에 보지 못한 다

양한 이벤트 행사도 계획돼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난해 성과분석 및 관광객 설문 등을 통해 도출된 미흡한 점을 대폭 보완함은 물론, 읍성 외부의 교통정리 자원봉사자들도 포졸복장을 하고 임하는 등 내실 있게 짜여져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한편,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학생은 물론 가족단위 관광객과 외래 관광객들에게 전통 민속문화를 바로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계될 수 있는 전국 단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용운 선생 추모제 막올라

제9회 만해제 홍성 생가서 3일간 일정 돌입

만해 한용운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제9회 만해제'가 10월 23일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서 만해사상 강의 및 추모다례를 시작으로 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10월 홍성 방문의 달 3색축제 가운데 남당리 대하축제,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 대축제에 이어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해제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첫날인 23일 결성면 성곡리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서 채현병 홍성군수를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사상 강의와 추모다례가 거행됐다.

둘째날인 24일에는 오전 9시부터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남녀 시조경향대회가 열리고, 오후 1시부터는 남산공원내 푸른쉼터에서 사진, 미술, 서예, 지역문화지 간행물 전시 등 한우리축제가 펼쳐졌다.



25일에는 오후 3시부터 홍주의사충~푸른쉼터 구간에서 만해 추모 한마음 걷기대회, 오후 2시 30분에는 홍성을 일원에서 거리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푸른 쉼터에서 만해 추모공연 및 만해 문학의 밤 2부 행사, 푸른음악회 공연이 이어졌다.

남당리 대하·광천 토굴새우젓·만해제등

홍성 3색축제의 가을여정

가을을 맞아 홍성지역에선 싱싱한 대하와 담백한 새우젓 등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제공되는 3색 축제(남당리 대하축제, 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 대축제, 만해제)가 열렸다.

■ 남당리 대하축제

서부면 남당리 일원에서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15일간 열린 대하축제는 천수만 농악대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제공되었다.

개막식 직후 해전대 김애정 교수의 요리 시연을 통해 대하로 만든 20가지 요리를 맛보며 관광객이 참여하는 즉석 요리대회와 대하 빨리먹기 대회도 열렸다. 오후 2시부터는 대하를 주제로 한 분장쇼와 거리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오후 6시에는 개막 축하공연, 8시 불꽃놀이, 8시20분부터는 200인치 스크린 빔 프로젝터를 동원한 해변영화제가 매주 토·일요일에 열렸다.

21일 오전 10시부터 홍주골 풍물패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11시부터 1시간 동안 해동검도단의 축하공연, 오후 6시부터 전문 국악팀의 '국악인들의 소리마당', 7시40분 청운대 중국어학과 학생들의 사자춤 놀이, 8시 '요절복통' 프로그램, 9시부터 11시까지 해변영화제 등으로 이어졌다.

27일 오후 2시 홍성군 풍물경연대회가 열리며

28일 오후 1시 해변 씨름대회, 오후 6시 청소년댄스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10월 3일 오후 1시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족구대회, 오후 6시 해변가요제가 열렸다.

10월 4일 오후 2시부터는 갯벌 50평 크기에 대하를 방류해 놓고 관광객 누구나 들어가 잡아갈 수 있는 대하잡기 체험행사가 펼쳐지며, 10월 5일 오후 3시 갯벌 조개잡이 체험행사가 열렸다.

■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대축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광천읍 일원에서 열린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대축제는 1996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광천 토굴새우젓과 조선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축제 때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우수한 것만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 만해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홍성군 결성면 출신으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한용운(1879~1944)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과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한 만해제가 열렸다.

태안 거리축제 11월 8일 개막

제2회 태안거리축제가 11월 8일 태안읍 시내(구터미널→성심상가)를 무대로 열렸다. 이번축제는 ▲오전 10시 개막식(농협중앙회 앞)을 시작으로 ▲20여개 기관·단체가 참가하는 특산물 판매장 ▲8개 읍·면 부녀회의 먹거리 장터 ▲3개 상우회의 반짝 세일 등이 운영되었다.

또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주민화합마당은 ▲남·여 팔시름 대회 ▲즉석노래자랑 ▲청소년댄스공연 등 20여가지의 다양한 볼거리가 선보였다. 이날 차 없는 거리에서는 ▲서예, 사진, 화훼, 난 등의 전시회가 열리며 ▲사진촬영, 이·미용 등의 무료행사 코너도 마련되었다.



태안의 문화축제

황도붕기풍어제
중앙대제(中央大祭)
이원 뱃가릿대놀이
근흥 자염축제
고남 조개부르기제

황도붕기풍어제



충남도 무형문화제 제12호로 전승·보존되고 있는 황도붕기풍어제는 오랜 옛날 안개가 자욱한 어두운 밤에 출어한 어선들이 표류할 때 당산에서 불빛이 비추어 모두 무사히 귀향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 전설과 함께 안면을 황도리 주민들이 풍어와 안녕을 지켜준 곳에 당집을 짓고 제사를 모시게 된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행사는 해마다 정월 초이튿날 피고사와 세경굿, 당오르기(뱃기경주), 본굿 등의 행사로 시작되며 초사흘날에는 지속경쟁, 뱃고사, 강변용신굿, 파제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한 해 동안의 주민들의 풍어와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이를 동안 열리게 된다.

특히 황도 붕기풍어제는 1977년 제18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매년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태안군의 대표적인 민속행사이다.

- 행사일시 : 매년 음력 1월 2일~3일
- 행사장소 :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 행사주관 : 황도 붕기풍어제 보존회

※ 붕기란?

만선(滿船)한 경우 그것을 기념하여 다는 기로 긴 대나무 장대에 대나무를 쪼개서 종이를 잘라 감은 후 끝에 붉고 푸른 종이꽃을 만들어 담

행사문의

- 태안군 문화관광과 ☎(041)670-2254
<http://taean-gun.chungnam.kr>
- 태안문화원 ☎(041)674-2192



중앙대제(中央大祭)

중앙 대제는 매년 음력 1월 14일 저녁에 태안 경이정에 서 거행되는 제례행사로 대제가 이 곳에서 거행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인데, 그 기원은 산신제에서 기인되었다.

옛부터 백화산 중턱에 자리잡은 태을암과 마애불상이 있는 중간 지점에 산신당을 짓고 매년 정월에 산신제를 지내

오다 산신당의 퇴락으로 인하여 제례의식이 지난 1936년에 중단되었다가 1972년 태안읍내 노인들이 중심이 되어 산신제를 다시 지내기로 결정하여 36년만에 다시 대제를 지내기 시작하였으며, 명칭도 중앙대제로 개칭하고 장소도 경이정으로 옮겨 제를 지낸다.

- 행사일시 : 매년 음력 1월 14일
- 행사장소 : 태안읍 경이정
- 행사주관 : 태안문화원



이원 뱃가릿대놀이

옛부터 지방곳곳에 전승(傳承)되어오는 향토민속(鄉土民俗)으로 농가에서 음력 1월 14일이 되면 소나무를 베어다가 마당 한복판에 세우고 그 위에 짚을 묶어서 쌀아 기장(旗將)을 만든 다음 벼·조·피·기장 등의 이삭을 꽂아 두고 장간(長竿)위에 목화(木花)를 늘어 놓는데 이것을 '뱃가릿대' 또는 '남가릿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쌓은 남가릿대는 두었다가 음력 2월 1일 아침 일찍 철거하는데 난알이 이렇게 많도록 풍년이 들라는 기원이다.

태안군 이원면에서 매년 행하고 있는 이 놀이는 그해의 농사가 시작되기 전(음 1.14)에 마을 입구에 모닥불을 피워 1년 액운(厄運)을 몰아내고 논쪽 밭쪽에 불을 놓아 1년 농사에 병충해를 없애며 지붕에는 노래기침이라고 술가지를 꺾어 두고 지신밟기로 집주위를 밟고 내 땅늘리기(땅짜기)라고 하여 막대로 땅을 그려 나가면서, "이것도 내땅"이라고 소리치며 하는 행사이다.

- 행사일시 : 매년 음력 2월 1일
- 행사장소 : 태안군 이원면
- 행사주관 : 이원면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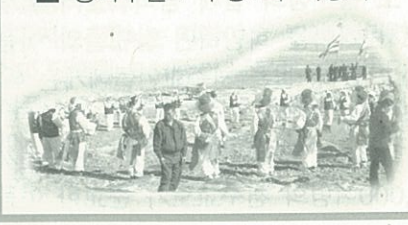


고남 조개부르기제

이곳 누동리 뱃고지 마을은 지형이 한자의 꼬챙이 굿(串)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마을 언덕위에 대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예전에는 대죽(竹)자를 써서 죽고지라고도 불리우던 곳으로 이 마을은 아늑하게 둘러쳐진 능선 아래 집들은 울창한 조개밭에 모여있는 마을이다.

누동리 조개부르기제는 다른 풍어제와는 달리 시작된 유래가 분명하고 이 지역의 특산물인 조개를 지칭한 당집이나 특별히 모시는 신이 없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 행사일시 : 매년 음력 10월경
- 행사장소 : 고남면 누동리 마을
- 행사주관 : 누동1리 대동회



서산해미읍성축제



사적 116호 石城...천주교도 순교 역사 숨쉬는 곳

■ 해미읍성에 묻혀 있는 역사들

이 성은 해미면 읍내리에 소재한 사적 제116호 석성(石城)이며, 길이 1.8km, 높이 5m, 면적 6만여평으로 조선 세종 3년만에 축성, 유일하게 조선 초기 성곽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때 이순신 장군이 부임해 1년 가까이 근무하며 병영으로서의 역할도 독특히 했고 내포지역 보부상 활동의중심지로 엄청난 상권을 이루기도 했다.

또 홍주성과 함께 동학혁명의 최후 격전지로서 개혁을 희망하던 농민들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물론 천주교인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성지이다.

1866년 병인박해 때부터 1880년까지 무려 1,000여명의 천주교도가 순교한 아픔을 기리

기 위해 매년 수천명의 신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 행사기간(5월 31일~6월 1일) 주요 프로그램

해미읍성 체험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극에서 나올 법한 죄인압송 행렬이다. 머리를 풀어헤친 죄인이 달구지를 타고 귀양을 떠나는 이색 체험은 이곳이 아니면 경험하기 힘들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형틀에서는 사포의 불호령과 함께 곤장세례가 이어졌다. 모진 고초가 끝난 죄인(관광객)은 옥사에 갇혀 포도대장이 내는 역사퀴즈를 맞춰야 출옥할 수 있다. 똑똑하지 못한 죄인은 자칫 행사가 끝나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을 수있으므로 공부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명판결을 극화한 관아 마당극은

체험 못지 않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병사훈련을 재현한 군영체험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박첨지놀이로 대표되는 서산의 민속공연은 주최측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특히 이 행사가 국가 지정 전통민속 축제로 지정되면서 일반 축제와의 차별성, 독창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서산문화원은 올해는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썼다.

이 외에도 보부상을 중심으로 한 장터 퍼포먼스, 병인박해와 관련된 종교극, 민속경연 등은 재미와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들

민속공연의 업그레이드, 종교극(성극)의 새로운 구성으로 이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은 마치 야외 영화촬영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역사 체험의 느낌을 배가시키기 위해 올해는 해미읍성 입구에서부터 조선시대 관아 출입시 시행하던 검문검색을 연출했다.

마당극의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 감옥구역에 변화를 가져온 것도 주목을 끌 만했다.

가을전어 고소한 맛잔치 '꿀꺽'

서천 홍원항 전어 큰잔치 9월27일부터
전어잡기등 체험행사·먹거리풍성

고소한 감칠맛으로 이름난 서천 갯벌 전어가 은빛 비늘을 뽐내며 손님맞이에 나섰다.

서천군은 가을 바다의 정취가 뛰어난 서면 홍원항 앞바다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4일간 전어 큰잔치를 펼쳤다.

가을 전어는 예부터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되돌아온다', '가을 전어 머리엔 참깨가 서말'이란 속담이 말해 주듯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전어는 가을이 되면 뼈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서천 홍원항 전어는 영양이 풍부한 갯벌에서 살이 통통하게 올라 한번 먹어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하며, 부산이나 남해안 등지에서 팔리는 전어의 대부분이 홍원항 전어로 인기가 아주 좋다.

값도 다른 생선에 비해 저렴해서 2만5000원이면 15cm가량 되는 전어가 10~12마리 정도가 나오며 회나 회무침, 구이로도 먹을 수 있다.

이번 축제기간에는 전어회 시식회, 맨손으로 전어 잡기, 조개잡이, 바다낚시 등 체험행사와 라이브 공



연, 관광객 노래자랑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요리 장터, 구이 장터, 특산물 판매 장터, 수산물 경매 및 직거래 장터, 소극주 시음장 등 상시 부대행사가 축제기간 내내 이어져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행사 관계자는 "전어는 지방이 2%밖에 안되면서 비타민과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해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이번 축제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한다.

'묵향가득' 추사문화제 열린다

예산문화원(원장 이지호)은 10월 11~12일 양일간 예산문화원과 추사고택 일원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위대한 학예정신을 계승하고 추모하기 위한 7회 추사문화제를 열었다.

지역의 문화축제로 자리잡힌 추사문화제는 후손들에게 후학을 육성토록 축하공연과 더불어 전국서예백일장 등을 열고, 예산군 학생실기대회의 장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김정희 선생은 고대의 비문과 역대 명필을 연구하고 개성적인 추사체를 창안해 역사에 길이 빛날 특유의 서체를 남겼다.

문화제 첫날 오는 11일은 예산문화원 뜰에서 분재전시회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아·나·바·다 베틀시장을 열고, 전야제는 오후 6시부터 문화원 광장에서 한밤의 영상음악회와 주민이 참여하는 추사가요제로 흥을 돋우며 가을 밤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 지난해 추사추모 전국서예백일장에 참가한 후학들이 추사에 버금가는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

둘째 추사고택 일원에서 추모제, 14회 전국서예백일장 등이 열리며 통기타 라이브와 민족음악원 풍물놀이의 작은 음악회가 추사고택 내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문화원 관계자는 "조선시대 예술세계의 거장이었던 김정희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이번 추사문화제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로 마련돼 흥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강경 '맛자랑' 문화관광축제로 승화



강경젓갈 축제가 내국인 50여만명, 이국인 3천여명의 관광객이 참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문화관광축제로서 자리매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년 전통의 젓갈! 강경포구로의 초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 '2002 강경젓갈축제'가 내국인 50여만 명과 3천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참가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문화관광축제로서 힘이 없다는 평가 함께 관람객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10월 20일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지난 17일 염광여고 마칭밴드, 젓갈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초청리셉션, 황산골 선비밥상, 젓갈주먹밥 싸먹기, 젓갈김치 담그기, 함지박이고 달리기, 맛갈젓 OX 퀴즈와 경매전, 팔도관광객 김치담그기 대회, 새우젓 높이 쌓기 등 체험위주의 대회를 개최했다.

또 상설행사로 강경젓갈 홍보관, 놀이향토 특산물전, 퓨전젓갈전시, 젓갈옹기전, 강경 옛 모습 사진전, 금강권 관광협의회 특별

2003 비단고을산꽃축제

2003. 4. 1(화) ~ 4. 30(수)
금산군 군북면 보곡산골 산벚꽃단지

주최 금산문화원
주관 보곡산골민속보존회
후원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화도시동인회, 산꽃시동인회, 금산농악보존회, 나야내장문단, 산꽃제상, 우리음식연구회

- 산꽃길 명상여행
- 산꽃생태탐구여행
- 길따라 꽃따라 함께하는 문화여행
- 풍류산방놀이
- 산꽃시동산 화전놀이
- 자생화 전시회
- 송계 대방놀이
- 산나물싸게 장터

특별체험마당 :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송계대방놀이,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산꽃길명상여행

(익산, 군산, 부여) '2002젓갈도매상인 및 중국 일본 상인 등), 강경젓갈 정보화마을 엿보기 추억 만들기, 향포뚝단배 재현 등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전개 관광객의 흥을 돋구었다.

게다가 강경포구 용왕제, 옥녀봉서 선녀와 춤을, 나루터 가을음악회, 김대균 줄타기 공연, 전통국악공연 풍경이 있는 소리공연등 기품이 있고 난이도 높은 공연에 환호와 갈채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19일 실시된 외국인 까나리 액젓 김치 담그기 대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관광객 등 3천여명이 참석해 우리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참석자들에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일본 구마모토현 보호사회 (21명)가 논산지청산하 범죄예방위원회와 함께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를 전개한 후 젓갈 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구마모토현 보호사회 회장은 "염장에 의한 숙성 발효식품인 한국의 전통 음식인 젓갈의 역사와 제조 방법을 이번 축제를 통해 알게 됐다"며, "구수하고 독특한 맛을 내는 강경 젓갈을 귀향 선물로 준비, 강경 젓갈 홍보에 일조 하겠다"고 말해 축제마당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한편 강경 젓갈축제추진위원회 측은 축제기간 젓갈판매액이 200억여원에 이르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24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석기~조선까지 지역문화 한자리

서산문화원내 3개 주제 향토사료관 문열어

서산지역의 역사와 자연 및 생활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향토사료관이 문을 열었다.

11월 10일 오전 11시 서산문화원(읍내동 519번지)내 향토사료관에서 김현구 문화원장을 비롯해 조규선 서산시장, 윤찬구 서산시의회 의장 등 각급 기관단체 및 문화원 가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이 개최됐다.

서산향토사료관은 130평의 사료관, 수장고(10평), 관리실(6평)등 총 170평 규모로 역사·자연·생활문화관, 문화재관, 유물관 등 3개의 주제로 공간이 구성돼 있다.

역사·자연·생활문화관에는 서산의 역사, 인물, 자연환경, 특산물, 복식문화, 음식문화, 민속놀이, 민속의례, 서산해미읍성축제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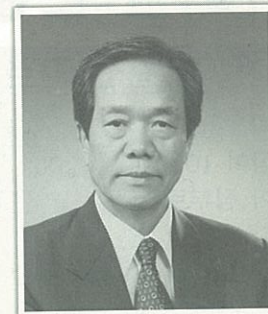
문화재관은 분묘유적, 관방유적, 불교유적, 유교유적, 무형문화재, 철새도래지,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등 31점의 사진이 전시돼 있다.



유물관은 구석기 7점, 신석기 23점, 청동기 45점, 가야 4점, 신라 26점, 백제 52점, 고려 68점, 조선 54점 등 모두 279점의 토기류가 전시되고 있다.

향토사료관 관계자는 “문화유물을 수집 보존하여 후세에 알리고 학생들에게 향토사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나가면서 작지만 알찬 사료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청양문화원 정재권 원장



“향토색 짙은 고장 만들것”

“조상들이 가꾸어놓은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화에 접목시켜 향토색 짙은 고장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신임 정재권 제4대 청양문화원장(66·사진)은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청양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석대학교 법경대 경제학과를 졸업후 62년 광화문 우체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제3회 행정사무관에 합격, 청양우체국장, 부산진 전화국장(1급행정)을 거쳐 서울사업본부에서 본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시 분과)이며 청양중고등학교 장학재단 평생이사를 맡고있다.

청양 비봉産으로 세심한 성격으로 매사에 빈틈이 없는 원칙주의 자이며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주위의 평이다.

신임 서산문화원 신상찬 원장



“서산의 향토적 정서를 살려 지역 특유의 문화환경 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서산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러내는데 선도자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신상찬 서산문화원장(70·사진)은 서

부춘동장을 역임하였다.

바쁜 공직생활속에서도 우리것 찾기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오다 서산문화원의 임원으로, 부원장으로 활동해 왔고 국내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을 맡아지역의 각종향토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는 일에 매진해오다 지난 11월 11일 김현구 원장의 뒤를 이어 서산문화원을 이끌게 되었다.

“문화환경의 선진화 모색에 심혈을 기울일 것”

산을 선진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산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를 수료한 후 공직생활을 시작, 원북면장과

특히 최근에 개관한 향토사료관의 준비에서부터 개관에 이르기까지 온 몸을 기울여 내용있는 지역의 유물보존관으로 거듭나기까지 정열을 쏟아 부었다.

박노을 온양문화원장 '옥관문화훈장'

지역 발전 공로 인정

박노을(71·朴魯乙·사진) 온양문화원장이 10월 20일 '2003 문화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옥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지난 57년 20대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온양문화원을 창설, 46년여 동안 지역 문화발전에 헌신해 온 박원장은 각종 강좌의 출판물 발간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옴으로써 문화불모지였던 아산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향토사료관과 자체도서관 및 공연장 등을 확보, 청소년들의 문화 욕구 감응 해소에 노력해 왔으며 향토사료의 '역저(歷著)'로 평가되는 '온양아산의 마을사' 제1~3집을 발간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산증인으로서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한편, '문화훈장'은 정부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상이다.

문화의 날 충남문화계 '경사'

이종상 동양화가

故 신동엽 시인

심우성 관장

박노을 문화원장

2003년도 문화의 날 문화훈장 서훈자 중에는 충남에 연고가 있거나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중인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종상 동양화가(65 서울대 명예교수, 호 一浪)는 우리미술의 정체성과 전통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작품세계를 선보여왔다. 충남 예산출신으로 대전 보문중 대전고를 거쳐 서울대 미대 동양학과와 동국대 대학원 비교미술학,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1979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전엑스포 문화예술전문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박물관과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故 신동엽시인은 1959년 필명 石林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大地)'가 당선돼 문단에 등단했다. 첫 시집 아사너는 민족의 전통적인 삶이 역사의 격변으로 붕괴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역사와 현실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민중의 저항의식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했으며 연

극 등으로 각색되기도 했다. 서울 명성여고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중 1969년 간암으로 작고했다.

심우성 공주민속극박물관장은 우리나라 전통 연희와 민속발전에 기여한 민속학의 거두이다. 충남 공주출신으로 공주고등학교와 홍대를 졸업한 심관장은 1960년 민속극회 남사당을 창립했으며 우리문화연구소장,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6년 고향인 공주 의당에 공주민속극박물관을 세웠으며 아시아 일인극제, 백제기악복원 심포지엄등을 추진하면서 일본, 중국 등 민속 교류에 일익을 담당했다. 심관장은 단순히 민속학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창작활동도 해오고 있다.

또한 박노을 온양문화원장은 1957년 온양문화원을 창설했으며 1961년 온양 지역축제인 온양문화제를 만들고 2000년까지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온양지역의 향토사료를 모은 온양아산마을사와 문화학교, 작은 도서관, 문화유적탐방 등 문화원 차원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1970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바 있다.

충남지역 향토사연구자료 시상 및 발표회



수 상	성 명	제 목
최우수상	이재철	한·일 양국의 민속줄다리기에 대한 고찰
우 수 상	임영수	주의 물
장 려 상	임채학	부인당 설화
	김종식	천안의 금석문에 대하여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지회장 민병달)는 지난 11월 12일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도내 문화원장 및 향토사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 충남지역 향토사 논문 및 자료 공모에 따른 시상식과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당진문화원 사무국장 이재철 씨의 「한·일 양국의 민속줄다리기에 대한 고찰」과 우수상을 수상한 연기향토박물관장 임영수씨의 「주의 물」, 장려상을 수상한 논산향토연구소 임채학씨의 「부인당설화」에 대한 연구동기와 취지, 조사에 따른 배경 설명 등 수상 논문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초청특강으로 공주대 교수 이해준 박사의 「향토사 연구의 실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2003 충남문화예술인대회



충남지역에서 활동중인 문화 예술인 및 문화가족 참석 새로운 시대속의 문화의지를 밝히는 뜻깊은 자리 마련

충남도내 문화원과 예총에서 활동중인 문화 예술인 6백여명이 지난 12월 6일, 논산문예회관에 모여 문화예술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매년 한차례씩 도내를 순회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인적교류는 물론 정보교환과 다양한 축하공연을 통해 신명나는 무대를 꾸미고, 함께 자축하는 화합의 장을 펼쳤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활발한 활동을 보인 문화예술인들에게 표창을 하는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모색해 가는 뜻깊은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참석한 심대평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창작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는 예술인들과, 지역문화창달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매진해 오고 있는 문화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충남지역이, 더욱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거름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본 행사를 주관한 한국예총충남연합회(회장·김영천)와 문화원연합회충남도지회(회장·민병달)는 '2003 충남문화예술인대회'를 열면서, 최근 국정현안과제로 떠오른 「지방살리기3대특별법제정 촉구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이 지방문화시대의 구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대내외에 피력하기도 했다.

祝

2003 충남문화예술인대회 수상자

수상



충청남도지사 표창

- 성환문화원 유인혁
- 온양문화원 윤용자
- 금산문화원 김병모
- 서천문화원 조이환
- 조치원문화원 민복기

- 한국예총 아산지부 홍승규
- 한국예총 서산지부 신효수
- 한국예총 논산지부 최기봉
- 한국예총 홍성지부 황선익



전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

- 논산문화원 이사 박영자
- 부여문화원 회원 김순애

한국예총회장 표창

- 한국미협 충남지회 장철석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강병락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장 표창

- 공주문화원 류재열
- 대천문화원 한상건
- 청양문화원 이숙자
- 홍성문화원 한경원
- 태안문화원 문영식
- 당진문화원 최은호

한국예총 충남도지회장 표창

- 한국예총 천안지부 박정옥
- 한국예총 공주지부 김지광
- 한국예총 예산지부 전용화
- 한국국악협회 충남지회 고민숙
- 한국음악협회 충남지회 박영미
- 한국연예협회 충남지회 김군래

지역문화 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 문화 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 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 감수성의 역량이 곧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 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 문화 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 문화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 문화 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 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 단체의 활동이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 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 지역 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 자치 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충남의 인물

..... 홍성문화원 제공

성삼문

성삼문(成三門:1418, 태종18~1456, 세조2)은 15세기 조선초의 뛰어난 유학자이며, 사육신(死六臣)의 한 분으로 일컬어진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은 집현전의 학사로서 훈민정음 창제에 많은 공을 세웠는데, 음운 연구를 위해 요동 땅을 오고 간 것이 무려 13차례나 되었다. 또한 그는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불의로 규정하고 목숨을 바쳐 항거하였다. 부친 성승(成勝), 동지 박팽년(朴彭年), 이개(李愷),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 등과 함께 모진 고문과 참혹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 이에 '사육신(死六臣)'이라 부르고 그들의 충절을 높이 기리고 있다.

성삼문은 39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다. 이제 그가 남긴 발자취와 업적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충절과 의리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준 점이다. 성삼문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불의로 규정하고 단종의 왕위 회복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마침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충절과 의리를 끝까지 주장하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

이다. 그의 가족은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고 가산은 몰수되었으니, 의리를 지킨 대가는 너무도 컸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지위도 생명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기 때문이요 인생은 두 번 살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과 죽음은 인간의 가장 엄숙한 선택이다. 맹자는 일찍이 "사는 것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요 올바른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있다면 삶을 버리고 올바른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유학에 있어서의 이상은 물질적 부를 누리면서도 올바른 도덕적 삶을 사는데 있다. 즉 경제적인 삶과 도덕인 삶을 아울러 충족함이 유학의 이상이다. 그러나 만약 부득이하여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면 '사생취의(查生取義)' 즉 생(生)을 버리고 의(義)를 취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자의 '살신성인(殺身成仁)'과 같은 말이다. 의리라는 도덕적 가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다. 성삼문은 바로 이 공자의 '살신성인'과 맹자의 '사생취의'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우리는 말과 글로서 정의를 말하고 의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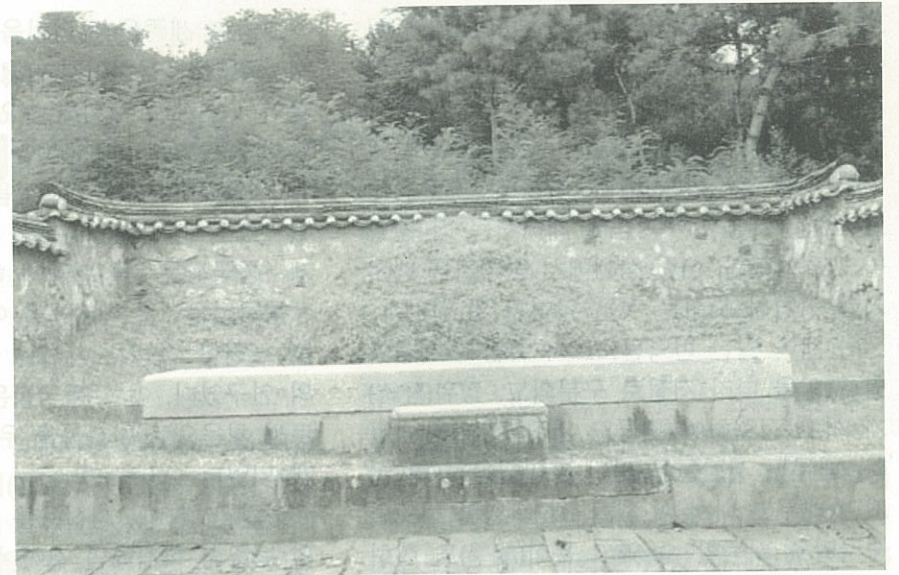
절개를 주장하기는 쉽다. 그러나 정의와 의리를 몸소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반드시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다. 온갖 위협과 고통을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성삼문도 수양대군에게 협력을 했더라면 부귀영화가 보장되고 자신의 인생도 순탄대로의 행복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성삼문은 수양대군의 행위를 정권의 도둑질로 보고 이에 협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바른 것이라는 가치, 정의라는 가치를 위하여 한 목숨을 바친 것이다.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의 충절의리(忠節義理)는 여말 포은의 충절의리를 계승한 것이면서, 15세기의 도학적(道學的) 의리, 임진왜란 때의 의병정신, 병자호란 때의 대청의리(對淸義理), 한말의 위정척사(衛正斥邪)와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어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절의를 숭상하고 기리는 정신은 이미 그의 글 속에 많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연의 미덕을 노래한 「연송(蓮頌)」에서 연을 군자의 덕에 비유하고, 마음을 비우고 곧으며 진흙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더럽지 아니하고, 물 속에 있으면서도 젖지 않음을 예찬하였다. 또 「매죽헌부(梅竹軒賦)」에서는 매화와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호가 '매죽헌(梅竹軒)' 이듯이, 매화의 깨끗함과 대나무의 푸름을 예찬하였다. 매화는 눈서리에도 굴하지 않고 청아한 지조를 지키며, 대나무는 만고풍상에도 굳센 절의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그대로 읊은 것과 같고, 실제로 그는 매화와 대나무와 같은 지조와 절의를 지키며 짧은 생애를 살

았던 것이다. 또한 「송죽설월송(松竹雪月頌)」에서도 소나무와 대나무의 곧고 굳셈과 달과 눈의 밝고 깨끗함을 노래하였다. 그는 소나무와 대나무의 곧고 굳셈, 즉 어떠한 고난에도 변함 없는 지조와 절개를 칭송하고 있으며, 달과 눈의 밝고 깨끗함 즉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함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덕이야말로 군자의 조건으로서 성삼문 그 자신이 추구해 온 이상적 가치였다. 이상 몇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충절의리가 결코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평소 그의 삶 속에서 축적되어 드러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충절의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감정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온 생애를 통해 다듬어진 이성적 실천이냐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그의 충절의리는 더욱 높게 평가된다 하겠다.

오늘의 현대사회는 경제적 가치와 실용주의가 중시되고 있다. 모든 것이 경제적 잣대로 평가되고 실용적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하는데 익숙해 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가치, 도덕적 가치는 경시되고 전반적인 윤리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정의를 위해 죽기보다 돈을 벌기 위해 죽는 현실이 자연스런 세태이다. 성삼문의 삶이야말로 바보 같은 삶으로 생각될 수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금 성삼문의 삶과 죽음을 재음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영원히 살기 위하여 죽은 것이다. 정의라는 가치, 의리라는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그는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의의 싹을 뿌리고 산 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충절의리의 삶은 외형적인 업적보다도 더욱 빛나는 교훈을 후세에 남겨주었다고 볼 수



▲ 도지정 기념물 5호 - 성삼문선생 생가

있다.

둘째는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바친 그의 학문적 업적을 들 수 있다. 성삼문이 쓴 「직해동자습(直解童子習)」 서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언어가 중국과는 달라 역관(譯官)이 있어야만 서로 의사 소통이 가능했다. 선대 임금 때부터 이를 위해 승문원(承文院)을 두어 이문(吏文)을 맡게 하고, 사역원(司驛院)을 두어 통역을 맡게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말을 배우는 자가 여러 번 거쳐서 전한 것을 습득하고, 전수한 지가 이미 오래되고 보니 맞지 않는 것이 매우 많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종으로는 사성(四聲)의 빠르고 느림에 혼란을 야기하고, 횡으로는 칠음

(七音)의 맑고 흐림을 잃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의 학자가 옆에 있어 정정해주는 일도 없기 때문에, 실력 있는 선비나 노련한 역관으로 한평생 종사했다 하더라도 마침내 고루한 데 빠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세종과 문종이 이 점을 염려하여 훈민정음을 지어, 천하의 모든 소리를 표기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홍무정운(洪武正韻)」을 번역하여 중국의 원음을 바로 잡고, 또 「직해동자습(直解童子習)」과 「훈세평화(訓世評話)」로 중국말을 배우는 기초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삼문은 말하기를 사방의 말씨가 비록 남북의 다름이 있으나, 소리가 어금니, 혀, 입술, 이를 통해 나오는 것은 남북의 차이가 없

으니,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성운(聲韻)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우리나라가 생긴지 몇 천년이나 지났으나, 사람들이 날마다 사용하면서도 철음이 우리말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철음도 모르니 맑고 흐림, 가볍고 무거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말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책이 일단 번역됨으로써 철음과 사성이 입 모양을 따라 저절로 구분되고, 경위(經緯)가 서로 정확하여 조금도 차질이 없게 되었다. 배우는 사람들이 먼저 훈민정음을 몇 글자만 배우고 나서 이 책을 보면, 열흘 정도면 중국말도 터득할 수 있고 운학(韻學)도 훤히 알 수 있게 된다 하였다.

세종은 다른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의 말을 표기하는 문자가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없다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운이 비록 중국말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어금닛소리, 헛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와 맑고 흐리고 높고 낮음은 일찍이 중국과 같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다. 따라서 언문의 자모(字母) 28자를 직접 창제하고, 궁중에 국(局)을 설치하고 성삼문, 최항, 신숙주 등으로 하여금 짓게 하였던 것이다. 당시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黃贊)이 죄를 얻어 요동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왕명에 의하여 성삼문은 신숙주와 함께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 요동에 가서 황찬을 만나 음운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배웠으니, 이후 요동을 왕복한 것이 무려 13회나 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문이 훈민정음의 창제를 위하여 바친 열정과 노력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하기에 앞서 한글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만들어서 실제로 시험해 보았다. 세종은 1466년(세종 28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 한자음을 정확히 알아야 훈민정음을 바로 쓸 수가 있으므로 신숙주를 비롯한 최항, 성삼문 등에게 「동국정운」을 만들게 하였던 것이다. 즉 「동국정운」은 한자음을 어떻게 훈민정음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하는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연구였다. 이 「동국정운」이 만들어짐으로써 처음으로 한자음을 우리 한글로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성삼문은 당시 언어학 분야의 탁월한 학자였던 것이며, 「직해동자습」의 교정에 참여하였고, 「동국정운」의 편찬에도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의 기초적인 연구를 위해 요동을 13번이나 왕래하며 음운연구에 심혈을 바쳤던 것은 그가 남긴 큰 발자취라 하겠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독자적인 문자체계를 가지고 사용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이미 15세기에 「훈민정음」이라는 창조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우리 문자를 가졌던 것이니, 이는 세계를 향한 우리의 큰 자람이 아닐 수 없다.

훈민정음 창제의 주도자는 비록 세종이라 하더라도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와준 것은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라고 볼 때, 이들이 한글창제에 바친 공헌은 민족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자료출처 : 문화관광부 2002년 7월 문화인물 성삼문 중에서

사계 김 장 생 (沙溪 金長生)

선생의 본관은 광산이며 자(字)는 희원(希元)이고 호는 사계(沙溪)며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조선 선조때 서인(西人)의 중진인 김 계휘(金繼輝)의 아들이며 효종때의 예학 사상가인 김 집(金集)의 아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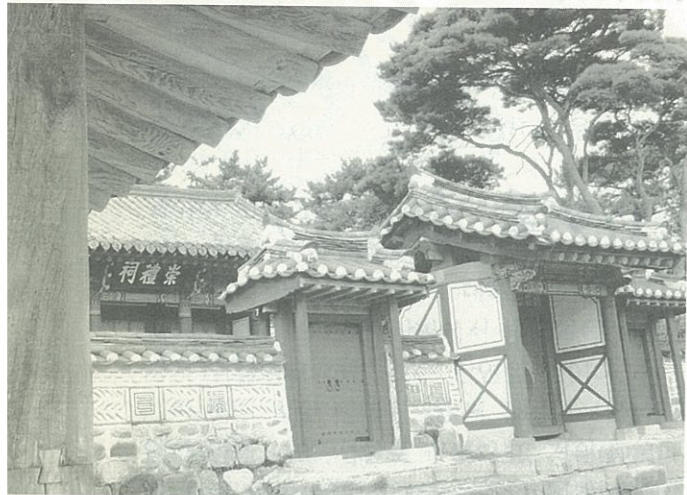
명종3년(1548)년에 태어났으며 명종12년(1557) 열살의 나이에 구봉(龜峰) 송 익필(宋翼弼)문하에 들어가 수업하였고 장성해서는 울곡(栗谷) 이 이(李珥)의 문하에서 예학과 도학을 수학하여 마침내 유학(儒學)의 종장이요 예학의 태두(泰斗)가 되었다.

선생이 살았던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 중엽에 이르는 근 100년 간은 국 내외로 다 난(多難)한 시기였다. 안으로는 반세기에 걸친 사화가 지나자 극심한 당쟁이 시작되어 동서의 분당과 남북의 분파가 대립하였으며 광해군의 폭정과 인조반정(1623), 이괄의 난(1624) 등을 겪었다. 밖으로는 임진왜란(1592)을 비롯하여 정유재란, 정묘호란 등 남과 북으로부터의 외침이 쉴새없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화를 겪은 사람들은 정치에 뜻을 버리고 산림에 숨어살며 학문과 교육에 힘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학문경향도 철학적 사색과 이론적 체계를 세우

는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선생은 구봉 송 익필과 울곡 이이로부터 사사 받은 유학의 가르침을 더욱 발전시켜 조선조 중기의 예학(禮學)을 집대성했다. 자칫하면 나라 전체의 선비들이 지루하고 공허한 성리학(性理學)적 논변에 빠질 수도 있었던 때에 선생이 유학의 본질적인 문제로 학문의 조류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조선조의 유학사(儒學史)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선생은 학문의 역사를 새롭게 쓰도록 한 위대한 학자였다.

벼슬에는 별로 뜻이 없었으며 선조17년(1584) 순릉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사임하고 그 후 여러 벼슬을 내렸으나 정산 현감을 마치고는 논산(당시 연산현)으로 돌아왔다. 선조30년(1597) 정유재란에 호남 소모유사가 되어 임무를 다했고 선조31년(1598) 근사록 석의(近思錄 釋疑)를 저술했다. 그 후 가례집람(家禮輯覽)을 완성하였고 영의정 이항복(李恒福)의 천거로 염근리(염백리)로 초선 되었으나 이듬해 봄에 조정의 상황이 뜻과 같지 않아 벼슬을 그만 두고 논산에 내려와 양성당(養性堂)을 짓고 이곳에서 도를 강의했다.



김장생선생이 배향돼 있는 논산 돈암서원의 송례사(崇禮祠) 모습

인조1년(1623)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반정의 양 주역인 김 류(金 瑬)와 이 귀(李 貴)에 의해 산림처사(山林處士)로 추천, 장령(掌令)·사업(司業) 등이 제수 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이후에도 조정에서 계속 사람을 보내어 동지중추부사·행호군(行護軍) 등 여러 관직을 제수 했으나, 번번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가 위급한 상황일 때는 앞장서 나섰는데 인조5년(1627)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노령임에도 양호호소사(兩湖號召史)의 직함으로 의병을 모집하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데 앞장섰다. 또 나라의 중대한 기강을 흐트리는 일이나 예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에 대하여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인조가 자신의 생부인 정원군(定遠君)을 정식 국왕으로 추존 하려는 추송논의(追崇論議)가 일어나자, 그 것이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당시 그에 찬동한 이 귀·최 명길(崔 鳴吉) 등과는 물론 인조와도 심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사친의 추존을 통해 왕권을

확고히 하려는 인조의 의도는 이해하였지만, 예의 근본을 흔드는 일에는 끝까지 저항하였다. 인조8년(1630)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임명되는 등 인조와 조정은 선생의 출사를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원종의 추송논의 이후로는 일체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논산의 향리에 머물면서 제자와의 강학에만 열중하다 인조9년(1631) 84세로 노년을 마쳤다.

그의 제자는 아들이자 학문의 정통을 이은 김 집(金 集)과 송 시열(宋 時烈)을 비롯해 송 준길(宋 浚吉)·이 유태(李 惟泰)·강 석기(姜 碩期)·장 유(張 維)·이 후원(李 厚源)·신 민일(申 敏一) 등 후일 서인과 노론계의 대표적 인물들은 거의 망라되어 있다. 저서로는 『가례집람(家禮輯覽)』, 『상례비요(喪禮備要)』, 『근사록 석의(近思錄 釋疑)』, 『경서변의(經書辨疑)』, 의례문해(儀禮問解), 서소잡록략 등이 있고, 죽은 뒤에 『사계유고(沙溪遺稿)』가 간행되었다. 효종8년(1657) 문묘(文廟)에 종향되고 논산의 돈암서원(遯岩書院)과 죽림서원(竹林書院), 해주 소현서원, 파주 자운서원 등 10여 서원에 배향 되었으며 우리나라 예학의 종장으로 추앙 받고 있다.

선생의 유적으로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에 묘소가 있고 신도비가 있으며 묘소 아래에는 재실인 염수재(念修齋)가 있고 재실 뒤편에 선생의 부조위(不祧位)=(불천위(不遷位)) 사당(祠堂)이 있다. 그리고 지난10월 논산시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시로 승격한 계룡시 금암동(前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에는 사계선생이 말년을 보내던 고택이 있으며, 고택에는 사랑채로 성례당(省禮堂)과 정자인 구로정(九老亭)이 있고 정원에는 선생이 명나라에서 선사받은 영산홍이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다. 연못의 백련(白蓮)은 선생이 청양현감 재임시 심었던 것을 논산으로 오면서 가져다 심은 것이다.

그리고 선생의 제비인 정부인(貞夫人) 순천 김씨의 효열부 정려(孝烈婦 旌閭)가 있고 재실 염선재(念先齋)가 있다.

한편 논산시 강경읍에는 인조4년(1626)에 건립하여 강학하던 장소인 임리정(臨履亭)이 있는데 이정자의 이름은 시경(詩經)의 여임심연(여리박빙 “臨深淵 如履薄冰”에서 임(臨)자와 리(履)자를 따서 지었으며 선비는 항상 몸과 마음가짐을 깊은 물가에 서 있는 것처럼 또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긴장하고 조심하라는 뜻을 담고있다.

끝으로 선생의 詩 세수가 전하는데 그중 한수를 소개하면

고사증유 이십추 古寺曾遊 已十秋

옛 절에 노닐지 이미 십년

한재독좌 사유유 寒齋獨坐 思悠悠

찬방에 홀로앉아 생각은 한이 없네

고산춘색 혼여구 故山春色 渾如舊

옛산 봄빛은 온전히 예와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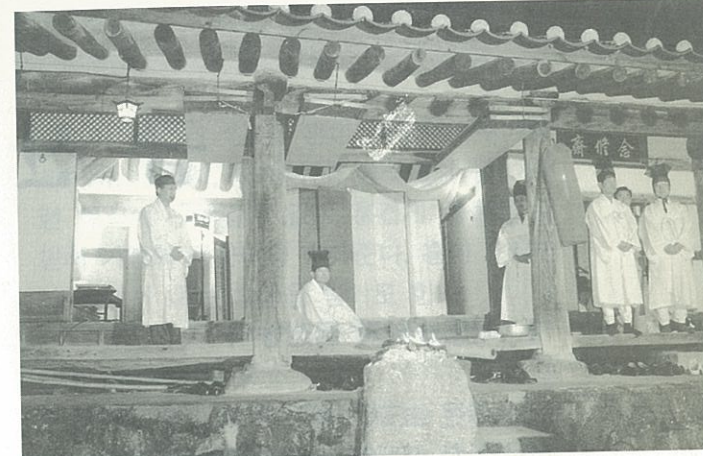
회수구성 쌍체류 回首龜城 雙涕流

머리를 구성으로 돌리니 두줄기 눈물이 흐르네.

(구성은 지례이다. 선생의 할아버지가 일찍이 이 현의 현감을 지냈는데, 그때 선생이 모시고 왔었기 때문에 옛일을 생각하며 느껴워 이에 언급한 것이다.(龜城 知禮也 先生祖考嘗宰此縣 先生侍來 故追感故事而及之)

(『사계유고』 권5)

이시는 선생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사모(思慕)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첫구와 둘째구는 선생이 10년 만에 전에 할아버지와 함께



김장생선생의 재실 염수재에서 음력 8월 2일 불천위제가 있었다. 앉아 있는 이가 14대 종손 김선원시

찾았던 고사(古寺)에 들러 깊은 감회에 젖어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셋째구는 산의 봄빛은 10년전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자연은 변함없이 그대로 인데 그때 함께 모시고 갔던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변함없는 자연에 비해 인명(人命)의 유한함을, 그리고 그에대한 애상(哀傷)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생은 할아버지에 대한 정이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선생의 나이 13세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외지로 나가시는 바람에, 선생은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야산에서 옛날 할아버지께서 현감으로 근무하셨던 구성(龜城)이 가까우니 그 사모의 정을 읊은 것이다.

위의 글은 논산 문화원 『영원한 선비 사계 김장생』 2000. 월간 광산 뉴스 『광산김씨 유적보감』 2000. 인터넷 두산백과 인물편을 참고, 인용하였음.

금 산 농 악

1. 좌도농악과 금산농악

농악은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 그리고 민속신앙과 생산풍습 등 자연·인문환경에 따라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농악이 단순한 놀이의 차원을 넘어 축원과 의례, 생산양식과 결합된 공동체적인 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지역의 농악을 구분하는 데에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흔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구분한다.

농악의 형태를 구분하는 방식은 먼저 앞배치와 뒷배치의 구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앞배치라고 해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가락과 이른바 뒷배치로 불리는 소고를 비롯한 잡색놀이의 형태를 통하여 구분한다. 또한 기능면으로 볼 때는 윗놀이인 채상놀이와 밑놀이인 가락중에서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러한 구성면에서 보면 좌도농악은 전원이 전립을 쓰고 복색이 비교적 간소하며, 빠른 가락이 많고 개인놀이보다 단체놀이에 치중한다. 또한 윗놀이가 발달한 반면 밑놀이인 가락은 담백하고 전체적으로 동작이 빠르다. 이러한 특징은 일면 영남농악과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좌도농악은 영남농악보다는 느리고 우도농악보다는 빠르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좌도농악을 대표할 수 있는 가락은 영산가락과 열두마치를 들 수 있다. 가락의 구성은 맺고 푸는 변주 기교가 구사되나 우도농악보다는 덜하며 일반적으로 잣은몰이로 몰아가는 두마치로 조여 맺는다.

한편 좌도농악이 전승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금산, 무주, 진악, 장수, 전주, 완주, 임실, 남원, 순창, 곡성, 화순, 순천, 승주 등이다. 아래의 지도에 잘 나타나 있듯이 좌도농악이 전승되는 지역은 오늘날의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조선시대 산맥의 분포도에서 볼 수 있듯이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을 잇는 산간지역의 백두대간의 산간지역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다시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를 경계로 하여 좌도농악권이 분류된다.

좌도농악은 금산을 상한점으로 하여 무주의 일부, 즉 과거 금산의 영향을 받았던 안성, 주계, 진안, 장수를 하한점으로 하는 농악과 곰티재와 장수 비행기재를 경계로 하는 산간 남부 지역의 농악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다른 농악권에 비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산악지방의 폐쇄성에 기인한 문화의 변별성이라 하겠다.

좌도농악권을 이루는 두 지역을 비교해 보면 금산이 속해 있는 북부지역에 더욱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난다. 즉 북부

지역의 농악은 가락의 끊고 맺음이 분명하고 윗놀이가 발달한 점에서 좌도농악의 특징을 더 간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우도농악과 비교하면 한층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도의 장구와 소고는 고깔을 쓰고 있는데 남부지역 농악인 필봉농악 역시 고깔을 쓰고 있다. 이는 필봉이 지리적으로 우도농악에 인접한 결과라고 본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채상놀이와 장구가락이 발달한 우도는 장구잡이가 상모를 쓰지 않고 고깔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락이 발달하였고, 의연히 윗놀이를 간직한 좌도의 장구잡이는 가락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을 추측해보면 과거에는 우도 역시 상모를 썼으리라 짐작되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여유로 인하여 변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추정은 좌도농악이 인접한 영남농악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상모에 있어서도 우도는 뺨상모라고 하고 좌도는 부들상모라 하는데, 우도 것은 물체에 철사를 사용하여 부포를 세우는데 장기가 있고, 좌도의 상모는 부들부들한 노끈을 사용하여 좌우로 돌리는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2. 내용에 따른 유형분류

(1) 매굿

설날 그믐날에 치는 굿이다. 이날은 일년의 마지막 날이지만 농악의 세계관은 새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곧 정월 초하루를 깨끗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잡신을 묻는다는 의미로 아무런 형식없이 집집마다 돌면서 마당에서 격

식없이 흥겹게 친다. 흔히 외마치, 두마치, 세마치, 네마치, 다섯마치, 여섯마치 등 아무런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흥겹게 풍물을 치면서 가정의 무사태평 빌어준다. 흥이 오르면 그 집에서 내는 술상을 받기도 한다.

(2) 마을축원굿

금산의 마을굿은 농악이 주도를 한다. 금산의 마을굿 유형은 탐제, 거리제, 산신제, 등구나무제, 장승제 등으로 정월 초사흘날이나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에 거행된다. 산신제와 함께 거릿제(탐제)를 지내는 마을은 상당인 산신당에 먼저 제를 지낸 다음 하당인 장승, 솟대, 탐신목 등에 동제를 지내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산신제를 지낼 때는 농악을 치지 않고 하당 제의에만 풍물을 울리며 제사를 지낸다.

하당에 대한 제의는 마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길굿을 치면서 동네를 돌아 액운을 물리친 다음 마을 어귀로 가서 제를 지낸다. 특히 금산에서의 탐제는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마을굿(동제)인데, 제의는 유고식으로 진행되지만 축문이 끝나거나 소지를 올릴 때 또는 탐돌이를 하거나 망우리 불을 놓을 때 틈틈이 외마치, 두마치, 세마치가락으로 풍물을 치면서 조이고 푼다. 또한 탐제나 거릿제를 지내고 나면 집집을 돌며 지신밟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보름까지 이어지는 것이 통례였다. 지신밟기는 문굿, 마당굿, 정지굿, 장독굿, 샘굿, 터주굿 등으로 이어지는데 주로 외마치, 두마치, 세마치, 네마치, 다섯마치, 일곱마치 등을 간단히 치며 더러는 판굿을 치기도 한다.

(3) 걸립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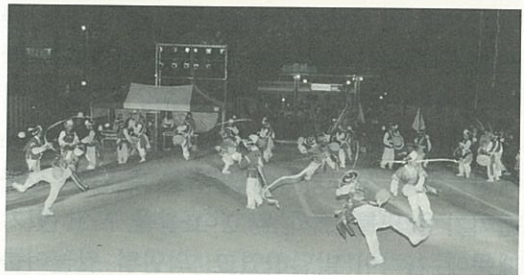
걸립은 난걸립, 뜯걸립이라 하여 마을의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전국의 염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악을 말하며, 축원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농악과는 구분된다.

걸립굿의 형식은 축원농악과 대동소이하나 동네의 형태를 벗어난 농악으로 당제나 탑제가 약화되어 흘립이 되고 걸립농악이 된다. 걸립의 기원은 일설에 의하면 아도화상이 직지사를 지을 때 도깨비로 하여금 밤에만 집집을 다니면서 걸립을 하게 하였다는 데서 연유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래서 직지사의 자금을 충당하였다는 데서 비롯되어 근세에까지 사미승을 주축으로 사찰을 중창 또는 충당하였다는 데서 비롯되어 근세에까지 사미승을 주축으로 사찰을 중창 또는 보수를 할 때 걸립을 하였다. 이 때, 사미승들이 풍물을 가지고 교구 내의 여러 사찰에 미리 과발을 보내어 그 절에 하루 또는 며칠씩 풍물을 치며 놀았다. 그러면 사중돈(공금)을 얼마씩 받고 스님 개개인은 사비를 냈다고 한다.

한편 이들이 농악을 치며 돌아올 때는 불교에서 쓰는 깃발 등의 꾸밈새가 화려하였고 흥겹게 놀았는데, 해방을 전후해서 어떤 굿패들은 절의 승인을 받아 절걸립을 했다. 이들은 절걸립과 민간걸립을 하는 전문놀이패 즉 뜯걸립패로 성장하였다.

(4) 물이굿

마을에 호랑이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횃불을 들고 치는 굿으로 짐승에게 위협을 주어 쫓아야 하기 때문에 자못 웅장하고 활달하게 친다. 때로는 사



냥을 갓을 때도 짐승을 몰기 위하여 쳤는데 현재 판굿에도 물이굿이 남아있다.

(5) 두레풍장굿

두레풍장굿은 기상, 아침식사, 집합, 일터로 출발할 때는 나발을 불고, 일의 시작, 논두렁에서 치는 가락, 논 안에서 치는 끝나고 나오면서 치는 가락, 장원길가락등이 있다. 농업의 생산악식이 변하면서 지금은 소멸된 농악이다. 금산에서는 일찍 쇠퇴하여 재벌매기 할 때 쳤는데 이는 피로를 풀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농악대가 논으로 들어가 밭으므로 써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노고를 잊고 쉽게 김을 매는 측면도 있었다고 하겠다. 때로는 논매는 소리와 함께 농악이 사용되며, 집으로 돌아올 때는 길굿 가락에 장단을 맞춰 흥겹게 춤을 추면서 소를 타고 오기도 했다. 김매기가 끝난 백중날이 되면 일꾼들은 밭을 씻고 호미를 씻는다는 의미로 호미세(호미씻이) 놀이가 한다. 이날은 동네에서 농사를 제일 잘지은 머슴을 장원으로 뽑아 머리에 땡땡이 넣쿨로 관을 만들어 씌워주었다. 그리고 소에 태워 샷갓으로 일산 삼아 받쳐주고 주인이 음식과 술을 내어 흥겹게 놀았다.

(6) 기우제굿

음력 하지가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 논이 타들어가면서 마을에서는 기우제를 지낸다. 날이 정해지면 마을 주민들은 강변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 농악을 치며 날굿이를 한다. 이 때 사용하는 농악은 일정한 가락이 있기 보다는 신을 노하게 하기 위하여 난잡하게

울리는데, 부리면의 농바우그시기와 같이 식기나 그릇을 사용하기도 한다.

(7) 명절굿

추석이나 단오, 칠석날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 농악을 치는데, 이때 사용하는 농악은 외마치, 두마치, 세마치, 네마치, 다섯마치, 여섯마치, 일곱마치 등이다. 농악을 치다 흥겨우면 판굿을 치거나 넓은 장소에서 합굿을 하기도 한다. 으레 이런 자리에는 뛰어난 상쇠가 판을 이끌기 마련인데, 예전에는 난장이 서는 일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8) 송계놀이굿

송계의 초장길 닦는 날 행했던 놀이를 말한다. 송계는 산림의 보호와 초장길 닦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기흥민중들의 자치조직이다. 예부터 산간분지에 위치한 금산의 자연마을 또는 몇 개의 동리 단위로 조직된 송계에서 수십 개의 마을이 결집해서 조직한 연합 송계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송계가 병존해왔다. 그런데 송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는 칠석이나 백중을 전후한 시기에 벌어지는 '초장길 닦기'였다. 송계놀이굿은 바로 초장길 닦는 날 작업을 마치고 여러 마을의 농악대가 벌이는 합굿, 곧 풍물싸움이다.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송계놀이 굿은 해방 전까지만 해도 일본순사들조차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세가 이루었으며, 각 마을의 초군이나 농악대 외에 수백명의 구경꾼과 장사치들이 몰려들어 늦도록 난장이 섰다.

내지리 단잡기

【유 래】

은산 내리지 단잡기는 단(丹)이라는 피부병이 발생하면 마을 주민 모두가 나서서 협동과 단결로써 병마를 물리치고, 이를 계기로 한마당놀이를 펼치는 민속놀이이다.

내지리 단잡기의 생성시기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은 백제말기부터 조상 대대로 실시해왔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단 귀신에게 '당나라로 속거천리하라'는 사설 내용이 있어 백제시대와 연관이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단은 단독(丹毒)이라고도 하며 피부에 붉은 반점 또는 흰 반점이 생기고 발병 부위에 42도 정도의 고열이 나는 병으로 마을과 집안에 부정(不淨)이 있거나 잡귀(잡신)가 침범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은 그 생김새와 형태에 따라 청단, 태단, 홍단, 백단, 흑단, 황단, 띠단, 녹두단, 팔단, 메밀단, 풍단, 두목광술단 등 12단으로 나누어진다.

단이 발병하면 침을 놓거나 배반, 콩깍지 태운 재를 바르는 등 각종 민간요법이 동원되었지만, 잡는 것이 제일 효험이 있다하여 예로부터 부정풀이와 함께 단잡기를 거행해왔다.

은산 내지리 단잡기 질병퇴치 의식이 민속놀이화한 예로서 괴질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을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이를 계기로 한마당놀이를 펼치는 등 지극히

낙천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민속놀이이다.

은산 내지리 단잡기는 지난 1995년 10월 충남 공주에서 열린 제36회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 1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예능 보유자: 이규찬)로 지정되어 보호 육성되고 있다.

【내 용】

■ 단 굿

단이란 괴질이 발병하면 먼저 부정을 풀어주는 굿을 하는데 법사가 독경을 한 후 무주대춤, 불춤, 칼춤을 차례로 춘다. 이는 잡귀를 몰아내고 단잡기가 잘되어 병이 쉽게 낫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 오곡건립

동네 풍장패의 징수가 단 잡으러 모이라고 소리치면 동네사람들이 환자의 집으로 모이는데, 이 때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쓰던 바가지와 지를 들고 모인다.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전령기 - 영기 - 오방기 - 당상관 - 전령 - 집행관 - 단기(소) - 단기(대) - 좌상 - 풍장패 - 지계꾼 - 동네사람 순으로 행렬을 지어 각성바지 다섯 집을 돌면서 오곡을 걸립한다. 이때 동네 샘을 만나면 샘굿을 하고 오곡을 걸립할 집 대문 앞에 이르러서는 문굿을 한다. 그리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풍장을 치고 덕담



을 하며 걸립굿을 한다.

■ 단잡기

동네사람들이 오곡을 걸립해오면 정성을 들여 오곡밥을 짓고, 당상관의 명령에 따라 단을 잡는다. 사령이 단을 잡아 절구통 위에 놓으면 오곡밥을 먹이고, 어명으로 곤장을 때려 결박한 후, 왼 새끼줄로 묶은 큰 항아리에 넣어 꼼짝 못하게 한다. 단의 종류가 12단이 있는데 이를 모두 잡는다. 만일 낫지 않으면 이러한 의식을 3일 동안 반복한다.

■ 땅굿놀이

12단을 모두 잡으면 당상관의 명령을 받아 목도꾼들은 단을 잡아넣은 큰 항아리를 들것에 메고 전령기 - 영기 - 오방기 - 당상관 - 집행관 - 목도꾼(좌우에 단기수) - 좌상 - 풍장패 - 동네사람 순으로 손 없는 방향으로 가서 땅속에 묻는다. 그리고 단의 잡귀가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위에 불을 피우고 동네 소리꾼이 액풀이 노래를 한다.

■ 액맥이놀이

땅굿놀이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은 환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단이 다 나은 환자로부터 감사의 절을 받고, 주인이 내놓은 오곡박과 음식을 먹는다. 이어 당상관은 환자에게 축원을 해주는데, 축원이 끝나면 동네 사람들은 환자를 평교자에 태우고 병이 완쾌된 기쁨을 함께 나누며 마당을 돌면서 신명나게 춤을 추고, 다시는 단이 마을에 침범하지 않도록 액맥이 놀이를 한다.

【단잡기 사설】

네 이놈 제1단 청단은 듣거라! 너는 인간 세상에 나와서 잡귀잡신 노릇을 많이 한다 허니 이 오곡밥을 거룩하게 적구충량허구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핏발과 단을 거둬 가지고 당나라로 한시바빠 속거천리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장두칼로 목을 베어 가지고 사비강 깊은 물에 처넣으리라!

네 이놈 두목 광술단아 들어 보아라! 이 덕건명대주에게 침범한 단들을 네가 모두 거둬 가지고 이 오곡밥을 적구충량한 후 한시바빠 당나라로 속거천리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두문방에 매장시켜 화형에 처하리라

아 흠 거 리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는 아흠거리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다. 서면 고북저수지를 가려면 연기교육청 앞으로 곧게 난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경사난 곳의 정상에 군립체육관이 있고 체육관 앞에는 군민현장탑이 있으며 현장탑과 체육관이 있는 곳을 “아흠거리”라고 부른다.

아흠거리는 아흠군데서 사람이 오는 길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여러군데에서 사람이 오니 자연 북적거렸다.

예전에 아흠거리는 백관 가는길, 독내동(현 죽림동) 가는길, 청거리(현 월하리) 시장가는길, 창뜰(현 쌍전리) 가는길, 뜰옥골(현 서면 연화사) 가는길, 방축골(현 봉산동) 가는길, 의랑터, 공동묘지(당시지명은 다르다), 새터(현 침산동) 가는길 이렇게 아흠갈래의 길이 있고 아흠거리 앞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다. 아흠거리 주막에는 다음과 같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청거리 시장이 제법 컸는데 이곳은 시장이 아닌데도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이 바로 아흠거리였다.

아흠거리는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장사꾼

도 있고 또한 바쁘게 한양길에 오르는 선비들도 있고 해서 항상 주막에는 사람들이 가득차 있었다. 청거리 시장은 오일장으로 장이 설 때만 사람이 많았지만 아흠거리는 평소에도 사람이 많았다.

어느 날인가 떠돌이 놀이패들이 주막 한쪽에 자리 잡고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먼저 풍장을 요란스럽게 치니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 몰려들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우선 신명나는 풍장 한마당이 연주 되었다. 구경꾼들조차 어깨가 들썩들썩 거렸다. 다음 재주 마당으로 넘어갈 때였다.

웬 가마 하나가 이곳에 당도했다. 가마꾼은 몹시도 소변이 마려워서 쉬었다 갈 겸 우선 뒷간에 들러 소피를 보고 구경꾼들이 모인 곳을 기웃거렸다. 그때였다.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가마가 당도하여 먼저 당도한 가마 옆에다 가마를 놓고 역시 가마꾼들은 참았던 소피를 보기 위해 뒷간에 갔다. 그리고 소피를 본 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 사람들을 해집고 구경을 하기 위해 안을 들여다보니 작고 예쁜 소녀가 때때뭇을 입고 부채를 가지고

밧줄 위에서 신기할 정도로 춤을 추고 있었다. 약사들은 그 옆에서 신나는 음악을 연주했다. 소녀의 재주가 끝나고 뒤에 오른 젊은 줄 끈은 줄 위에서 마치 생각대로 척척해내는 요술쟁이처럼 앉았다 일어섰다 뒤로 넘고 앞으로 넘으면 관중을 현혹시켰다. 가마를 메고 온 가마꾼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에 쏙 빠져 그저 잘하면 박수치고 신명나는 풍장소리에 어깨를 들썩거리다 정신 차려보니 빨리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같이 온 동료들 불러서 가마를 들고 출발했다.

나란히 놓여진 가마는 겉모양이 똑같았다. 표시한 것도 아니고 또 가마가 바뀌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그저 놀이패의 재주를 다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스럽다며 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먼저 출발한 가마는 공주에서 청주로 가는 가마로 여자 집이



갑자기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망하게 되자 그 집의 딸이 아름답고 품행이 단정하다는 말을 듣고 청주에 사는 친구가 하인을 시켜 몰래 여자만 데려 오라하여 가마꾼이 여자를 모셔가는 중이었다. 청주의 양반집에서는 공주에 사는 친구가 역적으로 몰려 딸만 데려다 아들과 혼례를 올려줄 계획이어서 아무도 모르게 데려 오라했다 어제 밤에 몰래 공주에서 출발하여 오늘 점심때쯤 이곳 아흠거리에 당도한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마는 강 건너 비룡수(현 금남면 용담리)에서 사는 여인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것조차 없는 집인데 딸 하나는 암전하고 총명하게 길러 전의에 사는 박부자집과 혼례를 치루려 하는데 남자집은 돈은 많으나 아들이 좀 모자라 중매가 들어오지 않아 가난한 비룡수 농부의 딸을 돈과 밭을 사

향 천 사

예산읍 향천리에 위치한 향천사(香泉寺)는 백제 의자왕 16년에 의각대사가 창건했는데 이 절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전 백제 말엽에 의각대사(의각화상이라고도 일컬음) 라고 하는 키가 7척이나 되는 건장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불도를 닦은지 오래여서 사려가 깊고 불도가 아닌 일은 행하지 않았다. 그 무렵 신라와 백제는 충돌이 잦아서 날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되었다. 성을 빼앗았다가는 뺏기고 다시 뺏기는 상황속에서 대개는 백제가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영리한 의자왕이 등극한 뒤에는 백제의 영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나라안의 정치도 잘하여 백성들은 그야말로 왕을 고맙게 여겼다. 의자왕은 모든 일에 자신이 있었다. 따라서 신라의 공격쯤은 언제나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러한 의자왕의 자신감은 지나쳐서 결국 교만해진 의자왕은 정사는 뒷전으로 한 채 주색에만 몰두하여 나라는 기울게 되었다. 그 즈음 의각화상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백제사라는 절에 잠시 머무른 뒤

당나라로 들어가 불도를 닦은 바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3년간 오직 불도에만 전념하다가 다시 백제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 그곳에서 스승으로 모시던 스님이 의각화상에게 석불을 가져가기를 권했다. 의각화상은 그의 뜻에 따라 배에 석불 3053불과 불경등을 싣고 백제로 향했고 불상을 실은 배는 순탄하게 지금의 신암면 종경리 앞바다에 도착했다.(지금은 종경리에 하천이 흐르지만 그때는 바닷물이 닿았다고 한다.)

‘어디에다가 부처님들을 모셔야 할까’ 의 각화상은 당나라에서 이곳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순탄하게 왔지만 막상 불상들을 모실만한 자리가 없어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불상을 모실만한 자리가 없는 줄 알았으면 그냥 올 것을 잘못했다고 후회를 하기도 했다. 그는 급기야 그곳에서 불상을 모실만한 자리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의각화상은 배를 그곳에 멈추어두고 예불을 드렸고 그러면서 그는 속히 불상들을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불공을 드렸다. 그러기를 3개월간이나 계속했다. 그때마다 의각화상은 당나라에서 가지고온 법종을 울렸다. 종소리는 아름답고

주고 데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니 두 가마의 두 연인은 지금 혼례를 올리러 가는 중이고 모양이 똑같은 가마이기 때문에 아홉거리에서 가마가 바뀌어도 서로 모르고 떠난 것이다.

먼저 도착한 곳은 전의 박부자 집이다. 박부자는 시골의 농부딸을 데려온다하여 분명 차림새는 패재재 할 것이라며 미리 좋은 옷과 목욕물을 준비하여 놓았기 때문에 여자 하인이 가마를 조심스레 열고 여인을 나오라고 했다. 그런데 가마에서 나온 여인은 옷이 깨끗하고 목욕을 하지 않아도 품행이 단정하며 아름답게 하고 왔다. 아마 비룡수 농부집에서 목욕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장만하여 보낸 줄로 생각하고 안방으로 모셨다.

바깥에서는 혼례상을 차린다 음식을 마련하느라 야단법석 이었다. 한편 다른 하나의 가마는 청주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늘 안으로 들어가야 내일 혼례를 치루기로 되어 있으니 아까 아홉거리에서 재주꾼들의 재주를 보느라고 빼앗긴 시간 때문에 빠른 걸음을 재촉하여 청주에 도착하니 저녁때가 되었다. 주인은 가마꾼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는 아무에게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한 번 강조하고 피곤 할테니 가서 쉬라고 하고는 여자 하인을 시켜서 가마안에 있는 여인을 준비한 방으로 모시라고 했다. 그런데 가마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 옷은 남루하여 여러번 껴뻐으며 목욕을 하지 않았는지 피부가 검었다. 그것을 보고는 혼자말로 “그 친구 역적의 누명을 쓰더니만 딸에게 남루한 옷을 입혀서 변장을 시켰구먼” 하고는 하인을 시켜서 목욕을 시킨 후 새옷으로 갈아 입혔다.

역시 다음날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가운데 성대히 혼례식을 치루었다. 세월이 흘러 공주에서 역적의 누명을 쓴 친구가 누명을 벗게 되었다. 그래서 흠어졌던 식구들이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청주에 사는 친구는 기쁜 나머지 며느리에게 “이제는 친정집에 다녀와도 좋다. 너의 집이 역적누명에서 벗겨졌단다.”하고 좋아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는 통 알아듣지를 못하는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 역적으로 몰려 마음고생이 심해서 대답을 못하는구나”하고 며느리를 가마에 태워 집에 다녀오라며 보냈다.

그때쯤이었다. 전의에서도 혼례를 마치고 모자라는 신랑과 신혼을 보내고 있는 새아기는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사실을 안 박부자는 집에 한 번 갔다오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하인을 시켜서 비룡수 친정에 다녀오라 했다. 그런데 가마를 타고 간 새댁은 깜짝 놀랐다. 우리집은 분명 공주에서 몇 번째 안가는 부자집이고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풍지박산 되기는 했지만 집이라 해서 간곳이 비룡수 어느 농부집이니 기가 막혔다.

비룡수 농부의 딸 또한 깜짝 놀랐다. 친정집이라고 간곳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가마가 바뀐 사실을 안 양쪽에서는 어떻게 수습해야할지 난감했다.

이렇게 복잡해서 생긴일이 아홉거리에서 일어났으며 그 후에도 연기군은 교통의 요지답게 경부선 철로, 국도 1호선, 고속철도 등 많은 교통이 설치되었다.

태안 마애삼존불(泰安 磨崖三尊佛) 과 경이정(憬夷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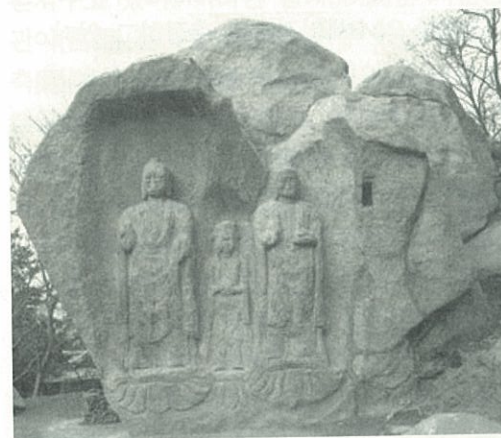
마애 삼존불(泰安 磨崖三尊佛)

【구 분】 보물 제 432 호 (1966, 02, 28 지정)

【소재지】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17-2

【시 대】 백제시대

【규 모】 높이 - 좌측여래상: 255cm, 중앙보살: 181cm, 우측여래상: 240cm



태안읍의 뒤편으로 태안의 진산인 백화산(白華山)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산의 정상부근에 백제시대(百濟時代)의 대표적인 마애불(磨崖佛)로 불리어지는 태안 마애삼존불(泰安 磨崖三尊佛)이 위치하고 있다. 높이 394cm, 폭 545cm의 동(東)쪽을 향한 암벽(巖壁)에 감실(龕室)을 조성하여 양각(陽刻-돌을 새김)되어 있다.

일반적인 삼존불의 배치형식은 중앙(中央)에 본존불(本尊佛)을 좌(左)·

우(右)에 협시보살(脇侍菩薩)을 배치하는 형식이나 이 마애불은 가운데 보살상(菩薩像)을 중심으로 좌(남)·우(북)측에 여래상(如來像)을 배치하고 있는 특이한 형식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불상 중에 전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형식이라 한다.

좌측의 여래상은 머리는 소발(素髮)이며 팽이 모양의 작은 육계(肉髻)가 표현되어 있고, 양쪽 귀는 크고 길며, 눈은 내려 뜬 모습으로 둥글고 풍만한 얼굴을 갖고 있다.



향토사 부도 ▲ 향천사 9층석탑



은은하게 강촌에 울려 퍼졌다. 그래서 이 마을을 종성마을이라고 일컫다가 차츰 종경리로 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각화상이 이곳에 머물러 예불을 시작한 지 꼭 석달 열흘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도 의각화상은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는데 어디선가 금빛 찬란한 금까마귀 한쌍이 날아와서 의각화상이 머무르고 있는 하늘에서 서서히 동그라미를 그리며 맴돌고 있었다. ‘금까마귀가 나타난 것은 상서로운 징조로구나!’ 의각화상은 이렇게 생각하며 불상을 모실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나타날 징조라고 생각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금까마귀를 주시했다. 금까마귀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점점 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더니 다시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지금의 금오산 봉우리에 앉았다. 그곳에 있는 우물로 내려와 물을 마시고는 오늘날 향천사가 있는 절터에 앉았다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산을 금까마귀가 살아온 산이라고 해서 금오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의각화상은 금오산 아래에 절을 세우기로 했으

나 배에다 싣고온 불상과 여러가지 물건들을 운반할 수가 없었다. 의각화상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안장을 짊어진 커다란 황소가 나타났다. 의각화상은 그 황소를 이용하여 불상을 운반하기 시작했다. 황소는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배에 싣고 온 물건과 불상을 날라다 주었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황소가 이처럼 힘세게 불상을 운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오산 봉우리 아래에 있는 우물의 힘이였다. 그 우물에서 향기가 나는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으며 황소는 이 향기로운 우물물을 마시면서 힘을 냈다고 한다.

의각화상은 그 우물터위에 절을 짓고 삼천이 넘는 석불을 모신 다음 절 이름을 향기로 운 물이 솟는 우물을 품고 있다하여 향천사라고 지었다. 한편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배는 그 자리에 가라앉아 버렸는데 그 후 그곳을 배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석불을 모신 불당은 천불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불상은 3053위 중에서 1035위만이 남아있다.

법(法衣)은 통견(通肩)으로 되어 있으며, 배 부분에는 띠매듭 모양과 'U'자형의 옷 주름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수인(手印)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의 모습으로 오른손을 들어 끝의 두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으며, 왼손은 합(合) 형태의 물건을 쥐고 손등을 바깥으로 내보이고 있다.

우측의 여래상은 좌측의 여래상과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나 수인에 있어서 왼손가락을 구부린 통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가운데 보살상은 부드러운 여성적인 이미지로 양쪽의 여래상보다 작은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머리에는 삼산보관(三山寶冠)을 쓰고 있으며, 꽃 문양 같은 장식이 있고, 양 옆으로 수식(垂飾)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법의는 아래로 쳐져 있으며, 무릎 부분에 띠 매듭 같은 장식을 볼 수 있다. 양손은 모아서 오른손이 위에 왼손을 아래로 포개고 있는데, 보주(寶珠) 같은 것을 쥐고 있다.

원래 이 마애불은 하부(下部)가 땅속에 묻혀있어 하부 구조(構造)를 알 수 없었으나, 1995년에 불상 하부를 발굴하여 연화대좌(蓮花臺座)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마애석굴(石窟)사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마애불은 중국(中國)의 석굴 외벽(外壁)에 세워진 불상들과 닮아 태안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중국의 문화가 백제와의 해상교류(海上交流)를 통하여 유입(流入)된 우리나라 최초의 예(例)로 보이며, 이 같은 양식(樣式)은 중국의 북제시대(北齊時代)에 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아, 이 마애불의 제작 연대를 약 6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이정(憬夷亭)

【구 분】 유형문화재 제123호 (1986, 11, 19 지정)

【소재지】 태안읍 동문리 573

【시 대】 조선 정종(定宗) 원년(1399)

【규 모】 넓이 - 47㎡(14평)

경이정(憬夷亭)은 조선(朝鮮) 정종(定宗) 원년(元年)에 창건(創建)되었으며 크기는 47㎡(14평), 목조와즙(木造瓦葺)의 누각(樓閣)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다.

장대석(長大石)으로 3~4벌 대의 기단(基壇)을 조성한 후 다시 1단(段)의 자연석(自然石) 기단을 놓아 2중(二重) 기단을 만든 후, 덩벙 주초석(柱礎石)을 놓아 원주(圓柱)



『경이정』

를 세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정면(正面) 3칸, 측면(側面) 3칸의 규모이며, 기둥사이에 난간을 들렀으며, 내부(内部)에는 통간(通間)의 우물마루를 깔아 놓았다. 공포(栱包)는 무출목(無出目)의 이익공계(二翼工系) 양식(樣式)이며 창방(昌枋)으로 결구(結構)된 전·후면(前·後面)의 기둥 사이에는 장화반(長花盤)을 각각 3구(具)씩 배치하였고, 양측면(兩側面)의 중앙칸(中央間)에는 2구(具)씩을, 그 좌·우칸(左·右間)에는 1구(具)씩을 배치하여 주심도리(柱心道里)를 받쳐주고 있다. 이러한 형태(形態)는 외관상(外觀上)으로 장엄(莊嚴)함을 보이기 위한 관아(官衙)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가구(架構)는 대량(大樑) 상부(上部) 양측(兩側)에 동자주(童子柱)를 세워 종량(宗樑)을 받치도록 하였으며, 종량 중앙에 파련대공(波蓮臺工)을 설치하고, 여기에 종도리와 뜬 창방을 가구(架構)하여 이중도리(二重道里)로 지붕의 하중(荷重)을 견디도록 설계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 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건물의 전면(前面)에 「경이정(憬夷亭)」이라는 현판(懸板)이 걸려 있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 중국(中國)의 사신(使臣)이 안흥성(安興城)을 통하여 들어올 때, 휴식을 취하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태안(泰安) 방어사(防禦使)가 군사(軍事)에 관한 명령을 내릴 때에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매년 정월(正月) 보름날 밤에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소를 잡아 제물로 올리는 재우제(宰牛祭)를 지내며 주민(住民)들의 안녕(安寧)을 기원하던 곳이라고도 전한다. 그러나 대한제국(大韓帝國) 융희원년(隆熙元年, 1907)에 이 재우제는 중단되었으며, 일본 강점기인 1925년 7월부터 1927년 6월말까지의 2년 동안에는 태안을 남문리 주민의 야학용(夜學用) 건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후 동네 주민들의 경로당(敬老堂)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미비한 보수(補修)로 퇴락(頹落)되어 가는 것을 1988년에 중수(重修)하고 새로이 단청(丹靑)을 입혔다.

경이정이라는 현판이 뜻하는 의미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의견들이 나뉘어 지고 있어 그 정확한 정의는 내릴 수 없다.

機池市 줄다리기

기지사 줄다리기는 약 450여년 전부터 시작된 역사 깊은 우리의 전통문화로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제 제75호로서 그 규모에 있어서도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큰 줄로서 수만, 수십만이 운집하는 대규모 민속축제이며 공동의 이익과 공동체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문화입니다.

줄다리기 시문

이곳은 우리 겨레의 자랑스런 얼이 담긴 機池市.

아득한 옛날부터 줄다리기로 이름난 고장.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언덕 국수봉 사당에 모여

나라의 태평과 고장의 풍년을 빌면서

너와 나 하나가 되어 줄다리를 하던 곳.

때에 숨기는 하늘에 나부끼고 줄을 다리는

의여차(義如且) 소리는 땅을 흔들었으니

이 정년 이 고장 사람의 精誠과 하늘의 뜻이 늘 함께

하였음이 아닌가.

틀못(機池)이란 베를 짜는 틀과 짠 옷감을 행구는

연못의 形勢가 같다해서 이름난 말.

이 고을 착한 사람들은 씨 뿌리고 가꾸어 부지런히 베를 짜다.

그리고 그것을 마전할 때 자질한 것을 서로 당기듯이

줄다리를 함으로써 나아가서 天時를 빌고

地利를 얻으니 인화 단결로써 나라 사랑의 기틀을 닦았다.

壯하다! 이 고장 사람들 바라건대 機池市

줄다리기의 자랑스런 이름이 이 겨레의 앞날에

평화와 단합의 영원한 등불을 밝히라.

서기 1983년 9월 4일

文學博士 金圓卿 지음

1. 줄다리기 유래

機池市 줄다리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한 기록이나 고증은 없고 지금부터 약 사백오십여 년 전부터 시행되었다고 전설로만 내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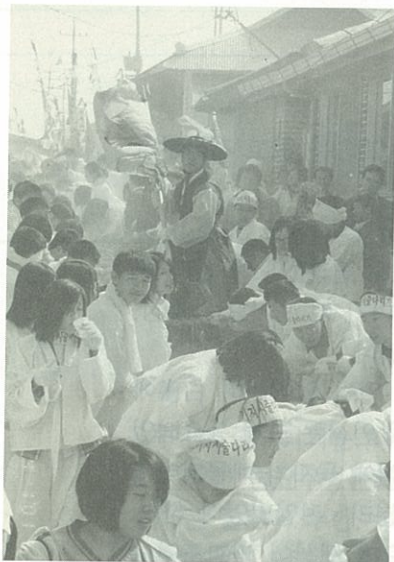
이곳 기지시는 唐津郡 소재지에서 牙山·禮山 방면으로 7km지점, 국도 32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다. 백제시대에는 沙平縣이었다가 興平, 海平으로 불리었으며 신라 景德王때에 新平縣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 穩城 沔洲로 改號하였다가 現 沔川으로 호칭, 唐津 沔川郡으로 폐합 되었고, 新平縣 당시에 新北面으로 되었다.

이 고을은 약 사백오십여 년전에 갖은 厄傷이 발생하고 큰 변이 일어나며 白晝에 맹호가 활동하는 등 괴변이 생기어 많은 인명 피해가 속출하여 인심은 크게 동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조 선조 초에 한나루(漢津港)가 하루밤 사이에 육지가 매몰되어 5개 면이 바다가 되고 7개 면이 인접군인 牙山, 平澤 등지로 분리·편입되었다 한다. 그 당시에는 17개 면이었다. 이 때에 많은 인명이 손실되었으며 재산이 파괴되었고 각종 괴질이 발생하여 만연되었으므로 민심은 더욱 동요되어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이리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공포와 실의에 빠져 수습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절망에도 기적이 있었다. 이곳 기지사(틀못시)는 沔川郡에서 順城面을 통하여 松嶽面을 경유, 漢津港을 이용 한양에 직통하는 官道로써 많은 과객이 왕래하여 통행이 붐볐다. 이 때에 이곳 시장은 한달에 열두장이 섰었다. 이 때에 각처에서 모여드는 과객 중에는 보부상 또는 풍수지리학자, 哲人들 간에 나온 전설이 있었다.

李士亭선생, 金福善 등의 偉人, 異人들이 남긴 전설이라고도 하나 기록이 없어 단정을 할 수가 없다.

전설의 내용은 기지사(틀못시)는 지형이 베틀 형국으로서 玉女織錦하는 형국이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윤달이 드는 해에 온 마을 주민들이 극진한 정성으로 당제를 지내고 줄을 다려야 모든 재난을 몰아내고 예방하며 태평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이때부터 뚜렷한 행사가 시작되었다는데 이를 다시 풀이 하면 옥녀가 베를 놓고 베짜는 형국이라 해서 베틀 기(機), 베를 짜는 데는 꾸리를 담그고 또는 잔베를 담가 우리고 하는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못 지(池)해서 機池市라 命名된 것이라 하며, 市字는 市場을 뜻한다. 줄다리기의 시초는 부녀자로 시발되었으며 삼베·짚·늑가리·침녕쿨 등으로 꼬아 소규모로 다렸다고 한다. 줄을 다리는 것은 베를 짜서 마전을 하는 것으로서 양쪽에서 다려서 마전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베를 짜는 데는 기간이 있으므로, 3년 隔하여 돌아오는 閏朔드는 해에 하는 것은 베짜는 기한이 완료되었고, 마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실행하는 것이다.

이곳 줄다리기는 장소는 典尺골이라 한다. 지면이 평평하고 장방형이어서 아주 안성맞춤이다. 그 후 점차 마을은 평온해지고, 재난이 방지되고, 虎患은 진압되고, 주민들은 기쁨을 되찾고, 그 효과가 점점 크게 나타났으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남녀 노소가 다같이 以心傳心으로 합심하여 내려왔다. 때로는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중단되면 또다시 큰 재난이 발생하여 동요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다시 복원을 하고 이렇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조선 26대왕 高宗 己巳年(1869년) 洋船이 九萬浦에 입항하였을 때 洋兵 수백명이 가야산 등지에 잠입하여 난행을 하여 국내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다. 각 처에서는 봉화가 울려지고 국수봉에서도 봉화를 올렸는데 그 봉화 때문에 야음을 타서 양병들은 달아났다고 한다. 그 후 더욱 극진한 정성으로 당제를 지내고 줄을 다렸다고 한다.

일설에는 玉女彈琴이란 설도 있다. 玉女峰 맞은 쪽에 명당이 있어 어느 조상의 묘를 썼는데 그 후에 그 자손이 크게 되어 역적이 나와서 나라를 망친다는 풍문이 나돌았다. 그래서 그 혈맥에다 쇠물을 꿰여 붓고 예방을 하고 줄을 다려 地氣를 누르기 위하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줄을 다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 일설에는 이곳이 지네 형국이고 당진은 鷄城, 즉 닭이므로 닭과 지네는 상극이라 만나면 싸우므로 지네와 같은 줄을 만들어 줄을 다려서 지기를 누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풍수지리상에는 지네 형국이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옥녀직금혈이란 설은 자연성이 가장 짙어 유래가 그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적병이 여러 차례 한나루 부근에 침입 상륙을 기도하였으나 한나루 앞바다에 우뚝 솟은 靈雄巖 德仁巖을 큰 군함으로, 그리고 부근에 흩어져 있는 암석들을 부속선으로 오인하여 스스로 물러갔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러한 亂時일수록 줄다리기는 더욱 확대·강화되었다. 이 지방 주민들은 남녀 구별없이 합심 협력하여 계속해 왔다.

일제치하에서는 민심의 단결을 두려워한 일제의 갖은 박해와 압력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환이 또 바로 일어나, 다시 복원하여 행사는 더욱 활발하였다 한다.

2. 행사내용

기지사 줄다리기는 행사규모면에서 볼 때 많은 인원과 장비가 필요하므로 재원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매 윤년에는 대제행사로, 평년에는 소제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줄제작

윤년 대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행사 1년전부터 준비에 들어갑니다. 벧짚구입계약에서 장비점검 등, 줄제작 기간만도 1개월이상 30명의 인부가 매일 작업을 해야하며 큰 줄 제작시에는 1천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잔치를 벌입니다.

줄의 규모는 암줄 100m, 솟줄 100m, 합계 200m로서 두경의 둘레가 1.8m정도이며 무게만도 40여톤에 이르고 여기에 들어가는 벧짚만도 약 3만속의 짚이 소요됩니다.

나. 전야제(축원행사)

· 당제행사

기지사 줄다리기는 축원행사 중 가장 핵심적 상징인 유교, 불교, 민속신앙 등 3대 종교가 한자리에서 습합축제를 올립니다.

유교의식의 초헌관은 지역에서 덕망과 신망이 있는 분으로 모시고 이헌관, 종헌관도 보존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제례의 목적은 士者登科(선비는 과거에 급제), 商者得利(상업하는자는 적당한 이득), 農者得豐(농사짓는자는 풍년농사), 病者得蘇(병이 있는 자는 소생), 織錦順調(베를 짜는 자는 순조로운 직조), 富國強民(부강한 나라, 강한 국민), 歲和亨通(평화로운 나라의 태평)을 비는 것이며 근내에는 평화통일의 문구도 넣어서 축문에 올리고 지역주민들도 정성껏 소지를 올립니다.

두 번째로 불교의식은 인근의 신암사, 대성사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극진히 축원을 드리고 세 번째는 무속신앙협회에서 많은 무속인들이 참여하여 금줄을 치고 전통민속신앙의 판굿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 용왕제행사

국수봉 사당에서의 국수당제가 끝나면 제례행렬이 마을의 대동우물로 내려와 당제행사와 같은 유교, 불교, 민속신앙의 3도 습합축제를 올리며 식수의 풍족과 농업용수의 풍족으로 농사일이 순조롭기를 추가로 기원드립니다.



· 시장굿

용왕제 행사가 끝나면 제례행렬 중 민속신앙의 무녀들이 시장한복판에 모여 기지시 시장의 융성발전을 위한 판굿이 이어지며 이때 모든 상인들이 모여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민속놀이

이렇게 전야제 행사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부터 풍물경연대회, 장사씨름대회, 궁도대회, 그네뛰기,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시조경창, 민요경창 등 우리의 전통민속놀이가 이루어지며 특히 대제행사기간에는 배짜기 대회가 이루어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경기가 이루어 집니다.

라. 줄나가기

마지막날 아침이 되면 각 마을에서 농기를 앞세우고 풍물패가 뒤따라 오며 이곳저곳에서 수도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이때 모여드는 농기수만도 백여기에 이르며 풍물패의 농악소리 또한 천지를 뒤흔드는 듯 장엄하기 그지 없습니다.

각기 자기마을의 명예를 걸고 줄다리기에 이기고자 수상, 수하 각기 자기편 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 길놀이(줄나가기)

그동안 정성들여 제작된 줄을 줄다리기 장소(흥척동)로 이동하는 광경입니다.

수상(숫줄)줄이 두목의 선창신호에 따라 의여차, 영차, 의영차(의롭게 가고 또가는 뜻) 소리에 맞춰 한발짝 한발짝 씩 흥척동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하(암줄)줄이 뒤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줄이 움직이면 바람에 의하여 흙먼지가 하늘을 향하여 용솟음 치듯이 올라갑니다.

이 광경이 웅(줄)이 하늘로 승천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 비녀장끼우기(음, 양의 결합)

이렇게 2시간여의 길놀이가 끝나면 비녀장 끼우기가 진행됩니다. 비녀장 끼우기는 암줄과 숫줄을 연결하는 광경으로 음과 양의 결합, 만물의 생성의 의미가 내포되어있는 엄숙하고 장엄한 광경입니다.

만물의 생성의 원리는 음양의 결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줄다리기 역시 양(숫줄)과 음(암줄)이 결합되어 알찬 결실을 맺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줄다리기(대화합의장)

이렇게 연결된 줄은 물위줄, 물아래줄 할 것 없이 어느새 결줄을 풀어 가지줄을 붙잡고 수천, 수만명이 줄다리기 신호만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장엄한 북소리가 신호를 울리면 각기 자기가 잡은 줄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다립니다.

승부는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20~30분쯤 지나면 수상, 수하 어느쪽이든 약간의 판결을 할 수 있어 승부가 결정납니다.

이때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의 구별없이, 사는곳에 구별없이, 남녀노소 구별없이, 나와나 하나가 되는 대화합의 광경입니다.

마. 줄다리기 속신

· 옛날부터 물위가 이기면 나라가 태평하고 지역이 평온하다고 하였고, 물아래가 이기면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잘산다고 하여습니다.

· 음양이 결합된 부분(비녀목으로 연결된 곳)의 줄을 너도나도 앞다투어 뜯어가는데 이것을 맑은 물을 붓고 정성껏 다려먹으면 병자는 소생하고 아기 못 낳는 여인은 임태하여 득남을 하고

· 자기가 다린 줄을 가져다 지붕위에 얹어 놓으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여 집안이 평안하다하며

· 군색드는 해에 줄을 다리면 다음 군색드는 해까지 무병장수한다 합니다.

· 다린줄위에 누워 허리운동을 하고 그 줄을 달여 먹으면 요통에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바. 맺음행사(뒤풀이)

줄다리가 끝나면 이긴편 마을에서 추첨을 통하여 시상을 하는데 1등에 당첨된 동네에는 황우 1두를 부상으로 수여하며 이황우는 해당 동리에서 공동재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는 승부에 집착하기 보다는 줄다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동질감과 향토애를 불러 단합을 이루며 오락적인 기쁨과 생존차원의 욕구를 함께 추구하

는 신앙성을 띠고있는 귀중한 미풍양속인 것입니다.

사. 앞으로의 발전방향

- 기지시 줄다리기는 단순한 민속놀이 차원을 넘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화합단결의 상징으로서 내포문화권에서 대표적인 민속 축제입니다.
- 또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며 국태민안과 시화년풍을 비는 내포민들의 삶의 의지의 표현이 함축되어 있는 국가 지정 중요 무형 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연혁

년 도	월 일	행사 및 활동실적
1971	3.28~3.31	대제행사(추진위원장 장상순) 기지시 줄난장
1973	12. 26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35호 지정장 수령
1974	3.27~3.30	대제행사(추진위원장 김성근) 기지시 줄난장
1976	3.24~3.28	대제행사(추진위원장 이우영) 기지시 줄난장
	8. 4	충남 무형문화재 제35호 지정기념탑 건립(기지시서편) 당진군수 김영석, 추진위원장 이우영
	10.16~17	공주(공산성), 대전(공설운동장)백제문화재 줄제작 시연시범 참가
1979	3.26~29	대제행사(추진위원장 이우영) 기지시 줄난장
	7. 3	충청남도 지방민속자료 제2호로 승격, 지정장 수령
1981	6.28~7.2	KBS주관 국풍 81행사에 원형줄제작 참여시연(서울여의도)
1982	3.25~28	대제행사(추진위원장 이우영) 기지시 줄난장
	6. 1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지정장 수령 이우영
1983	9. 4	소제행사, 국가지정문화재 기념탑건립(기지시동편) 당진군수 박승선, 추진위원장 이우영
1984	3.31~4.3	대제행사(추진위원장 김좌영)
	11. 2	학생의 날 행사(효창운동장)에 줄제작 참가
	1. 10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단체 구성(보존회장 이우영)
1987	3.26~29	대제행사(추진위원장 강중환)
	10. 30	충청남도 도민체전 식전공개행사참여 (대전공설운동장)

년 도	월 일	행사 및 활동실적
1990	3.30~4.2	대제행사(집행위원장 유위영)
1992	9. 1	충청남도 도민체전 식전공개행사 참여 (공주공설운동장)
1993	3.26~29	대제행사(집행위원장 강중환)
1995	3.28~31	대제행사(집행위원장 강중환)
1998	3.29~4.1	대제행사(집행위원장 강중환)
1999	3. 1	전통민속 대보름맞이문화대축제 행사에 줄제작 참여 (국립민속박물관주최)
2000	2. 20	남북통일기원 국민화합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국립민속박물관)
	3. 14	문화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장 감사패 수상(관장 이종철)
	6. 6	보유자(인간문화재) 이우영 선생 작고
	5. 18	신성대학 개교 5주년 축제행사 줄제작 시연지도
	10.29~11.2	서해대교 개통기념축제행사 기지시 줄다리기 원형줄제작시연 충청도, 경기도 화합줄다리기 (서해대교 사장교)
2001	3.29~4.1	대제행사(보존회장 김기호)
	4.15	천안북일고등학교 학생축제 행사줄제작 참가 시연지도
	4.28	온양문화제 줄제작지도 및 시연지도
	6.1	신규교육보조자 지정 유위영, 구본원
	9.6	시규보유자지정 장기천, 구자동
	9.20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탑 건립(흥척동)
	10.10	제82회 전국체육대회식전공개행사(대동마당)줄제작 참여시연 (천안백석경기장)
	12.12	중앙대학교 의혈 축전행사줄제작 시연 연출지도
	12.20	전국체전유공 공로패수상(충청남도교육감 강복환)
2002	4.28	온양문화제 줄제작 및 시연지도
	6.15~16	2002국제월드컵국제축구대회 문화축전공연 줄제작 및 시연 (대전엑스포)
2003	2.10~14	일본카리와노줄다리기초청 방문단 방일(단장 구자동)
	3.2~3.2	소제행사
	8.4	국수봉 산신각에 산신도봉안(고유제) 이동형 소형줄제작(줄고사)

정산 서정리 9층 석탑

- 정산 서정리 9층석탑
- 소재지 :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녹야평 일명사지
- 지정번호 : 보물 제18호

이 9층석탑은 1920년대에 조사되어 보고되었다. 정산면 서정리 곧 정산에서 공주로 가는 도로변 북쪽 전담 속에 황강암조 방형구층탑(花崗岩造 方形九層塔)이 서있다. 이 일대는 녹야평 이라 속칭하는 곳으로 사지(寺地)이다. 1934년 9월 18일에 국보 제29호로 지정되었다가 1963년 1월 4일 문화재를 개편 재지정에 의하여 보물 제18호가 되었다. 이 서정리 9층석탑의 구조와 양식은 다음과 같다.

지대석(地埜石)위에 하층기단이 놓여있는데 중석 각면에는 2구씩의 유려(流麗)한 인상(印象)이 배치(配置)되었다. 그 위에 상층기단이 놓였는데 사목판석(四牧板石)으로 짜인 장대한 중석은 사우주에 각면 일탱주가 표시되었고 그 위에 넓은 판석으로 된 갑석을 덮었으니 곧 중기단(重基壇)을 형성하였다. 탑신은 총9층인 바 중기단 위에 고준(高峻)한 모습으로 융립하였다. 사우주가 각출된 옥신과 “옥계석받침”이 표출된 옥계석이 중첩되었다. 특히 제1층은 거대하나 제2층이상

감축 되어 9층에 이르는 다층탑의 균형을 잡은 모습과 창공에 준발한 장관이 훌륭하다. 상륜은 결실되었는데 기왕에는 창주에 상륜이 경영되었던 것으로 그 간공이 잔존하고 있다. 탑의 체모, 안상의 수법, 기단의 결구 방식 등은 모두 고려의 양식경향으로 차 차는 고려초의 소견으로 추정된다.(총고6m)

이 9층석탑은 1920년대의 조사 당시도 그 상부가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 안정감을 상실하고 지대석과 기단부가 어긋나 있었으며 총 9층탑신의 내부에 들어있는 사리용기가 드러나 보이었다 한다. 이와같은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1965년에 이르러서 이 석탑을 해체수리하였다. 이때 그 수리공사를 당시 부여박물관장인 홍사준이 감독하고 황수영 교수가 입회하였다. 그 보수 경위와 입회 사실을 『고고미술』 제6권 제12호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청양정산 9층탑의 보수

청양 정산면 서정리 탑보수공사는 21일에

충남문화재

충남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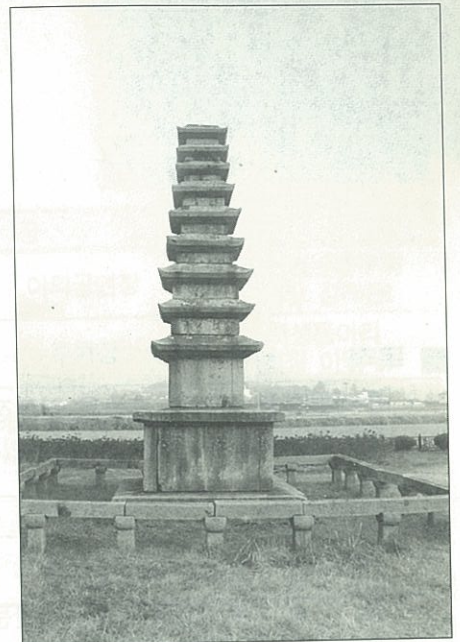
첫째날 : 10월 11일 (토)

시간 : 11:00~17:00

장소 : 본지전시회

시간 : 11:00~17:00

장소 : 아나비디 박물관



완료하였다. 석재는 정산에서 10리 외에서 운반한 것을 알겠고(고노담에 동십리에 이같은 석재가 있다함) 치석도 매우 곱게 하였으나 탑 의신부 층부가 균형을 잃어서 적석에 곤란을 받았고 박김철편이 비교적 많이 들었다. 옥계석의 상하를 이 사선을 갖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면이 동일척수가 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기단 대석도 전면만1석을 보유 기 타석은 엇물리어 배석하였고 안상문은 남 북면에 좌우로 있으나 동면은 안상내 화문이 셋 서면은 1개가 부족하였다. 지대석은 높이 30.5cm내외로 되어 있다.

■ 청양정산 9층석탑의 사리공

11월 15일에 착공되어 해체가 이루어졌다. 이 탑에서는 사리장치가 기대되어 왔으나 상층기단갑석의 상면중앙부에 청동파편(대소 약20편) 만이 남아있어 수년전에 도난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사리공제1탑신 하면중앙에 안으로 얇은 1단의 턱을 돌린 원공(경14cm 깊이 15cm)으로서 파편으로 미루어 청동원통형기가 장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장치방식에 대하여 부근 주민들은 『철주』가 수년전까지 들어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공사중 하사(좌서양각) 라는 명평와편

이 발견되었는 바 속칭 『녹야탑』이라고도 한다. 이공사의 감독관은 홍사준씨이다.

정산 서정리 9층석탑은 그 특이한 사함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탑으로써 9층이란 다층탑을 조성한 점이다. 대체로 석탑은 3층탑이 가장 많고, 5층탑에 이르러서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고 7층탑은 그 예가 근소하다. 9층탑은 타예로 보기어려운 극히 희귀한 탑이다.

둘째, 이 석탑은 9층에 달하는 다층탑인데도 그 석탑의 체모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구조상 다층탑으로서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곧 광평한 2중기단위에 장대한 초층탑신(5단급 옥개받침)을 놓고 2층 이상은 특별히 감축된 저평한 탑신(3단급 옥개받침)의 중적으로서 (하관상축)의 경쾌감을 주는 석탑이다.

제7회 추사문화제

■ 목적

- 추사김정희 선생의 드높은 서예정신을 계승 발전
- 지역문화축제로 발전시켜 특색있는 향토문화 축제로 정착

■ 행사 개요

- 기간 : 2003. 10. 11(토) ~ 10. 12(일) <2일간>
- 장소 : 추사고택 일원, 예산문화원구내, 예산군 학생체육관
- 주최 : 예산문화원
- 후원 : 문화관광부, 충청남도, 예산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추사문화재단
- 주요내용
 - 공식행사 : 제7회 추사문화제 전야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제
 - 본행사 : 제14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
 - 학생대회 :
 - 제8회 학생품물겨루기대회(초·중·고)
 - 제9회 어린이사생실기대회(초)
 - 제5회 학생서예대회(초·중·고)
 - 제5회 학생글짓기대회(초·중·고)
 - 부대행사 :
 - 제10회 열린분우회 분재전시회
 - 아나바다 벼룩시장 - 문화원 동아리(발자국)
 - 어린이 영화상영 - 고양이의 보은
 - 가족 인형극 - 삼색주머니
 - 추사목각, 영인본, 백일장수상작, 학생미술수상작전시회-전통공예
 - 추사서화 탁본체험 - 문화학교 서예교실
 - 작은음악회 - 문화원 음악동아리 (풍물)
 - 학생실기대회
 - 추사서예백일장 초대작가 간담회



■ 일정별 행사

● 첫째날 : 10월 11일 (토)

시 간	행 사 명	장 소	주 관
11:00~20:00	분재전시회	야외공연장	예산열린분우회 (회장 김계환)
11:00~17:00	아나바다 벼룩시장	주차장	학생동아리 (회장 이택우)
13:30~18:00	제8회 학생품물겨루기대회	예산군학생체육관	풍물패아사달 (회장 우제풍)
13:00~17:00	어린이 영화상영	공연장	(주)씨엔피
17:00~17:50	가족 인형극	특설무대	서울인형극회
18:30~22:00	제7회 추사문화제 전야제 영상음악회, 추사가요제	특설무대	(주)미음

● 둘째날 : 10월 12일 (일)

시 간	행 사 명	장 소	주 관
11:00~10:30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제	추사묘	한학반 (강사 전용국)
10:00~17:00	제9회 어린이사생실기대회	추사고택	학생동아리 (부원장 이진아)
	제5회 학생서예대회		서예반 (회장 박은순)
	제5회 학생글짓기대회		한학반 (성백식, 조병린)
11:00~15:00	추사 서화 영인본 작품전		전통공예동호인회 (회장 방성호)
	추사 목각 작품전		봉대민속공예 (대표 정봉기)
	추사서예백일장 장원작품 전시회(1~13회)		한국화반
	어린이사생실기대회 수상작품 전시회(1~8회)		"
11:00~15:00	추사서화 탁본체험	추사묘	학생동아리
11:00~18:00	제14회추사추모전국서예백일장	특설과장	이사회 (부원장 이주원)
12:00~14:00	추사초대작가 간담회	백송식당	"
14:00~15:00	작은음악회(풍물)	추사고택	민족음악원, EXTI

지역문화축제 '한우리'

주민의 참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홍성군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들과 문화원 문화강좌 수강생, 청소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평소 준비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발표를 하는 한마당 잔치의 행사 한우리.

군내 문화예술단체들의 단합과 활발한 창작활동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의 한 부분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군민화합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우리' 축제는 사진전시와 서예작품전시, 미술전시, 지승공예작품전시 등 각종 전시회와 보디페인팅, 옹기 만들기, 판화탁본 찍어주기, 종이 접기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보는 체험과 청소년태권도 시범, 시조공연, 댄스스포츠시범, 상여놀이, 트럼펫공연 등 우리 고유음악과 춤, 놀이를 비롯해 서양음악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산공원내 푸른쉼터는 홍성주민들이 편하게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약간의 운동도 할 수 있으며 행사시 자유롭게 앉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한우리 행사를 열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이다.

몇 년째 이어지는 한우리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에 이어 일반 주민들의 작품과 공연 등을 발표함으로써 문화생활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문화인으로서의 성숙함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예작품전시와 미술전시, 지승공예작품전시들은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동시에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아 자신들의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보디페인팅, 종이 접기, 옹기만들기 등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경험해봄으로써 문화를 이끌어갈 그들에게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전승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의 자리가 되리라 믿는다.

청소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태권도시범, 시조공연, 사물놀이 등은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이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에 따른 현상이 문화생활을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충남문화 143

요즘은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하는 시대인 만큼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살려 무언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생활에 바쁜 주민들을 열린 문화공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란 쉽지 않은 문제다. 너무 우리 것으로 치우치지도 외국 것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문화행사를 접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수준 높은 축제를 원한다. 그런 주민들이 뜻을 고려하여 만든 행사가 바로 한우리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오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문화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려지게 마련이다. 그런 문제점을 없애고 사람들의 뇌리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축제의 새로운 발상을 찾고 있다.

가흔 써주기는 정신적으로 빈곤한 가족들의 현 상태를 화폭한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가족이란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기억시키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공연과 작품전시외에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나 그 외 단체들의 발간 책자를 전시하여 홍성의 역사와 유적에 관심을 갖게 하고, 문화적 감성을 일깨워 주도록 하였다.

전시코너에 모여든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책자를 집어들고 유심히 쳐다보고 읽어보면서 그동안 모르던 홍성에 대해 알아 가는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홍성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고향을 잘 알지 못했던 주민들은 자신들의 고장이 한용운선생, 성삼문선생, 김좌진장군, 최영장군 등 역사에 길이 남을 분들이 태어나셨다는데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돌아가는 주민들 발걸음에는 홍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결실인 지역문화축제 '한우리'에 참여한 즐거움과 지식의 얻음을 주렁주렁 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행사이다. 또 단지 행사를 관전하는 것만이 아닌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존심으로 행사 정리까지 도와줌으로써 홍성 주민들의 열린 마음과 건강해진 마음의 자리였다.

일개 하나의 행사가 아닌 홍성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나가는 지역문화축제 '한우리'가 앞으로도 더 성장해 굳건한 자리 매김 하길 기원한다.

단오절 민속축제

1. 단오의 유래와 풍속

단오는 일명 수릿날(戌衣日·水瀨日),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午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단오는 '단(端)'자는 첫 번째를 뜻하고, '오(午)'는 다섯의 뜻으로 통하므로 단오는 '초닷새'를 뜻한다. 중오는 오의 수가 겹치는 5월 5일을 뜻하는 것으로 양기가 왕성한 날로 풀이된다.

음양사상(陰陽思想)에 따르면 홀수를 '양(陽)'의 수라 하고, 짝수를 '음(陰)'의 수라 하여 양의 수를 길수(吉數)로 여겼다. 예컨대 전통사회의 절일(節日)로서 설(1월1일)·삼짇날(3월3일)·칠석(7월7일)·중구(9월9일)등이 있는데, 이러한 속절은 양수(陽數)를 길수(吉數)로 여기는 기수민속(基數民俗)등이다. 이러한 기수민속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는 조선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5월조의 기록에 전한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날 썩떡을 해 먹는데, 썩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며 또한 수리로 떡을 해 먹었기 때문에 '수리'란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또 수리란 고(高)·상(上)·신(神)등을 의미하는 우리의 고어(古語)인데, '신의날', '최고의 날'이란 뜻에서 불리워졌다고도 하며, 일설에 의하면 단오의 유래와 더불어 중국의 초(楚)나라 사람 굴원(屈原)

이 수뢰(水瀨)에 빠져 죽었다하여 수릿날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또한 단오날 풍속으로 여인들은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다.

창포란 물가의 습기 찬 땅에서 잘 자라는 잎이 은갈고 뽀족한 수초로 초여름에는 노랑빛깔의 꽃을 피운다. 여인들은 이 창포를 캐다가 물에 삶아 그 물로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한다. 그리고 이 날에 남자들은 씨름을 하며 즐긴다.

2. 아우내 단오절 민속축제의 현황

제21회 단오절 민속축제는 2003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구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우리의 대표적인 민족예술을 그대로 보존하여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 시키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시적인 행사 추진으로 주민의 화합과 각8개(읍)면 특산물을 행사기간 내내 전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기미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의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던 아우내장터에서 그 애국정신을 기리고 역사의 현장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행사는 이틀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첫째 날인 6월 4일에는 오전 9시부터 행사가 시작되어 오후 5시 30분에 종료되었다. 오전 9시부터 9시 50분까지는 농악놀이 및 사물놀이 공연이 있었고,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개회식이 있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염창순 국악단의 시민위안공연과 코미디언 배삼룡의 특별출연이 있었다. 그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노래자랑이 있었고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시상식이 있었다. 둘째 날인 6월 5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씨름과 그네뛰기의 개인전이 있었고, 8시 10분 부터는 시상식이 있었다.

1) 행사의 흐름

■ 농악놀이·사물놀이



▶ 농악, 사물놀이(병천고등학교, 사물판굿)

첫째날인 2003년 6월 4일 행사 하기 직전에 행사를 널리 홍보하고 풍년과 국민대안을 기원하기 위해 병천고등학교의 농악대가 풍악을 울리며 일제시대에 항일운동을 벌렸던

아우내장터 일원을 돌았다. 농악대는 아우내 문화원 앞에서 악기를 치며 출발하여 행사장인 중앙의원과 시장통의 병천의원을 거쳐 병천 단위농협까지 갔다가 진천가는 길과 수신가는 길을 거쳐 대회장으로 돌아와 식전행사로 농악놀이를 하였다. 이 농악놀이를 통해 축제의 분위기가 북돋아 졌다.

■ 개회식

아우내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의 개회식은 6월 4일 10시 3·1운동의 열이 서린 아우내 장터에서 관내기관장들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식순

▼ 아우내문화원장 조성민 대회사



▼ 선수선서(선수대표 조남분/천안시병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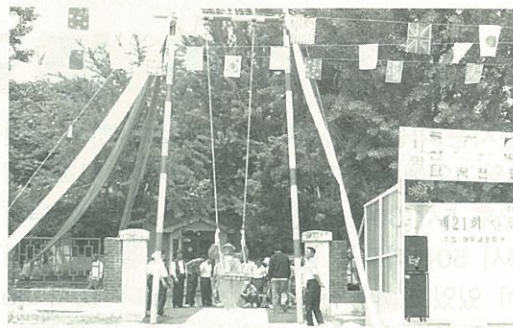
으로 처음에는 참석자 모두가 국기에 대한 국민의례가 있었다. 이어서 조성민 아우내문화원장이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가지는 의미와 의의를 담은 대회사를 하였고, 성무용 천안시장의 격려사를 신공현 천안시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하였다. 그 다음은 조남분선수가 각 8개읍(면)의 선수대표로 나와 주민의 화합과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에 입각하여 정당당당하게 경기에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선수 선서가 있었다.

■ 민속놀이 경연대회

민속놀이경연대회는 시장 광장에 마련된 특설 경기장에서 총 8개(읍)면 목천읍, 동면, 광덕, 풍세, 수신, 성남, 병천, 북면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경기가 치루어졌다. 경기종목으로는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민속놀이인 그네뛰기·팔씨름·줄다리기·널뛰기 등의 4개 종목으로 나누어 개인전 혹은 단체전이 벌어졌다. 더불어 노래자랑이 번외격 형태로 치러졌으며 참가 선수들이 우승을 놓고 각축을 벌였다. 각 종목별 실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네뛰기

그네뛰기는 각 8개(읍)면에서 각각 남자 1명, 여자 2명의 3명씩 출전하여 단체전을 치루었다. 참가자격은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우리전통적 민속의 취지를 잇는다는 명분하에 남녀 각각 한복을 착용해야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경기방법은 각 팀의 3명이 5분동안 뽀뽀 높이로 합산하여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그네뛰기

이와 같은 경기방법은 최근까지 민속놀이 경연대회에서 여성만 참여하던 그네뛰기를 활성화시키기위해 근자에 들어 남성 1명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 관객들만이 그 주를 이루었던 그네뛰기도 남성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여성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남성들의 기피가 되어 왔던 그네뛰기에 역동성이 가미되게 되었다.

경기결과는 수신면이 제일 높이 뛰어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 팔씨름

팔씨름은 8개(읍)면에서 면당 남자 1명 여자 2명이 출전하여 단체전을 치루었다. 경기방법은 토너먼트식으로 3전2승제를 채택하였으며 경기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다. 경기결과는 목천읍, 북면등이 우의를 떨쳤으며 순위에서 목천읍이 1위를 차지하였다.

▼ 팔씨름



▶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8개(읍)면에서 각각 남자 5명, 여자 15명의 총 20명씩 대거 출전하여 단체전을 치루었다. 경기방법은 토너먼트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참가단체 모두 승부욕이 매우 강해 경기가 아주 재미있게 벌어졌다. 경기결과는 동면이 뛰어난 기량을 펼치며 1위를 차지하였다.



▲ 줄다리기

▶ 널뛰기



▲ 널뛰기

널뛰기는 8개(읍)면에서 팀당 여자 3명씩 한

복을 착용하고 출전하여 경기가 벌어졌다. 경기의 방법은 토너먼트방식으로 단체전으로 치루었으며 경기도중 3분내에 높이 뽀뽀 선수를 우선으로 하고, 경기중 떨어지거나발위에 표시된 선을 넘었을 때는 실격으로 처리하였다. 진행은 본원 임원인 강수원, 김세영 이사가 하였으며 수상단체를 1위(목천읍)부터 4위(광덕면)까지 가려내었다.

■ 국악단 초청공연

올해 아우내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염창순 국악단이 초대되어 경연대회의 흥과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염창순 국악단 공연은 시민을 위한 공연으로 코미디언 송해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국악인인 오후례의 다수는 한복을 곱게차려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조상들의 얼과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담백 깃든 민요와 부채춤을 선보였으며 특히 올해는 코미디언 배삼룡의 특별출연으로 관객들의 흥이 고조 되었고 익살맞은 각설이 타령의 품바공연과 신인가수 박미정들의 열창으로 한마당 놀이판의 흥겨운 모습이 아주 이상적이었다.

▼ 염창순 국악단 시민위안공연



『호녀심청』의 근기설화로 추정되는 관음사 사적기

■ 서 언

고대소설 심청전(深靑傳)은 약1700년전에 지금의 예산군 대흥면에서 있었던 효행(孝行)이 승가(僧家)에서 구전(口傳)되어 오면서 여러종류로 작품화 되어 왔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심청은 서기 300년경 백제시대에 지금의 예산군 대흥면에서 출생하여 아버지의 젓동냥으로 성장하더니 16세까지 맹인 아버지를 봉양하다가 금강불사(金剛佛事)의 인연으로 부처님께 바친 몸이 되어 홍법사(弘法寺) 화주승(化主僧) 성공스님(性空大師)을 따라가던 중 피로에 지쳐 바다가 보이는 소랑포(蘇浪浦)에서 쉬게 된다. 마침 같은 때에 황후(皇后)께서 붕거(崩去)하여 늘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국 진나라 황제의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성상(聖上)의 새 황후 되실 분이 이미 동국(東國) 백제에 탄생하여 장성(長成)하였고 단정(端正) 하기로는 전 황후보다 더 하시니, 이미 가신 이를 생각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라고 현몽하므로 성상은 “동국으로 달려가서 황후를 맞이하라.” 했고 사자(使者)가 폐백(幣帛) 4만단(四萬端)과 금은진보(金銀珍寶)등을 갖추어 동국으로 달려와서 사자일행 또한 소랑포에 이르러 그곳에서 심청과 화주승을 만나게되니 상(相)을 잘 보는 상사(相使)에 의해 심청이 발견되어 바다를 건너가 황후가 된다.

심청의 본명(本名)은 원홍장(元洪莊)으로서 예산문화원에서는 관음사(觀音寺: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1-1번지) 사적기(事蹟記)를 기초로 하고 관음사 연기설화(광민, 성덕사 관음사, 1998), 홍법사의 연기설화(홍선옥, 상문당인쇄, 2000) 예산의 지명유래(예산문화원 1998), 조선 강역총도(규장각), 팔도도 <충청도> (성신여대 박물관), 예산군문화관광유적도(예산문화원, 1996)를 참고해서 『호녀 심청의 출생지로 추정되는 예산군 대흥면 고찰』을 시행하면서 여기에 그중 관음사 사적기와 그 해의(解義)를 우선 정리한다.



▲ 코미디언 배삼룡 특별출연

■ 노래자랑

노래자랑은 8개읍(면)에서 각각 남자1명, 여자1명의 2명씩 출전하고 코미디언 흥해의 사회로 열린 개인전을 펼쳤다. 이외에 개인전이기에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서로를 참가하려고 애를 썼으며 자신의 장기인 춤과, 노래를 마음껏 펼치는 등 많은 인기를 모았다. 심사는 조성민 아우내문화원장과 이재창 전 충청남도 도의원, 엄창순 국안단 단장이 맡아서 했으며 참가자 들의 우열을 가렸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풍세면/김금배)외, 우수상1명, 장려상1명, 인기상 3명을 포상하였다.

▶ 그네뛰기

▼ 시상식



■ 시상식

모든 민속놀이 경연대회와 공연, 노래자랑이 끝나자 각종목 (그네뛰기, 널뛰기, 팔씨름, 줄다리기)1위~4위, 노래자랑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인기상 3명에 대한 시상을 아우내문화원장이 수상자 전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 씨름·그네뛰기 개인전

둘째날이자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씨름과 그네뛰기 경기가 참가 제한 없이 개인전으로 개최되었다.

씨름과 그네뛰기 개인전은 참가제한이 없으며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대회로써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통민속인 민속놀이를 되살려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시상식과 폐회식

시상식은 20시 10분부터 있었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우내문화원의 조성민 원장이 시상을 맡았다.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모두 끝을 맺자 조성민 아우내문화원장이 폐회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많은 성원과 기관단체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점차적으로 축제 기간과 예산, 종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히고 2일간의 아우내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一. 玉果縣 聖德山 觀音寺 事蹟 -本文-

余少時遊歷諸山 幸到觀音寺 初聞長老之說聖跡曰 忠清道大興縣 有一盲人 其姓元 其名良 早喪配偶 饑居窮困 仍鮮族黨 無所依賴 惟有一少女 名洪莊 生而淑美 態度不凡 性識通敏 常以至誠勤養其盲父也 志切反哺 畦步不忘 非特晨昏臥起 左持右捥而侍側 亦衣服之需 飲食之味 無不稱旨 一境咸稱其大孝名聞華夏焉 其盲父適有故 出近邑 路逢一僧 乃弘法寺法堂幹善稱名性空者也 忽見盲者 趨拜曰 欲與君同成金剛不朽之因 幸公爲我大施也 盲者言 以我貧丐求若所欲 豈不難哉 化士再拜而起曰 吾受勸軸之日 夢有金人語吾曰 明朝出路口 必逢盲人 卽爲汝之大檀越也 是以懇請 盲人籌思移時而言曰 家無斗儲 野乏尺壤 雖欲奚爲 止有一少女 以此與之 卽賣而以爲法堂經營之資 是時女年二八 化士欣然告別 非但女與父痛悼不已 山川變色 日月無光 禽獸亦哀號 道路觀聽者無不痛楚于裏焉 女跋涉道途 心力疲困 乃憩於蘇浪浦岸 擡頭西望 須臾碧海上兩紅船 自西而東 疾如飛箭 來泊津頭 是乃中州涓人之船 船上金冠玉佩繡衣使者 熟視此女之韶顏絕色 卽起拜謝於前曰 眞是后也 女變色曰 是何言歟使者曰 吾晉國人也 永康丁亥五月辛酉 皇后崩 自是 上常惻然不已 一夜夢有神人白上 新皇后生於東國 今已長成 端正勝於前皇后 更勿爲逝者而哀也 上欠伸而覺 明日卽備幣帛四萬端 金銀珍寶 都載兩船 又擇善相慧利者 爲使者 申命直馳東國 持此物色 依樣求得 小臣猥荷此任 受命以來 夙夜憂懼 今幸覩盛儀 乃敢發言 女歎曰 堯簞相應一身之去留 何難之有 蓋所持幣帛幾許 使者答言備載兩船珍寶 女微哂而言曰 我身非我身 乃父種善之奇貨 兩船都附化士 遂與計偕入上國 朝謁之時 月貌星眸 光彩照人 上視而歎曰 以海隅之蝶域 而有如是之人哉 由是有寵 所言皆從焉 后稟性雅善 彌天慈威 欲行淨業 乃勅石匠以瑪瑙造塔三千 分列諸國後 后曰 身雖登於寶位 豈能忘乎本國 又勅成五十三佛 五百聖衆 與十六羅漢 點畢 使舟人載三石船 送本國淨海中流 不施篙櫓風帆浪楫 任其所之 幸泊甘露寺前浦 因安於此寺邊了 石匠雖老 志願弘深 使其子又造塔 移置金剛寺四度 塔則運立於豐德縣擎天寺

后又素願成就募父曰 爺之福田 吾何獨無表 精造佛與塔 移安于大興縣弘法寺 如是往復五度 功德圓滿 志願已畢 然所欠者 自願佛也 卽掃別宮 倩工鑄成觀音一尊 令杈人載石船送東國 臨行 后申命曰 此像則須隨其所止處而奉安也 杈人受命 向東國 漂流海中 已及暮矣 一朝忽隨風漂泊於樂安地斷橋側 無何此土邊守 疑是荒唐船也 追捕甚急之 會此石船 無風自動 入於渺茫中 翌日玉果處女稱名聖德氏 無端自出海上 獨立望遠 天海雲波 渺茫中一葉小石船 如有引物而來前 聖德奉觀 船上金相觀音 忽發敬心 投禮拜畢 親負觀音 輕如鴻毛 行到此嶺 重若泰山 一步不移 卽休安置 仍建大伽藍 扁其額曰聖德山觀音寺 良有以也 蓋弘莊與聖德 俱是觀音隨應之身歟 豈特牟尼分身百億於塵刹耶 當時化士性空 得其財 不逾月斷功 盲人元良 從前別女之哀淚 盲眼忽明 其享休福而終 壽九十五 此皆聖感冥應之跡 不可以泯滅者也 余所聞於長老者 止此而已 至若峰巒四圍之逶迤 溪壑一帶之清冽 人煙之阜絕 洞府之幽閑 來者目之 可略也 時雍正己酉暮春 碧梧門人白梅子 因優閑子之所述 芟繁增削 而書之 復記前後重創之跡 附之卷尾

於戲 此寺權興於西晉惠帝永康年中 中間起廢 不一其數 而撤上棟 有書云 大明洪武七年甲寅年五重創云云 略而論之 丁酉兵燹之餘 佛殿僧寮 盡爲煨燼 惟圓通殿 巋然獨存 居僧皆罹鋒鏑而死 脫禍虎口者 止信熙淡元淡正三人而已 結幕舊址 喫苦殘年者久矣 逮萬曆辛亥 山之僧勝嘗 重建正門 越明年 釋行惠淨兩老 重建禪僧二寮 又明年 與平思雲斗巖三師 再創講說落霞青雲等寮 至崇禎丙子 春山之釋三學 重修圓通殿 越康熙戊戌 楚玉又重葺之 三學乃縣之朴姓者 楚玉又其裔 無乃前後身耶 何相繼生于一門 而同符若是 此甚希有也 吾聞創龍興殿之襄公 乃玄度之前身 造千尺像之僧漢 爲僧祐之後身 此古今相傳 其不可誣也歟

住持 嘉善海清 山中大德 八英 坦明 三綱 萬晶 勝悟 持殿 舜學 泰元 極初 刊刻 呂翊

雍正七年己酉 玉果觀音寺 開刊

二. 옥과현(玉果縣) 성덕산(聖德山) 관음사(觀音寺) 사적(事蹟)

-해의(解義)-

내가 젊었을 때에 여러 산을 두루 유람하였다. 관음사(觀音寺)에 이르러 처음으로 장로(長老)가 성적(聖跡)¹⁾을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에 한 맹인(盲人)이 있었는데 성(姓)은 원(元)이고 이름은 양(良)이었다. 그는 일찍 배우자를 잃고 홀아비로 곤궁하게 살았으며, 친족도 없어 의지할 곳이 없었다. 오직 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홍장(洪莊)으로 태어나서부터 성품이 착하고 아름다우며 태도가 비범하였다. 천성과 식견이 통달하고 민첩하여 항상 지성(至聖)으로 눈이 먼 부친을 부지런히 봉양하였다. 효성이 간절하여 잠시도 효심을 잊지 않았으며 아침저녁으로 놓고 일어날 때에 좌우에서 부축하고 곁에서 모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의복의 수요와 음식을 뜻에 맞게 만들지 않음이 없으니, 온 경내가 모두 그녀의 큰 효성을 칭찬하여 이름이 온 나라에 알려졌다.

눈이 먼 부친이 마침 일이 있어 가까운 고을에 나갔다가 도중에 한 승려를 만나니, 바로 홍법사(弘法寺)의 법당에 시주를 관장하는 자로, 이름을 성공(性空)이라 하였다. 그는 갑자기 맹인을 보자, 절하고 말하기를 “그대와 함께 금강(金剛)의 영원한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하니 그대는 나를 위하여 큰 시주를 해주십시오.” 하였다. 맹인은 대답하기를 “나처럼 가난하여 빌어먹는 자로서 이와 같은 소망을 구한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화사(化士)²⁾는 재배하고 일어나 말하기를 “내 권축(勸軸)³⁾을 받던 날 꿈에 한 금인(金人)이 나타나 나에게 말하기를 ‘내일 아침 길 어귀에 나가면 반드시 맹인을 만날 것이니, 곧 너의 큰 시주이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간곡히 청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맹인은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말하기를 “집에는 한 말의 저축도 없고 들에는 한 자의 땅도 없으니, 비록 시주를 하고자 하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한 어린딸이 있으므로 이를 줄 것이니, 즉시 팔아서 법

1) 성적(聖跡) : 부처의 영험한 자취를 이른다.

2) 화사(化士) : 화주(化主) 혹은 화주승(化主僧)이라고도 하는데, 거리에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시물(施物)을 받아 사람들로 하여금 법연(法緣)을 맺게 하는 동시 절에서 쓰는 비용을 대는 승려를 가리킨다.

3) 권축(勸軸) : 시주(施主)를 적은 책자를 가리킨다.

당(法堂)을 경영하는 밀천으로 삼으시오.” 하였다.

이때 딸의 나이는 16세였다. 화사가 기뻐하여 작별을 고하니, 딸과 아버지가 못내 애통해 할 뿐만 아니라 산천도 빛을 잃고 해와 달도 광채가 없었으며 금수들도 슬피 울부짖고 도로에 보고 듣는 자들도 모두 가슴속에 애통해 하였다. 딸은 도로를 걸어 마음과 기운이 지쳤으므로 마침내 소랑포(蘇浪浦) 해안에서 쉬고 있었는데, 머리를 들어 서쪽을 바라보니 푸른 바다 위에 두 붉은 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는데, 나는 화살처럼 빨리와서 나루 머리에 정박하였다. 이는 바로 중국 연인(涓人)⁴⁾의 배였는데, 배 위에 금관(金冠)을 쓰고 패옥(佩玉)을 한 수의어사(繡衣御史)가 이 소녀의 환한 얼굴과 뛰어난 자색을 한동안 보고는 즉시 일어나 절하고 앞으로 나와 사례하기를 “참으로 황후(皇后)이십니다.” 하였다. 소녀가 얼굴 빛을 변하고 말하기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 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진(晉)나라 사람입니다. 영강(永康) 정해년 5월 신유(辛酉)에 황후가 별세하였는데 이후로 황제는 언제나 서글퍼하여 마지 않았습시다. 하루는 밤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황제에게 아뢰기를 ‘새 황후가 동쪽 나라에 탄생하여 이제 이미 장성하였는데, 단정함이 예전의 황후보다도 더하니, 다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해 하지 마시오.’ 하였습니다. 황제가 하품하고 기지개 켜고 꿈에서 깬 다음 당일로 즉시 폐백 4만 곁과 금은 보화를 골구루 갖추어 두 배에 싣고, 또 사람을 잘 알아보는 자를 가려서 사자를 삼은 다음 신신당부하여 곧 바로 동쪽나라로 달려가 이 초상화를 가지고 물색하여 찾으라 하였습니다. 소신(小臣)은 외람되어 이 명령을 받드니, 명령을 받은 이래로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다행히 거룩한 모습을 보았기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소녀는 한탄하기를 “훈지가 서로 응하는 법이니, 한 몸의 가고 떠남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오신 폐백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사자가 “두배에 진귀한 보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하니, 소녀는 미소를 짓고 말하기를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시려고 시주한 몸이니, 두배에 실은 보화를 모두 이 화사에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들과 함께 상국(上國:중국)으로 들어갔다.

4) 연인(涓人) :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소제(掃除)하는 것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5) 훈지(壩籠)가 ... 응하는 법 : 훈(壩)과 지(籠)는 모두 약기의 이름으로 훈은 훈(壩)으로 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에 “백씨(형)는 훈을 불고 중씨(둘째)는 지를 분다. 형제간에 우애가 지극함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훈과 지가 서로 응하듯 부합함을 이르는 것이다.

조회하여 황제를 뵈을 때에 달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에 환한 모습이 사람을 압도하였다. 황제가 보고는 감탄하기를 “바다 귀퉁이의 접역(鰈域)⁶⁾에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있단 말인가?” 하고는 이로부터 총애하여 황후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다.

황후는 타고난 천성이 선(善)하였으며 하늘에 가득한 자비와 위엄으로 청정(淸淨)한 일을 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석수장이에게 명하여 마노(瑪瑙)로 삼천 개의 탑을 만들어 여러 나라에 나누어 주었다. 그후 황후는 말하기를 “내몸이 비록 보위(寶位)에 올랐으나 어찌 본국을 잊겠는가.” 하고는 또다시 53개의 부처와 5백의 성중(聖衆)⁷⁾과 16개 나한(羅漢)을 만들게 한 다음 일이 끝나자 뱃사람으로 하여금 세 개의 석선(石船)에 나누어 싣고 본국에 보내어 바다 종류에 따라 가게 하였는데, 샛대도 달지 않고 노도없이 바람을 돛으로 삼고 물결을 노로 삼아 가는데로 내버려두게 하였다. 배가 감로사(甘露寺) 앞 포구에 정박하였으므로 인하여 이 절 부근에 안치(安置)하였다. 석수장이는 비록 늙었으나 뜻이 크고 깊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을 시켜 또 다시 탑을 만들어 금강사(金剛寺)에 네 번이나 옮겨 놓았으며, 또 다시 탑을 운반하여 풍덕현(豐德縣) 경천사(擎天寺)에 세웠다.

황후는 또다시 부친에 대한 소원성취를 위하여 말하기를 “아버지의 복전(福田)⁸⁾을 내 어찌 홀로 만들어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부처와 탑을 정교하게 만들어 대흥현(大興縣) 쪽 홍법사(弘法寺)에 옮겨 안치하였는바, 이렇게 하느라 다섯 차례나 갔다왔다 하였다. 공덕(功德)이 원만(圓滿)하고 소원을 이미 마쳤으나 다만 부족한 것은 자신의 원불(願佛)⁹⁾이었다. 황후는 즉시 별궁(別宮)을 소제하고 공인(工人)을 시켜 관음상(觀音像) 하나를 주조(鑄造)한 다음 부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석선에 싣고 동쪽나라에 보내게 하였다. 길을 떠날 때에 황후는 신신당부하기를 “이 관음상은 모름지기 배가 가는데로 따라가다가 머무는 곳에 봉안(奉安)하라.” 하였다. 부리는 사람은 명령을 받고 동쪽 나라로 향

6) 접역(鰈域) : 접(鰈)은 비목어(比目魚), 즉 가자미로 우리나라 동해에서 가자미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7) 성중(聖衆) : 권속성중(眷屬聖衆) 또는 성중의 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본불(本佛)을 따라 다니는 여러다니는 여러 성자(聖者)를 가리킨다.
8) 복전(福田) : 부처에게 공양하면 복이 되는 것이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다음에 수확하는 것과 같으므로 복전이라 한다.
9) 원불(願佛) : 사사로이 모셔놓고 예(禮敬)하는 부처를 이른다.
10) 오체(五體) : 전신(全身)을 가리키는 말로 두 무릎, 두 팔꿈치, 이마의 오체를 땅에 붙여 예배하는 것을 오체투지(五體投地)라 한다.
11) 가람(伽藍) : 승가람(僧伽藍) 또는 승가람마(僧伽藍摩)의 약칭으로 승려들이 거처하면서 불도를 닦는 곳을 이른다.

하였는데, 바다 가운데에서 표류하여 이미 일년에 이르게 되었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 석선이 바람을 따라 낙안(落雁) 땅 끝진 다리 옆에 정박하였다. 얼마 후 이 지역의 변방을 지키는 수령이 황당(荒唐)한 배라고 의심하여 매우 급하게 체포하려 하였다. 마침 이 석선이 바람도 없이 저절로 움직여 아득한 가운데 흘러 들어갔다. 다음날 옥과현(玉果縣)에 이름을 성덕(聖德)이라 하는 처녀가 까닭없이 스스로 해상(海上)에 나가 홀로 서서 멀리 바라보니,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곳의 구름 물결속에 아스라하게 작은 석선이 마치 물건을 끌고서 앞으로 오는 듯하였다. 성덕은 선상(船上)으로 올라가 금으로 만든 관음상을 뵈었는데, 갑자기 공경심이 발동하여 오체(五體)¹⁰⁾를 땅에 던져 절하였다. 성덕이 친히 관음상을 업으니, 가볍기가 기러기 털과 같았는데, 길을 걸어 이 고개에 이르자, 갑자기 무게가 태산처럼 무거워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즉시 이곳에 안치하고는 큰 가람(伽藍)¹¹⁾을 세운 다음 이름을 성덕산(聖德山) 관음사(觀音寺)라 하였으니, 성덕산 관음사라 이름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었다.

홍장과 성덕은 모두 관음보살이 응함에 따라 나타난 화신(化身)인가 보다. 어찌 다만 석가모니(釋迦牟尼)의 몸이 수많은 세상에 백억 개로 나타날 뿐이겠는가. 당시에 화사 성공은 그 재물을 얻고는 한 달이 못되어 공사를 끝냈으며, 맹인 원량은 전에 딸을 작별하느라 슬피 울다가 눈이 갑자기 밝아져 아름다운 복을 두루 누리고 별세하니, 향년이 95세였다. 이는 모두 성불(成佛)이 어두운 가운데에 감응한 자취이니, 엇앨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장로(長老)에게 들은 것은 이에 그칠 뿐이다.

이 절에 산봉우리가 사방 주위를 휘감아 돌고 시내와 골짜기의 일대가 깨끗하며, 인간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고 골짜기가 그윽하고 조용함에 있어서는 오는 자가 보면 스스로 알것이므로 생략한다.

옹정(雍正) 기유(己酉) 모춘(暮春)에 벽오문인(碧梧門人) 백매자(白梅子)는 우한자(優閑子)의 말에 말한 바를 따라 번거로운 것을 삭제하고 가감하여 쓰며, 또 전후에 중창(重唱)한 자취를 기록하여 책 뒤에 붙이는 바

10) 오체(五體) : 전신(全身)을 가리키는 말로 두 무릎, 두 팔꿈치, 이마의 오체를 땅에 붙여 예배하는 것을 오체투지(五體投地)라 한다.
11) 가람(伽藍) : 승가람(僧伽藍) 또는 승가람마(僧伽藍摩)의 약칭으로 승려들이 거처하면서 불도를 닦는 곳을 이른다.

이다.

아! 이 절은 서진(西晉) 혜제(惠帝) 영강(永康) 연간에 창건되었으나 중간에 다시 중수하고 버려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철거해 보니, 상량문(上梁文)에 쓰여 있기를 “대명(大明) 홍무(洪武) 7년 갑인년(1374) 5월에 중창하였다.” 라고 하였다. 간략히 논하면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 부처를 모신 대웅전(大雄殿)과 승려들이 거처하는 요사채가 불타 없어지고 오직 원통전(圓通殿)만이 우뚝이 홀로 남았다. 이 곳에 거주하는 승려는 모두 적의 칼날을 맞아 죽고 호랑이 주둥이에서 화를 모면한 자는 신희(信熙), 담원(淡元), 담정(淡正) 세 사람 뿐이었다. 이들은 옛터에 천막을 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여년(餘年)을 보내기를 오랫동안 하였다.

만력(萬曆) 신해년(1611)에 이르러 산의 승려인 승은이 정문(正門)을 중건하였고, 다음해에 석행(釋行)과 혜정(惠淨)과 두 노스님이 선방(禪房)과 승방(僧房) 두 요사채를 중건하였으며, 또 다음해에 흥평(興平), 사운(思雲), 두암(斗巖) 세 대사(大師)가 강설(講說)하는 낙하(落霞), 청운(靑雲) 등의 요사채를 다시 창건하였다.

숭정(崇禎) 병자년(1636)에 이르러 춘산(春山)의 승려인 삼학(三學)이 원통전을 중수하였고, 강희(康熙) 무술년(1718)에 초옥(楚玉)이 또다시 지붕을 이었다. 삼학은 바로 이 옥과현의 박씨성(朴氏姓)인 자이고 초옥은 또 그 후예(後裔)이니, 전신(前身)과 후신(後身)이 아니겠는가. 어찌하여 서로 뒤이어 한 가문에서 태어나 이와 같이 부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심히 드문 일이다.

내가 들으니 용흥전(龍興殿)을 창건한 배공(裴公)은 바로 현도(玄度)의 전신이며 천척(千尺) 높이의 불상(佛像)을 만든 승호(僧獲)는 승우(僧祐)의 후신이라 하니, 이는 고금에 서로 전하는 것으로 속일 수 없는 일이다.

주지(住持)는 가선 해청(嘉善海靑), 산중대덕(山中大德)은 팔영(八英)·탄명(坦明), 삼강(三綱)은 만정(萬晶)?승오(勝悟), 지전(持殿)은 순학(舜學)·태원(泰元)·극초(極初), 간각(刊刻)은 여익(呂翊)이다.

옹정(雍正) 7년(1729) 기유(己酉) 옥과(玉果)의 관음사(觀音寺)에서 개간(開刊)하였다.

三. 觀音寺事蹟

五果再歷山觀音寺
事蹟
余少時也
音寺初中
口土清道
人其姓元
編錄居者
因仍舊址
章到觀
有一盲
配

昭依願惟有一少女石供
莊重而微遜態度不凡性
機通敏常以至憐勤養其
育父也志切反哺臨步不
忘特將晨昏卧起左掖右
梧而侍側上衣服之需飲
食之味至不祇旨一境咸

一供大孝名聞華夏其
盲父遠有故土上元後逢
一佳乃祖法寺法堂幹
祐名性空也血兄盲者
競相口欲與君同成金劉
不枯之目章云馬我大施
也盲者言以我笑丐我若

野之入壤維教莫止
且移時而言曰家多牛
檀越也是以起諸盲人
口必達盲人即為汝之
有金人信吾曰明朝出
而起曰吾受勸軸之日
兩欲豈不難哉化士君

一少女以此與之即賣而
以爲法堂徑管之笑是時
女年二八化士欣於告別
死但女與父痛悼不已山
川幾色日月無光禽獸不
哀錦毛鳥獸聽者無不痛
誓于哀女淚涕道途心

力疫困乃悲於懷惟補
權以願堂頃更置海上兩
紅艚有而東座如飛爲
來泊津於是乃中州消人
之艚上金完正佩緒衆使
去也初此女之詔經後色
即叔相治莊君曰真是后

也女後色曰是何言耶使
去曰吾晉國人也永康丁
亥五月辛酉皇后崩自是
上常惻然不已一夜夢有
神人白上召皇后生於
東國今已長成端正勝於
昔皇后更勿爲悲去而哀

也上久伸而覺明日即備
幣帛四萬端金銀珍寶都
戴兩艚又擇良期東國持
爲使去申命直往東國持
此物色依樣求得即撰荷
此位受命以來夙夜空懷
金章觀盛像乃敢放言女

我日頃獲相一之去
留以難之有蓋而持幣帛
我仍使去答言兩載兩艚
珍寶女幽而而言曰我身
非我身乃父種之奇貨
兩艚都附化士遂與計偕
入上國得之時月額曼

二十一

二十

十九

二十四

二十三

二十二

二十六

二十五

十二

十一

+

十五

十四

十三

十八

十七

十六

2003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1	향토사연구 활성화사업 「충남지역 향토사 자료 공모」	• 일시 : 2003.11.12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문화원 및 향토연구회 회원 등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국사 정립과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매년 개최하고있는 사업으로써 해를 거듭할 수록 질높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입선한 4개의 논문작품에 대해 시상식과 최우수(이재철), 우수(임영수)논문에 대하여 발표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로 궁금한 점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며, 초청특강으로 공주대 이해준 교수로부터 '향토사 연구의 실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의 강의도 이어졌다. <table> <tr> <th>성 명</th> <th>제 목</th> <th>등급</th> </tr> <tr> <td>이재철</td> <td>한·양국의 민속줄다리기 에 대한 고찰</td> <td>최우수</td> </tr> <tr> <td>임영수</td> <td>포의 물</td> <td>우 수</td> </tr> <tr> <td>임채학</td> <td>부인당 설화</td> <td>장 려</td> </tr> <tr> <td>김종식</td> <td>천안의 금석문에 대하여</td> <td>장 려</td> </tr> </table>	성 명	제 목	등급	이재철	한·양국의 민속줄다리기 에 대한 고찰	최우수	임영수	포의 물	우 수	임채학	부인당 설화	장 려	김종식	천안의 금석문에 대하여	장 려	
성 명	제 목	등급																	
이재철	한·양국의 민속줄다리기 에 대한 고찰	최우수																	
임영수	포의 물	우 수																	
임채학	부인당 설화	장 려																	
김종식	천안의 금석문에 대하여	장 려																	
2	2003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대회	• 일시 ; 2003.12.6 • 장소 : 논산시문예회관 • 대상 : 도내 문화예술인	충남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창작의욕 진작 및 향토고유문화 창달의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서 문화예술발전에 공이 지대한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호 문화예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고
3	2003년도 지역축제 평가 개선발전워크샵	• 일시 : 2003.12.19~20 • 장소 : 천안상록리조트 • 대상 : 축제주관단체, 문화원, 시군 공무원 등	축제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축제주관 단체 및 문화원,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함. 금년도 개최된 30여종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시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한 자료를 전문연구원 또는 대학교수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워크샵 행사시 이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최종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feedback하여 축제를 더듬어 나가는 계기가 됨	
4	忠南文化 제7호	• 일시 : 2003.1~12월 • 대상 : 도내 문화원	충남도지회가 출간하는 『忠南文化』는 본지회의 연간 활동상황과 회원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발굴·연구상황 그리고 충남도의 문화행사 및 시책 등을 수록 간행하여 회원과 각지회 및 문화원, 향토연구소, 개인 필요기관에 배포하여 충남도내 문화관련 행사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됨	
5	해외선진문화 탐방	• 일시 : 2003.7.24~7.30 • 장소 : 일본국, 동경, 요코하마, 닛코, 센다이, 아오모리, 북해도일원 • 대상 : 원장, 사무국장 등	도내 각문화원의 운영과 발전적 문화활동의 전개를위해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문화원 종사자들의 새로운 의식개발과 사회교육 및 향토축제의 선진화된 모델개발을 위해 일본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문화재 및 문화시설, 문화사업, 문화환경등을 심도있게 살펴보는 특별사업	
6	운영위원회	• 일시 : 매월 또는 수시 • 대상 : 운영위원 7명, 원장	주요 현안 사업토의 및 예산(안)심의, 목적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등 협의	
7	월 레 회	• 일시 : 매월 또는 수시 • 대상 : 도내 문화원장	도내 17개 문화원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정보교류, 충남문화발전을 위한 정책토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의 목표추진 등을 위한 정례 모임	



◀ 도지회 월례회 (격월 개최, 대천문화원)



▲ 도지회 운영위원회 (격월 개최)



◀ 선진문화탐방 (일본 삿보로, 공민관 견학)



▲ 선민문화탐방(일본 센다이, 세마나개회)



▲ 도지회 월례회(격월 개최, 당진문화원)



◀ 선진문화탐방 (일본 주요도시) (7.24~7.30)



도지사 초청간담회(2003.8.11) ▲



▲ 충남지역 향토사연구자료 시상 및 발표회(2003.11.12)



충남지역 향토사연구자료 심사광경(2003.10.21) ▲



▲ 2003 충청문화예술인대회 (2003.12.6)



◀ 도내문화원장 서산 향토사료관 견학 (2003.10.21)

2003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3년도 신년교례회	•일시: 1. 3(10:00) •장소: 천안웨딩코리아 •참석인원: 300여명	공공기관, 단체,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기업계, 체육계 등 각계 인사를 초청 신년인 사회 개최	
2	"천안지명考" 발간	•발행일: 1. 30 •발행부수: 800부	천안지명사 자료집으로 고려 태조왕건의 천 안도독부 설치와 관련된 연혁 및 연구자료	
3	정월 대보름 맞이 장승축제	•일시: 2. 15(11:00) •장소: 풍세면 민학전가 •참여: 100여명	•장승공원에서 신년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제례 •전통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민속발굴의 의 미를 새김	
4	2003 문화학교	•기간: 4월 ~ 12월 •과목: 12개 과목 •수강인원: 400여명	•요일별 개별강좌 기타, 다도, 꽃꽂이, 한문, 사진 등 12개 과목 •유적지순례(6월 3일)-김제 모악산(금산사)	
5	수채화 교실	•기간: 4월 ~ 12월 (매주 월, 화요일) •수강인원: 60명	•소묘, 데생, 수채화 초급 및 중급과정 •아외스케치 및 전시회 관람 등 •년 1회 작품전 실시	12. 27~30 작품전
6	시창작 교실	•기간: 4월 ~ 12월 (매주 금요일) •수강인원: 20명	•예술강좌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론, 수사론, 문장론 등 시창작 강의 •년 1회 시집 발간	
7	향토유적순례교실 (고적답사반 운영)	•기간: 4월 ~ 11월 (격주 수요일) •수강인원: 30여명	•향토유적지를 중심으로 답사하는 프로그램 •월 2회 답사(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및 실내강의 등 실시	
8	한고을 한문화운동 -여류시인 김부용 추모제	•일시: 4. 27(11:00) •장소: 광덕산 운초묘역 •참석: 100여명	•다례, 헌시낭독, 시세계 조명강의 등 •문인협회, 향토사연구소, 문화가족, 회원, 천안차인회 회원 등 100여명 참석	
9	여성합창단 운영 -제10회 정기연주회	•일시: 5. 15(19:00) •장소: 천안시민회관 대 강당 •참여인원: 1,000여명	•천안문화원 노래사랑 문화가족 여성합창단 •(레이디스 싱어즈)의 열번째 정기연주회 •단원 60명, 성악가 특별출연 등 •매주 토요일 오전 합창연습, 영상음악감상	
10	온조대왕 제향 봉행	•일시: 5. 11(11:00) •장소: •참석: 50여명	•고전문화연구회를 중심으로 온조대왕의 제향 봉행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1	향토문화자료 21집 "천안의 숨결을 찾아서" 발간	•발행일: 5. 25 •발행부수: 800부	천안지역 국보, 보물, 도지정문화재, 시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각종 문화유적의 소개 및 화보 등 수록	
12	"천안문화" 36호 발간	•발행일: 7. 6 •발행부수: 1,000부	향토문화정보지로서 상반기 천안지역 문화 예술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13	개원 49주년 기념식	•일시: 7. 10(11:00) •장소: 강당 •참석: 200여명	•기념식(기념사, 축사, 유공문화예술인 표창, 사업보고, 지역문화선언문 낭독, 문화원 송 가 합창 등), 리셉션 등 실시 •기관, 단체장, 일반시민, 문화예술인등 참석	
14	"화미회" 수채화전	•기간: 7. 10 ~ 14 •장소: 전시실 •참여: 회원 12명	수채화교실 수강생 중 중급과정을 이수한 12명으로 구성된 "화미회" 다섯 번째 작품전	
15	글짓기 교실	•일시: 7. 22 ~ 30 (10:30~12:30) •대상: 초등학교 3~6년생 •인원: 50여명 수강	•초등학교 3 ~ 6학년 대상으로 신청접수 후 50여명 수강 •작문지도, 독서지도, 원고지 작성법 등 강의	
16	연길 백산실험학교 예술단 초청공연	•일시: 8. 18(19:00) •장소: 강당 •관람인원: 200여명	중국의 연길 백산실험학교 예술단을 초청 청소년 및 일반시민들을 위한 한마당 큰잔치 (무용, 독창, 가야금 연주 등)	
17	제33회 학생 글짓기 ·사생대회	•일시: 10. 4 (14:00~17:00) •장소: 천안삼거리공원 •참여인원: 700여명	•초·중·고생 대상 실기대회 개최 (학교별-부문별-각 10명씩 추천 받아 실시) •시상: 10. 11(14:00)	
18	선진문화탐방	•기간: 10. 8 •장소: 청주 •참여인원: 40여명	•문화가족 및 고적답사반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문화탐방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관람	
19	향토축제 개선사업 -향토축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10. 23(14:00) •장소: 문화의 집	새롭게 시도한 "천안향타령축제2003"의 장 단점을 파악,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등을 진 단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축제 기획단 등 관련자(토론자 5명) 참석	
20	양은영 피아노 독주회	•일시: 10. 12(15:00) •장소: 강당 •관람인원: 200여명	수준 높은 연주회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음악적 심성을 간직케 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1	한마음 실내악단 제10회 정기연주회	• 일시: 11. 11(19:00) • 장소: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 부설 한마음 실내악단의 제10회 정기연주회로 클래식, 외국민요, 가곡 등 연주 및 특별출연(부부합창단 등) 등 80분간 실시 • 단원 30명으로 구성 매주 월요일 오전 연습	
22	천안문화사랑 운영	• 규모: 30명 • 장소: 천안역 역사내 • 기간: 11월	기존 천안역사 폐쇄 후, 신천안역 역사내 문화홍보관인 「천안문화사랑」의 천안관련 홍보물(천안의 역사, 문화유적, 민요, 인물 등) 홍보판 제작 및 천안의 문화환경, 도시현황 등 소개	
23	향토사연구소 운영 "향토연구" 제 14집 발간	• 발행일: 11. 25 • 발행부수: 1,000부	•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정기회지 •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연구논문 수록	
24	"천안문화" 37호 발간	• 발행일: 12월 10일 • 발행부수: 1,000부	향토문화정보지로서 하반기 천안지역 문화예술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25	향토문화자료 22집 발간 - 영성지 번역본	• 발행일: 12월 25일 • 발행부수: 1,000부	천안의 옛 군현지로 천안의 인문, 행정 등의 내용 소재자료 번역본으로 발간	
26	유화교실 작품전	• 기간: 12.23 ~ 26 (4일간) • 장소: 전시실 • 인원: 15명	유화교실 수강생들의 첫 번째 수료 작품전	
27	영상문화교실	• 기간: 11월 ~ 12월	영상자료(DVD, VCD, CD-T, CD 등)구입	
28	청소년 어울마당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음악여행	• 일시: 12.13 (17:00~19:00) • 장소: 천안문화원내 문화사랑방 • 참여인원: 100여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천안문화원 기타 동아리공연, 시낭송, 기타리스트 초청공연 등 실시	
29	청소년 어울마당 - 청소년 문학축전	• 일시: 12.28 (14:00~16:00) • 장소: 천안문화원내 문화사랑방 • 참여인원: 100여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시낭송, 청소년독서서클 토론회 및 초청 문학강연 등 실시	
30	향토사료관 운영	• 기간: 년 중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리, 보완 등 각급 학교의 단체관람, 일반시민 등 연중 관람	



▲ 천안문화원 주최 2003 신년교례회



▲ 천안문화원 개원 49주년 기념행사



▲ 한고을 한문화 운동 - 운초 김부응 추모제



▲ 백제시조 온조대왕 제향



▲ 천안문화원 「레이디싱어즈」 10호 정기연주회



◀ 문화학교 - 유적순레반



▲ 제33회 학생 글짓기 · 사생대회



▲ 2003 향토축제개선을 위한 토론회



▲ 천안문화원 한마음실내악단 제10회 정기연주회



◀ 2003 천안흥타령 축제

▼ 년중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 천안문화원



▲ 어린이 글짓기 교실

▶ 천안문화원 문화학교-수채화교실

▼ 천안문화원 문화학교 - 닥종이 인형공예



▼ 천안문화원 문화학교 - 실내악교실



▼ 천안문화원 문화학교 - 한문교실



▼ 천안문화원 문화학교 - 시창작교실



◀ 천안문화원 문화학교 - 유화교실



2003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단오절 민속 놀이경연대회	•일시:6.4~5 •장소:아우내장터 •참석인원:약2,000명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을 되살려 건전한 정신문화를 함양케 함	
2	유관순열사 추모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일시:10.10 •장소:유관순열사사우 •참석인원: 300명	초·중·고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함으 로서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창작활동의 기회를 부여함	
3	내고장문화 인물발굴	•일시:12월 •발행처:아우내문화원 •발행수:500부	우리고장 출신 인물들이 잊혀지고 있어 전 기를 발행하여 업적을 기림	
4	3·1절 기념 봉화제	•일시:2.28 •장소: 아우내장터→추모각 •참석인원:1,000명	햇불시위(아우내장터→사적관리소광장) 및 봉화제로 유관순열사의 애국정신을 길이 추모 하고 계승 발전시키며 시민의 단결과 애향심 을 함양케 함	
5	대보름 맞이 척사대회	•일시:2.16 •장소:본원앞 광장 •참석인원:100명	문화가족과 주민을 대상으로 사물놀이 공연 및 전통민속 윷놀이 대회 개최	
6	민학전가 장승축제	•일시:2.15 •장소: 천안 풍세면 보성리 •참석인원:300명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축제 (장승100여점의 민속공예품 전시)	
7	우리고장 문화 알리는 날 운영	•일시:6월~12월 •장소:천안시 •초청인원:100명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려주고 지 역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게 하여 자긍심과 정 주의식을 높여줌	
8	해외문화교류	•일시:7.24~30 •장소: 일본의 주요 문화유적지 •참석인원:20명	지역문화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진국 의 문화유적지와 축제등을 탐방 새로운 문화 의식을 재고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이룸	
9	작은 도서관 운영	•일시:상시 •장소:아우내 문화원 •참석인원:무제한	양질의 향토사료 및 도서를 비치하고 지역 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 열람 및 대출을 통해 독서생활에 일조를 함	
10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식	•일시:11월 •장소:아우내 문화원 •참석인원:200명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함	



▲ 민학전가



▲ 윷놀이

▼ 줄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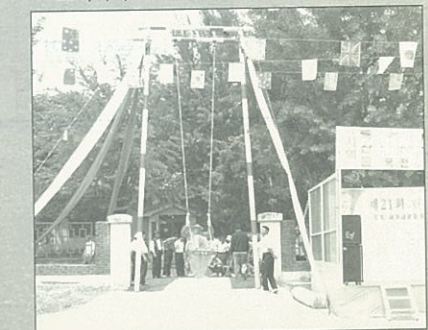
▲ 백일장



▼ 널뛰기



▼ 그네뛰기



2003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컴퓨터교실	•일시:2203.5.12~6.23 •장소:울트라킹PC방 •참석인원:25명	컴퓨터 기초활용을 위한 윈도우 운영 및 인터넷 정보활용 방법교육	년30회 문화학교
2	향토사교실	•일시:203.10.24~12.20 (매주 11월~12월) •장소:본원 •참석인원:20명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 바로 알기 강의 및 현장답사	년30회 문화학교
3	한문교실	•일시:2003.11월~12월 (매주 월~금요일) •장소:본원 •참석인원:20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한자 과정	년30회 문화학교
4	시창작교실	•일시:2003.7.21~11.8 (매주 월~금요일) •장소:본원 •참석인원:20명	학생을 대상으로 독후감, 글짓기, 시 창작, 작문 강의	년30회 문화학교
5	노인교양강좌	•일시:2003.3월 11월 •장소:성환노인학교 •참석인원:60명	건강한 노인생활 및 레크레이션 강좌	년30회 문화학교
6	제21회 내고장자랑글짓기	•일시:2003.10.18 •장소:천안시문예회관 •참석인원:283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내고 장 자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시상 11월 22일
7	제14회 애향의식고취 그림그리기	•일시:2003.10.18 •장소:천안시문예회관 •참석인원:200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공모, 시상	시상 11월 22일
8	제6회 경로효친 휘호대회	•일시:2003.10.8 •장소:천안시문예회관 •참석인원:60명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경로효친 에 관한 서예공모, 시상	시상 11월 22일
9	입상작품집 발간	•발행:2003.11.20 •발행부수:500부 •253작품(국판칼라)	글짓기, 그림, 휘호대회 입상작품집 발간	50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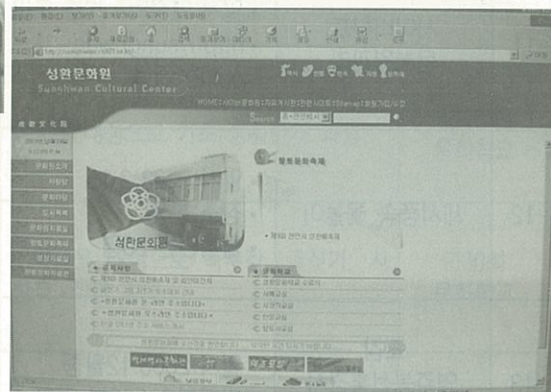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제13회 내고장고적순례	•일시:2003.4.11 •장소:천안시 일원 •참석인원:27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것에 대 한 긍지와 애乡심을 함양시킴	년 1회
11	사이버향토 문화원관리	•일시:연중 •http://sunghwan. cult21.or.kr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지역문화 및 지역정보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2	세시풍속 옷놀이	•일시:2003.2.15 •장소:본원 •참석인원:8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 단결 및 친 목도모	년1회 학교
13	교감, 역주봉선홍경사 갈기(비)	•일시:2003.12월중 •발행부수:500부 국판	비문을 근거로 원문풀이, 인물소개, 관련서적 소개, 풀이등	
14	천안의 향토축제6 발간	•발행:2003.11.21 •발행부수:500부	내고장의 특산물인 성환배, 거봉포 도의 관광상품화 방안연구 수록	
15	전입주민 우리고장 알리기	•일시:2003.12월 •장소:천안시 일원 •참석인원:90명	우리고장으로 전입 온 주민들을 대 상으로 내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 고자 유적지를 중심으로 탐방 홍보 (교재 및 안내전단 홍보)	
16	해외문화교류	•일시:2003.7.24~30 •장소:일본 (동경, 센다이, 북해도)	문화선진국으로 자리하고 있는 일 본의 문화와 문화유적, 문화시설, 축 제, 공민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선진 문화탐방	년1회



▲ 고적순례



▲ 웃놀이



사이버향토문화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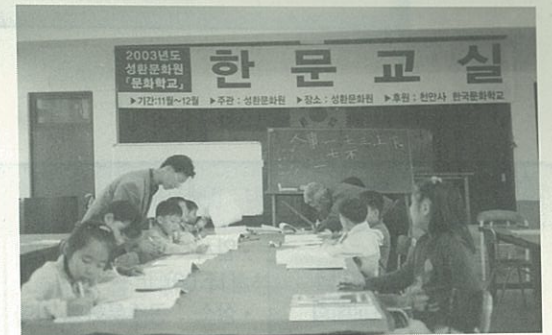
▲ 노인교양강좌



▲ 컴퓨터교실



▲ 회화대회



▲ 한문교실



▲ 시청각교실



2003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3 계미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3년 1월 3일 (11: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400명	관내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장 기업체장 유 지 신년하례 인사 교류 및 축하연	
2	반향 공주문화 소식지 발간	• 기간 : 1월 - 12월 • 4×6배판 68쪽 • 격월 발간 3,000부	문예춘추, 문화논단, 향토사료, 바로이분, 문화인물, 문화가 산책, 각종 고향소식 등	
3	박남미 생활무용공연	• 일시 : 2003년 1월 8일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150명	승무, 태권로빅,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컨 추리 웨스턴댄스 등	
4	이종철선생 초청 선언인 자봉 선회전	• 일시 : 2/7-2/11 • 장소 : 공주문화원 제1,2전시실 • 참석인원 : 300명	이종철선생 초청 - 달마도 전시	
5	'깊은여운' -연극동호회 "택시드리벌"	• 일시 : 2/15 - 2/16 3시/6시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400명	연극동호회 - "깊은여운" 작품명 : 택시드리벌	
6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 일시 : 3/1 - 6/30 (월, 화, 목 19:00 주1회~2회)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 참석인원 : 150명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성계 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 여 계층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 교육의 장을 제공 ①가곡반 ②풍물반-초급 ③풍물-중급 ④댄스스포츠반 ⑤국선도반 ⑥사진예술반 ⑦영어회화반	
7	에인촌 정기공연 - 이결재의 공주소리	• 일시 : 3/7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50명	에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구음소리, 부귀공명사, 가래질소리, 상여소리품바, 충청도 아리랑 등	
8	에인촌 정기공연 극단 "파고" - 북어대가리	• 일시 : 4/4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300명	에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극단 '파고' 작품명 : 북어대가리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9	공주문화원 초대 김명태 조형가구전	• 일시 : 4/8 - 4/13 • 장소 :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 • 참석인원 : 300명	• 공주대 김명태 교수 초청 • 조형 가구전	
10	공주문화원 초대 제6회 한국전업미술가 대전·충남협회전	• 일시 : 4/14 - 4/18 • 장소 :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 • 참석인원 : 200명	• 공주문화원 초대 • 한국전업미술가 대전,충남협회전	
11	에인촌 정기공연 최선의 "류 별로 본 우리춤"	• 일시 : 5/2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150명	• 에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 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김백봉류 - 화관무, 검무 이매방류 - 삼고무 한영숙류 - 살풀이, 태평무 김수악류 - 교방굿거리 심화영류 - 승무 창작부문 - 행이	
12	공주문화원 초대 송정 이경란 전	• 일시 : 5/23 - 5/27 • 장소 :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 • 참석인원 : 300명	• 송정 이경란 초대 • 한국화 전	
13	제8회 "효"사상선양 공주시 초,중,고학생 백일장	• 일시 : 5/28 14:00 • 장소 : 공산성 쌍수정광장 • 참석인원 : 450명	• 효의 본고장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사상을 선양 고취시키고 문학의 저변확대 •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14	제13회 공주시 여성한글백일장 및 문학강좌	• 일시 : 5/29 10: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여인원 : 80명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유도와 문학의 저변확대 • 참가대상 : 충청남도 여성, 대학생, 직장인 등	
15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 일시 : 6/26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180명	• 수료식 및 발표회 • 옷다리풍물, 앉은반, 선반 • 댄스스포츠-차차차, 가곡 발표	
16	에인촌 정기공연 - 권재덕의 옛소리	• 일시 : 7/4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50명	• 에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불거리를 제공 - 축원덕담, 만가(상여소리), 지점다지기, 논매는 소리 등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7	가곡반 - 가곡발표회	• 일시 : 7/7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100명	가곡교실 회원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 마련 - 그리움, 저 구름 흘러가는곳, 산, 그리운 금강산 등	
18	공주문화원 초청 김혜식 사진전	• 일시 : 7/10 - 7/14 • 장소 :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 • 참석인원 : 300명	김혜식 사진전 - 공주이야기	
19	예인촌 정기공연 문영현의 창작춤	• 일시 : 8/1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00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태평무, 죽은새, 지전춤, 나비의 꿈, 진도 북춤, 허송애비의 춤 등	
20	2003 향토문화학교 향토사 강좌	• 일시 : 9/1 - 10/13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회의실 • 참석인원 : 50명	역사도시, 공주시민으로살기/소리로 듣는 공주/충남도청과 갑부 김갑순/ 우리나라의 민속 연극 등	
21	예인촌 정기공연 극단 '파고'의 "좋은녀석들"	• 일시 : 9/5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극단 '파고' 작품명 : 좋은녀석들	
22	제49회 백제문화제	• 일시 : 10/8 - 10/12 • 장소 : 공주시일원	▪ 제49회 백제문화제 주관 ▪ 명실상부한 전국 3대 문화제로서의 위상정립과 동시 국제적인 문화제로 유도·발전시킴.	
23	향토문화학교 답사	• 일시 : 10/18 10:00- • 장소 : 공주관내 유적지 및 사찰 • 참석인원 : 40명	▪ 답사코스 : 감영터-대통사지-황새바위-무령왕릉-정지산유적-공주민속극박물관-웅진교육박물관-마곡사	
24	예인촌 정기공연 - 뉴소년소녀합창단의 "환경음악회"	• 일시 : 11/7 19: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15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놀면서 부르는 전래동요, 동요 메들리, 판소리, 꽃파는 아가씨, 집을 나간 꼬꼬야, 금강, 공주는 영원하리, 다시 만날때까지 등	



◀ 예인촌정기공연(권재덕의 옛소리) 모습



▲ 효사상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백일장 광경



▲ 문화학교 발표회 중 풍물반 발표 모습



▲ 문화학교 발표회 중 가곡반 합창 모습



◀ 공주시 여성한글백일장 및 문학강좌 중 문학강좌 광경

2003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서산의 해양민속조사	• 일 시 : 1월~12월	서산지방의 연안지방을 대상으로 전문 학술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서산의 해양민속을 연구, 조사하고 이를 책자로 편집, 발간함.	
2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평가 보고회	• 일 시 : 8월 8일 • 장 소 : 서산시청 중회의실 • 참석인원 : 200명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가 특색 있는 축제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연구, 조사하여 평가 보고회를 개최함.	
3	향토사료 수집	• 일 시 : 1월~12월 • 장 소 : 서산문화원	전년 사업에 이어 백제토기를 중심으로 전 문가에 의뢰하여 향토사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사료를 바탕으로 향토 사료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향토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감	
4	문화의식 순회강좌	• 일 시 : 3.10~ 4.9 • 장 소 : 각 읍·면·동 회의실 • 참석자 : 700여명 • 회 수 : 15회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겨 생 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의식을 제고하 는 문화의식 순회강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 여 분원을 더욱 활성화 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함.	
5	문화유적 현장학습	• 일 시 : 6월25일 • 장 소 : 익산, 논산 • 참석자 : 60여명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 호의식과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익산, 논산지역의 백제문화권을 답사 함.	
6	문화대상 시상	• 일 시 : 11. 29. • 장 소 : 서산문화원 • 대 상 : 1명 • 수상자 : 박상의 (국악)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 하여 시상함으로써 이 고장의 명예와 후생들 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	
7	청소년문화상 시상	• 일 시 : 11.29. • 장 소 : 서산문화원 • 수상자 : 김비율, 정술, 최태규, 김혜민, 홍찬의, 홍민지, 여진철, 김혜진, 김현해, 호민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예행, 선행 3개 부 문의 청소년 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	
8	제3회 청소년 영상문화 축제	• 일 시 : 6월13~15일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400여명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의 변화에 발 맞추 어 영상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뜻하는 바 를 알릴 수 있도록 스스로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상영하여 품평회를 가짐 .	
9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 일 시 : 1월~12월 • 회 수 : 12회 • 장 소 : 해당장소	정부가 지정하는 이달의 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조명해 보는 행사를 매월 실시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지역문화예술 상설운영	• 일 시 : 1월~12월 • 장 소 : 서산문화원	정부의 5일제 근무에 대비하고 지역문화의 전당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문화원의 상 설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공연, 전시, 영화,창 작, 무용강좌, 문화가족활동 등이 연중 무휴 로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함.	
11	정보 자료실 운영	• 일 시 : 1월~12월 • 장 소 : 정보자료실 • 대 상 : 회원 및 일반인	정부가 지정한 작은 도서관 설치와 그 운영 을 위하여 신간도서 구입, 각종 영상자료물 구입, CD구입, 문화원간 배부 서적 및 각종 자료 등을 통해 내실을 확충해가며 지식정보 제공의 산실로 널리 활용하여 향토사 중심의 특화된 도서관으로 성장·발전시킴	
12	사이버 문화원 운영	• 일 시 : 1월~12월 • 장 소 : 사이버문화원 (http://seosan.cult21.or.kr)	충청남도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문 화원 고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 정보통신 체계를 활성화하고 각종 지역정보 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디지털 지역정보센 타로 운영함.	
13	향학관 운영	• 일 시 : 1월~12월 • 장 소 : 서산문화원 • 시행방법 : 서산출신 학 자들이 모임체 구성 및 저서, 논문집 등을 수집	향학관 운영을 통하여 파악된 서산 출신 학 자들이 상호교류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저서, 논문, 작품등 을 수집하여 궁극적으로 학자들의 자료관으 로써 향학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함.	
14	전통문화 체험학교	• 일 시 : 6월25일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초등학교 20명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신체 적 발달은 물론 정신적, 정서적 발달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우리 선조들 의 얼과 슬기를 깨닫게함.	
15	향토작가 전시회	• 일 시 : 추후결정 • 장 소 : 서산문화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향토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작품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향 토 작가전을 개최함.	
16	충청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 일 시 : 1월~12월 • 장 소 : 서산문화원	충청남도지정 무형문화재인 박첨지놀이와 승 무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집대성함으 로써 향토사료로 활용함.	
17	문화원 평생 교육강좌	• 일 시 : 3월~11월 • 장 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260명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학교 운영 지침이 바 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일반교양 강좌 와 지역문화학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강좌 를 평생교육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8	서산의 숨결 발간	• 일 시: 1월~12월 • 대 상: 회원,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 (12회)	문화원의 소식지인 스산의 숨결을 36면 2,500부를 발간하여 회원 및 출향인사, 전국문화원 등에 보급하여 향토문화 교양지, 향토자료지로 발전시킴.	
19	제5회 청소년 문학제	• 일 시: 4월13일 • 장 소: 서산문화원 • 참석자: 700여명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학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백일장의 개최와 이를 통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높여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함.	
20	서산 대취타대 운영	• 일 시: 1월~12월 • 장 소: 해당장소 • 시행방법: 서령중학교 에 위탁하여 운영	문화관광부 특별지원자금으로 우리원에서 창설한 서산대취타대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지방의 대표적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서산대취타대를 운영하고 주요 행사시 이를 활용함.	
21	5월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 일 시: 5월23일 • 장 소: 서산문화원 • 참석자: 100여명	서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시공모전을 가지고 시상식을 가짐. 시상식은 서산의 문인들을 초청하여 당선작 시상송 및 축시 낭송회를 가짐	
22	청소년 푸른 음악회	• 일 시: 8월29일 • 장 소: 시청앞 광장 • 참석자: 300여명	점차 각박해져 가는 현 실에서 음악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3	지역문화학교 운영	• 일 시: 3월~12월 • 장 소: 서산문화원 평생교육실 1,2, 연습실 • 참석자: 450여명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적 감성능력계발을 위하여 플롯교실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	
24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	• 일 시: 5월30일~ 6월1일 • 장 소: 해미읍성 • 참석자: 15만명	국가지정 전통민속 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민속축제중 선두 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만의 독창성을 부각시켜 향토고유문화의 문화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킴	
25	향토자료관 운영	• 일 시: 연중 • 장 소: 서산문화원 • 규 모: 170명	지역의 문화유물의 보존을 위해 이를 발굴·수집·전시하여 소중한 문화유물을 향토자료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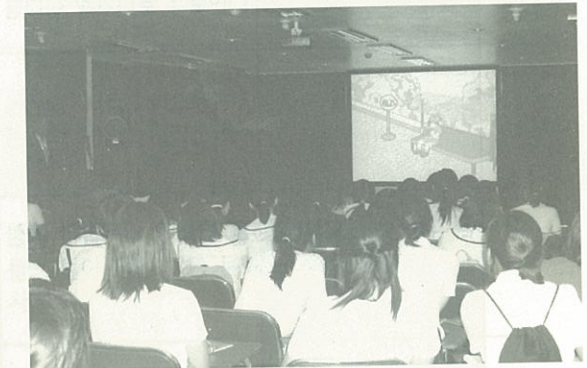
◀ 전통문화 체험학습



▼ 문화유적 현장학습



▲ 제5회 청소년 문학제



▲ 청소년 영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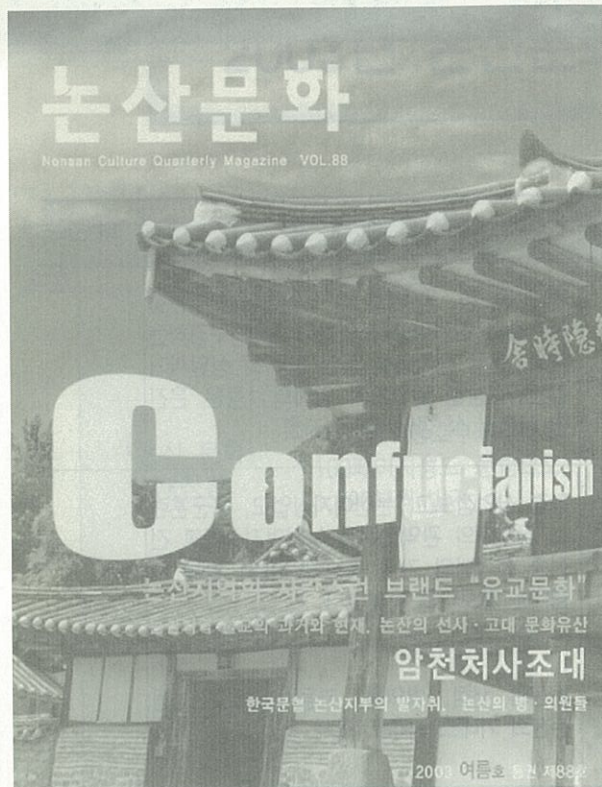


5월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2003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논산 문화』 재창간	2003년 봄호부터 매회 100페이지정도 분량으로 1,700부씩 발간.	종전 20여 페이지 팜플렛 형태의 "내고장 소식"지를 사계의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 를 구성하여 편집체계를 혁신하고 알찬 내용으로 재창간 발간. 문화원 회원, 전국 문화원, 도서관, 관내 기관단체, 출향인사 들에게 배포.	
2	논산의 금석문(金石文)재발 간	2003. 12. 31. 발간 예정	• 종전 일차 발간한바 있으나 누락된 비 문도있고 한글 번역문이 없어 일반시민 들이 내용을 알수 없었음. • 이번에는 비문사진, 탁본, 한문원문, 한 글 번역문을 함께 실어 일반시민과 학생 들도 쉽게 내용을 알수있도록 재발간	
3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	• 매월 2, 4 수요일 • 논산시 관내 유적답사. • 매회 25명 참가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국내 유명관광 지는 물론 해외여행까지 빈번하게 다니지 만 정작 우리고장 문화유적은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	
4	논산지역 유명종가의 제례의식 조사 연구	유명종가들의 불천위제, 세일사, 영당제, 시제, 기 제사조사 연구	사계 김 장생, 신독재 김집, 서석 김 국광, 서정 김 경광, 익안대군, 팔송 윤 황 불천 위제를 비롯 명재 윤 증의 영당제, 시제 등 조사.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5	노인 장기대회	• 일시: 2003. 6. 26. • 장소: 놀미 회관 • 참석인원: 150명	관내 읍, 면, 동 별로 각 노인정에서 추천한 선수들이 참가하고 노인들이 함께 구경하는 대회. 한국 장기협회 공인 5단 최 성일씨가 심판위원장을 맡았으며 영예의 1등은 은진 면 성평리 석 정남씨가 차지함	
6	청소년을 위한 푸른 음악회	• 일시: 2003. 5. 25. • 장소: 문화 예술회관. • 참석인원: 500명	강경 상업정보고, 논산여자상업고, 육군훈련 소 군악대의 관악협주와 논산여자중학교 전 정중 선생님의 가곡 독창이 5월의 밤을 아 름다운 멜로디로 수놓았다.	
7	논산의 기네스	• 논산 최초, 최대, 최고....조사	논산의 서점, 병원, 자동차, 술.....등 논산의 기네스 시리즈 조사	
8	논산의 작은 유적 조사	•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유적조사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문화유적이지만 선조 들의 얼이 담긴 작은 문화유적들에 대한 답 사 조사	
9	축제 참가자 논산유적 답사	• 일시: 2003. 10. 17. ~10. 21(5일간) • 장소: 강경 젓갈 축제장. • 참가인원: 150명	강경 젓갈 축제에 참여한 외지인들에게 논 산의 문화유적 답사, 해설, 안내.	
10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 일시: 2003. 2. 15. (음력 1. 15) • 장소: 문화원 마당 • 참가인원: 100명	정월 대보름에 잊혀져가는 우리의 민속놀이 인 연날리기, 팽이치기, 굴렁쇠굴리기, 윷놀 이 등을 초등학교와 엄마들을 대상으로 시 행	
11	논산문에 11집 발간	백일장 우수작품을 모아 문예작품집으로 발간	문화원 주최로 시행되는 백일장대회 우수작 품을 모아 문예지 발간	



▲ nonsan문화 편집체제 혁신 발간



▲ 노인장기대회



▲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



▲ nonsan지역 유명종가 제례의식조사연구

2003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금산의 6.25 이야기 자료집 발간	• 금산의 6.25이야기 자료집 발간 • 조사지역:금산의 전지역	금산의 6.25이야기 관련 「사실담」의 발 굴·조사·정리(건양대학교 강사)	
2	금산의 전설 조사	• 대상:금산군 전 자연마을	금산의 설화조사 및 수집	
3	금산문화예술무크지 "삶꽃"발간	• 판형:4*6배판 • 대상:금산문화가족 및 금산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모두 • 부수 :1,000부	금산의 역사, 문화인, 민속, 시, 소설, 수 필 등	
4	금산문화학교운영	• 일시:3~8월 • 장소:금산문화원 • 강좌수:8개강좌 • 참여:103명	사물놀이(초급), 문예창작(초급, 중급), 서 예강좌(초급, 중급), 한국화강좌(초급, 중 급)등을 판소리, 민요강좌를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5	금강민속축제	• 리시:7.27~28일 • 장소:부리면 평촌리 • 참여:15,000명	• 금산농악판굿, 물페기 농요, 농바우끄시 기등 공연 금산의 민속 체험마당(농바우 끄시기, 돌무돌리기, 풍물놀이, 민요부르 기)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 만들기 마당 • 금산의 토속음식과 특산물 판매	
6	금곡서회	• 일시:1~12월 • 장소:금산문화원 • 대상:서예동호인단체, 금곡서회회원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로 구성 된 고급과정 서예전시회 개최	
7	금산문화예술제	• 일시: 10.25~30일 • 장소: 청산별관 • 참여: 300명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종합 문화예술제로 미술전시회, 서예전시회 개최	
8	금산농악단 운영	• 일시:3~12월 • 장소:금산구내, 자연마을 • 참여:2,200명	• 인삼골농악경연대회 개최 • 각 마을에 금산농악 전수 금산농악 강습	
9	금산농악축제	• 일시:12월 31일 • 장소:청산회관광장 • 주관:금산농악보존회	금산농악 매굿과 큰기울리기, 제야의 북소 리, 촛불켜기, 불꽃놀이, 초청공연	
10	금산민속연보존사업	• 일시:1월~12월 • 장소:장동달맞이축제 기 타 축제의 현장, 금산문 화를 홍보하는 장소 • 대상:금산민속보존회 회원	연 띄우기, 연만들기 체험교실운영, 연전시 회 등 연의 축제	

2003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1	나아내풍물단	•일시:1~12월 •장소:금산문화원 •대상:동호인단체 나아내 풍물단 회원	•각종 축제 금산풍물굿공연 •금산문화학교 초급과정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 고급반 과정	
12	비단골산꽃축제	•일시:4.1~30일 •장소:군북면 산안리 •참여:15,000명	100여만평의 산벚꽃자생단지에서 꽃길여행, 민속공연 등 자연친화적인 축제구성	
13	생활문화예술제	•일시:10.31~11.5일 •장소:청산별관 •참여:300명	문화가족동호인단체인 창현회와 금곡서회 전시회	
14	인삼곶합창단운영	•일시:1~12월 •장소:영동군문화회관 •참여:600명	•매주 목요일 「군민과 함께 하는 노래 모 임」 개최 •정기발표회 1회 개최	
15	창현회	•일시:1~12월 •장소:금산문화원 •대상:한국화 동호인 단 체 창현회원	•문화학교 초급과정을 이수한 회원으로 구 성된 고급과정 •미술전시회 개최	
16	장동달맞이축제	•일시:2.14~15일 •장소:금산읍 양지리 장 동마을 •참여:15,000명	•달과 불 그리고 풍물을 주로 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축제로 육성 •임산, 약초와 연계 겨울 관광문화축제 개 발 지역경제 활성화	
17	청소년동아리활동	•일시:1~12월 •장소:금산문화원 •참여:700명	매주 수요일 오후 문화원을 개방 토리패 풍 물단 운영 및 지도	
18	청소년어울마당	•일시:7.26일(1회) •장소:금강 •참여:100명	청소년 여가 활동과 탐구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비단강 금강탐사 기행	
19	충청남도지사 주부풍물경연대회	•일시:5.7일 •장소:충남당진군 석문면 •참여:45명	충남주부풍물대회 나아내풍물단 참가 차하 수상	
20	제29회 충청남도합창 경연대회	•일시:10.17 •장소:천안시문화회관 •참여:45명	충청남도합창경연대회에 금산을 대표하여 참가, 장려상 수상	
21	풍각쟁이 발표회	•일시:10월 25일 •장소:청산회관 •참여:300명	금산문화예술제 노래모임인 풍각쟁이의 국악공연	
22	금강 풍류전	•일시:6.7~10일 •장소:제원면 용화리 (용강서원) •참여:500명	금강예술인과 함께 하는 새로운 예술마당 창출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제13회 민속한마당	•일시: 10. 24 예정 •장소: 군민회관대강당 •참석인원: 500명	10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65세 이상 노 인들의 장기자랑 및 민속공연 한마당개최	
2	전의·금남 민속한마당	•일시: 예정 •장소: 전의·금남농협 •참석인원: 400명이상	문화의 혜택에서 벗어난 곳에서의 속공 연 개최(전의면, 금남면)	
3	농악교육 및 연습	•일시: 년중 •장소: 농악대사무실 •참석인원: 80명	매주 월~금 까지 웃다리 풍물 및 사물놀이 교육	
4	국악단 교육 및 연습	•일시: 년중 •장소: 농악대사무실 •참석인원: 35명	매주 토요일 경기민요 및 판소리 교육	
5	내고장문화 교육	•일시: 년중 •장소: 연기군내및 군외 •참석인원: 200명	향토사료조사연구 활동 및 내고장 문화교육	
6	문화유적답사	•일시: 5월14일, 16일 7월24일~26일 •장소: 연기군내 •참석인원: 150명	유적지 순례를 통한 내고장 문화 알리기 및 유적답사	
7	제3회 연기대첩제	•일시: 11월 5일 •장소: 서면 고북저수지 •참석인원: 300명	고려 때 몽고 합단적을 물리친 전 투지에 서 대제를 올림	
8	경로효친의 달 행사	•일시: 4월 26일 •장소: 수덕사 •참석인원: 350명	65세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적 답사	
9	노인학교 운영	•일시: 10. 24 예정 •장소: 군민회관대강당 •참석인원: 500명	군내 65세이 이상노인들을 위한 노인학교 운영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독후감공모	•일시: 10. 30 예정 •장소: 문절사 •참석인원: 150명	군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생대회 개최 및 독후감 공모	
11	주부교양강좌	•일시: 예정 •장소: 예정 •참석인원: 예정	군내 주부,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 강좌	
12	경로효친옹변대회	•일시: 6월25일 •장소: 군민회관소회의실 •참석인원: 80명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군내 초중고를 대 상으로 한 옹변대회개최	
13	풍수지리 교육	•일시: 6월~9월(3개월) •장소: 군민회관소회의실 •참석인원: 30명	문화가족을 위한 풍수지리 교육 (3개월동안)	
14	도자기전 및서화전시회	•일시: 11월경 •장소: 전시실 •참석인원: 100명	서화의 맥을 잇고 있는 작가들이 한자리 에 모여 전시회를 개최	
15	군민친선바둑대회	•일시: 예정 •장소: 군민회관소회의실 •참석인원: 150명	바둑기능인 양성 및 군민들의 상호친목도모	
16	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	•일시: 1. 2 •장소: 대강당 •참석인원: 300명	우리소리로 새해를 맞이	
17	효자효부표창	•일시: 10. 24 예정 •장소: 군민회관대강당 •참석인원: 500명	8개읍면을 대상으로 효자효부표창	
18	독서실운영	•일시: 년중 •장소: 연기향토사무실 •참석인원:	도서(고서)를 구입하여 독서실 운영	
19	연기문화 책발간	•일시: •장소: •참석인원:	연기문화 책 발간	



▲ 청소년 군내 문화유적답사(옛 놀이 시연모습)



▲ 풍수지리 교육



▲ 경로효친 옹변대회 개최 시상자들과 기념촬영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



▲ 새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 공연

2003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제5회 백제토기 만들기 대 회	•기간 : 2003. 12. 12. •장소 : 백제요 •참여인원 : 300여명	대전·충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백제토기 만들기 행사	
2	어린이 역사교실	•기간 : 2003. 4. 27~11. 30 •장소 : 전국 주요 유적지 •참여인원 : 800 여명	군내 초·중학생 대상 월1회 사적답사 및 영화감상 실시	
3	짚·풀문화 공예품 공 모 전	•기간 : 2003. 1. 2~3. 5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150 여명	짚·풀로 만든 각종 전통 공예품공모 및 시상	
4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강좌	•기간 : 2003. 12. 29~12.30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80여명	군내 초·중고 교사의 향토사 연구를 위한 문화유적 현장 답사	
5	2003 단오축제	•기간 : 2003. 6. 14. •장소 : 공남지(사적135호) •참여인원 : 2000여명	창포물에 머리감기, 부채만들기 등 전통 단오풍속 시연 및 재현	
6	우리문화 우리민속 한 마 당	•기간 : 2003. 12. 20. •장소 : 부여군민회관 •참여인원 : 200명	동지 팔죽썰먹기, 떡만들기 등 각종세시 민속 재현	
7	문화현장탐방교육	•기간 : 2003. 8. 15~12. 22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300명	문화원 회원의 교양증진을 위한 무안백 련축제, 파명 윤씨 모자 미라전, 짚풀생 활사박물관 등 답사	
8	유왕산놀이 C I P 제 작	•기간 : 2003. 4. 30~7. 30 •장소 : 부여문화원 •부수 : 100부	양화 유왕산축제의 발전과 효과적인 흥 보를 위한 CIP 제정	
9	제1회 홍산대첩 문 화 제	•기간 : 2003. 10. 17~10. 18 •장소 : 홍산 태봉산성 •참여인원 : 2000여명	홍산지역의 전통문화 복원과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체험형 문화축제 개최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우리는 문화가족 운	•기간 : 2003. 6.29~12. 10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250여명	가족단위 사적답사, 자연체험, 전통민속 놀이 등 문화체험 활동 전개	
11	시인 신동엽 추모백일장	•기간 : 2003. 5. 29. •장소 : 국립부여박물관 •참여인원 : 500 여명	우리고장 출신인 신동엽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도단위 청소년 대상 백일 장	
12	2003 문화학교	•일시 : 2003. 6. 24~12. 31 •장소 : 부여군민회관 •참여인원 : 150명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평생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한국어, 도예, 일본어, 한문 강좌 개설 운영	
13	홍산보부상놀이 발 굴 조 사	•기간 : 2003. 1. 20~12.30 •장소 : 부여문화원 •발간부수 : 500부	홍산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보부상놀이에 발굴조사및 보고서 발간	
14	2003년 계미년 정월대보름축제	•기간 : 2003. 2. 15. •장소 : 백마강 광장 •참여인원 : 3,000 여명	부여지방의 대보름 민속인 오곡밥지어먹 기, 부럼깨기, 쥐불강통 돌리기 등 12가 지 종목체험	
15	제5회 성홍산 해맞이축제	•기간 : 2003. 1. 1. •장소 : 임천면 성홍산성 •참여인원 : 2,000명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소원지 풍선날리기, 촛불기원 제, 국악공연 등 실시	
16	제1회 공남지 연 꽃 축 제	•일시 : 2003. 8. 2. •장소 : 공남지(사적135호) •참여인원 : 3,000 여명	연꽃과 공남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환 경 조성을 위하여 연꽃 전시회, 사생대 회, 원두막 만들기 등 개최	
17	신 년 교 례 회	•기간 : 2003. 1. 2. •장소 : 부여군민회관 •참여인원 : 1,000여명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 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사, 신년 교례회 명부등 발간	
18	관광정보센터운영	•기간 : 2003. 1. 1~12. 31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7,000여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에게 관광 정보 제공, 유적지 현장설명 등 실시	

2003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기벌포대보름제	- 일시: 2003.2.15 15:00~21:00 - 장소: 신성리 갈대밭 - 참석인원: 5,000여명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되새기며 사라져 가는 소중한 전통문화인 세시풍속을 한자리에 모아 참여(대회)와 체험(놀이)을 통하여 전통놀이문화를 계승, 발전을 도모	
2	서천문화포럼	- 일시: 2003.5.6 오후2시 - 장소: 서천문화원 다목적실 - 참석인원: 50여명	서천군내에 자생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대하여 강신겸 박사를 초청하여 문화포럼을 마련하였음	
3	제14회 한산모시문화제 자체평가보고서	- 일시: 2003.5.1~6(6일간) - 장소: 한산모시관 - 참석인원: 50,000여명	제14회 한산모시문화제 관광축제현황을 문화원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였음	
4	2003 부모·이웃사랑 실천대상 표창	- 일시: 2003.5.31 - 장소: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50여명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효행 및 선행 실천사례를 공모하여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5	2003 문예강좌	- 일시: 2003.7.28~8.1(5일) - 장소: 서천문화원 강의실 - 참석인원: 30여명	서천군내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감상문, 동화구연, 레크레이션 등 문예강좌를 실시함	
6	2003.제30회 청소년문예 백일장대회	- 일시: 2003.10.27 13:30~18:00 - 장소: 서천문화원, 1, 2층, 광장 - 참석인원: 300여명	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누어 글짓기(운문, 산문), 그리기, 붓글씨 대회를 고유번호를 부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매회를 거듭하여 점차적으로 대회를 크게 추진할 예정	
7	전시사업	- 일시: 2003.10.14~30 - 장소: 서천문화원 전시실 - 참석인원: 1,000여명	양띠 해를 맞이하여 양과 관련한 우리문화의 흔적을 모아 기획 전시하는 "평화와 희망의 지킴이 양"에 대한 전시물 유치(국립민속박물관) 전시하였음	
8	자생문화단체 WORKSHOP	- 일시: 2003. 11.7 16:00 - 장소: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50여명	서천군내 자생하고 있는 문화단체장, 총무를 초청하여 문화행사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추진, 진행까지의 과정을 초청강연으로 워크샵을 진행함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9	2003 문화학교	- 일시: 2003.11.1~04.2 - 장소: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120여명	꽃꽂이, 일본어회화, 영어회화 등 3과목으로 문화학교를 개최할 예정임	
10	2003 공연사업	- 일시: 2003.11.21 19:00 - 장소: 서천군민회관 대강당 - 참석인원: 1,000여명	국립합창단을 초청하여 지역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공연	
11	서천군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 어울마당	- 일시: 2003.7.12 오후 2시 - 장소: 서천군민회관 대강당 - 참석인원: 1,000여명	지역주민의 다양해진 가치관에 따른 문화행정, 여가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NEEDS 충족, 청소년들의 사회반작용적 욕구 표출 및 주체성 확보와 건전한 문화쉼터 역할을 위하여 난타 하이라이트 초청공연 진행	
12	문화가족 유적답사	- 일시: 2003.11.20 - 장소: 도내 유적답사 - 참석인원: 90여명	서천문화원 회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도내 문화유적답사를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	
13	제3회 기벌포 예술제	- 일시: 2003. 11.15~18 - 장소: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3,000여명	- 서천군 문화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연합하여 예술계를 실시 - 내용으로는 전시, 공연, 시낭송회, 연극 등 다양함	
14	청소년 문화단 리더쉽 캠프	- 일시: 2003.12.21~23 - 장소: 담양청소년수련관 - 참석인원: 80여명	서천문화원의 숙원사업으로 서천군내에 문화단을 구축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모범과 융화단결하여 리더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함	
15	2004 신년교례회	- 일시: 2004.1.2 11:00 - 장소: 서천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250여명	서천군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들을 초청하여 신년을 맞이하여 식전행사와 식후 만찬으로 서로 덕담을 나눔	

2003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3 신년 교례회	- 일시: 1.2 11:00 - 장소: 청양문화원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300명	- 신년사 - 축사 - 상호교례 - 풍물패공연 - 오찬	새해를 맞아 군내 각 기관 각계층을 망라한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새해인사 와 함께 지역사회의 단결 을 다짐하는 신년하례식
2	문 화 학 교	- 기간: 1.6~2.4 - 장소: 문화원 문화체육센터 - 수료인원: 162명	- 동계청소년문화학교 -한자동화 -영어동화(초급, 중급) -어린이국악교실 -종이접기 -머리가 좋아지는 뇌호흡 체조 -전통민속놀이체험교실 (제7강좌)	문화적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학기간중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함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의 장 마련
		- 기간: 7.21~8.18 - 장소: 문화원 문화체육센터기타(야외) - 수료인원: 156명	- 하계청소년문화학교 -사랑의 수화교실 -영어동요 -생활영어 -내가 만드는 그림책(논술) -키르기 체조 -종이접기 -내고장바로알기체험학습 (제7강좌)	수료식 때 강좌별 발표회 시간을 가져 문화학교 수업기간 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 유도
		- 기간: 연중 - 장소: 문화원 - 수료인원: 70명	- 일반인 문화학교 -국악교실(가야금, 장구, 민요, 시조창) -가요교실 -한지공예	국악교실 수강생 각종 지역 문화축제에 참여
3	청소년 민속놀이 한마당	- 일시: 2.21 13:00~17:00 - 장소: 청양농공협고등학교 체육관 - 참가인원: 150명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를 통해 우리의 얼을 심어주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함	경기종목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창작연 만들기
4	문화회관 유적지 순례	- 기간: 3.28~3.29 - 참여인원: 40명	- 순례장소 -무주적성산·안국사→진주 축석루→사천→우주항공박물관→조명군총→선진리성→삼천포→거북선승선→고성→땅밭공룡발자국→백첩사→사천문화원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5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 일시: 4.20 10:00~18:00 - 장소: 칠갑산장승공원일원 - 참석인원: 3,000여명	- 칠갑산장승대제 - 가족장승작기체험관 - 마을장승제 - 조형물전시 - 소달구지타기 - 전통민속놀이체험관 - 가족허수아비 창작공모전 - 짚공예체험관, 삼베짜기체험관, 천연염색체험관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한 국제일의 장승문화 보 존지역으로 자리매김 하여 칠갑산을 연계한 관광문화 축제로 육성
6	전통민속놀이 체험교실	- 기간: 6.1~10.30 - 장소: 3개교 순회 교육 - 참가인원: 151명	- 외래문화에 동화된 청소년들에게 한국적 전래 민속놀이체험학습을 통해 부모세대와 청소년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해의 폭을 좁히고 한국적 전래 놀이문화를 발전계승시키고자 함 ※합천초등, 수정초등, 청신여중 3개교 순회교육	- 한국적 전래놀이 체험학습 -고누, 칠교놀이, 투호, 사방치기 등 다수(22가지)
7	청소년 역사체험순례	1차: 6.9(168명) 2차: 7.11(200명) 3차: 11.20(180명)	- 충남권 문화유적지 및 현충(충의)시설 순례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민족정기선양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순례장소 -홍주의사흥→충의사→서산마애삼존불 →해미읍성→김좌진장군 생가 및 기념관→한용훈선생 생가	1차: 청양농공협고등학교 2차: 청신여자중학교 3차: 정산중학교
8	해외문화탐방	기간: 7.24~7.30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속에 선진문화탐방을 통해 새로운 문화의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이루고자 도내 문화원장 일본 방문 연수교육	- 일본의 주요도시견학 및 공민관시찰 - 일본의 축제견학 및 문화유적 관람 - 우리지방 고유문화 홍보
9	전시회	- 기간: 10.18~22 - 장소: 문화원전시실	향토작가 서화전 (36작품 전시)	지역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물론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출신예술인의 애향심 및 창작의식 고취시키고자 함 ※사이버 전시관 운영
		- 일시: 11.24~26 - 장소: 문화원전시실	사진 전시회	
		- 일시: 12.11~13 - 장소: 문화원전시실	서예전시회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청소년생활 문화강좌	•일시:10.30 14:00~16:00 •장소:청양정보고등학교 강당 •일시:11.13 14:30~16:30 •장소:청신여중 강당 •일시:11.25 14:00~16:00 •장소:정신중학교 강당 •일시:11.27 15:00~17:00 •장소:동명중학교 강당 •일시:11.29 14:00~16:00 •장소:청양중학교 강당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 한 청소년 생활문화강좌	•강사: 소설가 이재운 (토정비결 작가) •강사:이은집 (방송구성작가)
11	청소년음악회	•예선:11.1 14:00~ •장소:문화원 •본선:11.8 14:00 •장소:문화체육센터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활동인 음악을 통해 바른 심성을 배양 하고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함	청소년들의 건전가요 부르기 경연대회
12	문화가족작품 발표회	•일시:11.11~12 •장소:문화원전시실	문화학교 수강생(민요, 가야금, 사진, 닥종이공예, 영어동요등) 작품 전시 및 발표회	
13	전입주민 내고장 문화 알리기	•일시:11.29 11:00 •장소:문화원 3층 •참석인원:150명	•환영사 •우리고장 문화소개 •자료집 전달 •오찬 등	우리고장에 전입한 주민 들을 초청하여 우리고장 문화소개 및 환영회
14	내고장 문화역사 인물발굴 홍보사업	•일시:11	우리고장의 문화 역사인물을 발굴, 홍보하여 애향심과 자긍 심 고취	독립운동가 민종식 선생 홍보판 제작 (한글/영문판)
15	발간사업	•발행부수:각 1,000부 •발행일 :10,11,12월	- 내고장문화유산교육자료발간 - 칠갑문화 13호 - 향토민속발굴	- 청양의 의식주와 점복 - 청양의 산육과 통상의례 - 청양의 관혼상제와 풍수
16	문화코너 운영	•기간:연중	•자료열람실(전국향토자료집 및 일반도서)운영 •영화감상교실 운영	영화 및 음악감상을 통 한 청소년들의 취미생활 과 정서교육에 기여
17	사이버문화원 운영	•일시:연중 •인터넷홈페이지주소 cheongyang.cult21.or.kr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화 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정보 센터로 운영함	

▼ 향토작가 초대 서화전(2003.10.18)
작가들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 전통민속놀이 체험 체험교실(2003.7.1)
외래문화에 젖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전통민속놀이 체험(바둑의 원시형태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돌맹이로 말을 놓아노는 놀이)을 하고
있는 모습

▼ 충남문화유적지 및 현충(충의)시설 탐방 →충의사 (2003.6.9)



2003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신년교례회	•일시 : 1. 3(금) •장소 : 홍성군청대강당 •참석인원 : 300여명	신년을 맞아 군내 각급 기관단체장들 간의 상호인사	
2	정월대보름 '한가위 맞이' 축제	•일시 : 2. 14(금) •장소 : 홍성군청, 홍주의사총 옆 논 •참석인원 : 800여명	정월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전통민속행사 재현	
3	주민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문화원	•일시 : 3월~11월 •장소 : 홍성군일원	각 마을로 찾아가 주민을 대상으로 홍 성의 문화유적지 등을 설명	
4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일시 : 5. 19(월) •장소 : 해전대학 노천극장 •참석인원 : 1,000여명	성년자를 대상으로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5	가족과 함께 하는 거리영화제	•일시 : 5. 23(금) •장소 : 푸른쉼터 •참석인원 : 1,200여명	야외에서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영화 감상 및 토론	
6	역사·문화를 찾아서	•일시 : 3월 ~ 11월	우리나라 문화유적지 탐방	
7	제9회 만해제	•일시 : 10. 23(목)~25(토) •장소 : 만해생가지, 푸른쉼터 홍주의사총 •참석인원 : 10,000여명	만해 한용운선생의 추모 및 행사와 각 종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 잔치	
8	지역문화축제 '한우리'	•일시 : 10. 24(금) •장소 : 푸른쉼터 •참석인원 : 2,000여명	만해한용운선생의 추모 및 행사와 각 종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 잔치	
9	홍성문화 발간	•일시 : 년 중	홍성의 문화소식 및 주민의 삶을 전하 는 책자 발간	
10	우리고장의 문화유적 발간	•일시 : 1월 ~ 12월	홍성지역의 문화역사 자료 발간	
11	효열관계자료 발간	•일시 : 1월 ~ 12월	완의문을 중심으로 홍성지역 효열 관 계 자료 정리	
12	홍주향토문화 발간	•일시 : 1월 ~ 12월	홍성의 향토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책 자로 발간	
13	사료실 운영	•일시 : 1월 ~ 12월	홍성과 관련된 문화역사 관계 자료를 구입, 보관, 전시	
14	용봉산 주변의 민속	•일시 : 1월 ~ 12월	오서산 주변의 민속을 발굴 조사하여 책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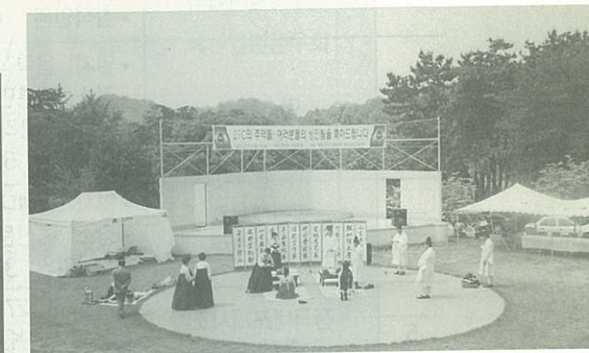
▲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 정월대보름 '한가위 맞이' 축제



▲ 가족과 함께 하는 거리영화제



▲ 지역문화제 한우리



2003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계미년 신년교례회	•일시: 1. 3 •장소: 예산군청회의실 •참석인원: 지역인사 및 기관대표 200명	계미년 신년을 맞이하여 지역기관 단체장들 과 지역인사들이 모여 신년인사와 함께 다 과를 즐길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	
2	설맞이 학생웃놀이대회	•일시: 2. 3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100명	명절을 맞이하여 군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웃놀이 경연대회를 시행	
3	민속행사	•일시: 음력정초 •장소: 대흥면갈신리, 신암면용궁리, 대흥면교촌리 •참석인원: 500명	음력 정초에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향토민속 축제로 갈신리장승제, 용궁리산신제, 교촌리 행장제를 시행	
4	정월대보름 웃놀이대회	•일시: 정월대보름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300명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문화원 회원들을 대 상으로 옛 대보름행사를 재현과 함께 어울 림 마당을 마련	
5	전국내포제시조 경창대회	•기간: 4. 27~28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500명	전국민을 대상으로 내포제시조경창대회를 이틀에 걸쳐 개최	
6	유적지순례	•일시: 6. 3, 12월 •장소: 도내 유적지 •참석인원: 100명	문화회원을 대상으로 년중 2회에 걸쳐 도내 유적지를 순회	
7	연합밴드 정기공연	•일시: 7. 12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500명	문화원내 학생동아리와 직장인동아리로 구 성된 연합밴드의 정기공연	
8	2003 summer festival	•기간: 8. 4~6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700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락공연 및 댄스공연 발표회를 열어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여가생 활 제공	
9	청소년 여름캠프	•기간: 8. 7~9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250명	청소년들에게 하계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 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	
10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체험	•일시: 10. 9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100명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귀향객들 을 대상으로 고유명절음식인 송편만들기 체 험 시행	
11	제6회 추사문화제	•기간: 10. 11~12 •장소: 예산군내 및 추사고택 일원 •참석인원: 1,500명	어린이영화상영, 가족인형극, 아나바다벼룩시 장, 군민노래자랑 및 추사선생 추모제등을 시행하여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나고 있 으며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2	제14회 추사추모 전국서예백일장	•일시: 10. 12 •장소: 추사고택 •참석인원: 1,000명	전국서예인을 대상으로 예선에 통과한 500여명의 서예인들의 당일 현장 휘호 대회	
13	학생실기대회	•기간: 10. 11~12 •장소: 예산군학생체육관, 추사고택 •참석인원: 700명	어린이사생실기대회, 학생서예대회, 학생 글짓기대회, 학생풍물겨루기대회등 청소 년들이 갖고 닦은 기량을 발휘	
14	제10회 분재전시회	•일시: 10. 11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500명	예산문화원 단체회원인 예산열린분우회 의 분재전시.	
15	전통공예전시회	•일시: 10. 12 •장소: 추사고택 •참석인원: 500명	추사 서화 영인본 작품을 전시, 추사선 생의 서예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함	
16	예산국제풍물제	•기간: 10. 21~23 •장소: 공주산업과학대 •참석인원: 1,000명	일본, 벨라루스, 인도, 중국등 세계민속 페스 티발 및 국내 초, 중, 고등학생 풍물경연	
17	전통혼례	•일시: 11. 1, 11. 29 •장소: 도고글로리호텔 •참석인원: 1,000명	혼인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행사를 지원 또는 대행하여 시행함	
18	추사백일장 수상작품 전시회	•일시: 11. 19~21, 11. 25~28 •장소: 예산문화원, 서울국제디자인프라자 •참석인원: 1,000명	제14회 추사선생추모 전국 서예백일장에서 입상한 수상작품들을 예산, 서울에서 전시	
19	예산군내 학생영화제	•일시: 11. 14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500명	군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 접 제작한 영화를 감상하고 시상함	
20	풍물패아사달 정기공연	•일시: 12. 5 •장소: 예산문화회관 •참석인원: 600명	문화원 단체 회원인 풍물패 아사달의 정 기공연	
21	고3 수험생을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강좌	•일시: 12월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수험생 400명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 올바 른 사회인으로 발돋움 할수 있도록 유도	
22	대흥호녀 원홍장 축제 세미나	•일시: 12월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150명	백제시대 예산에서 배출한 호녀 원홍장 은 호녀·심청임을 연구 발표함	
23	청소년 영상제	•일시: 12. 21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200명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음악과 영상 발 표회	

2003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4	문화학교 작품전시회	•일시: 12. 17~19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400명	1년동안 노력한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작 품을 전시, 발표하는 장소를 마련	
25	음악동아리 EXIT 정기공연	•일시: 12. 20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300명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문화원 음악동아리 EXIT의 정기공연	
26	해맞이행사	•일시: 12. 31 •장소: 금오산 •참석인원: 500명	새해 맞이 축하공연 및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	
27	효행장학회 운영	•일시: 년중 •장소: 예산문화원 •대상: 초,중,고,대학생	초,중,고,대학생중 효행이 뛰어난 학생을 추천받아 선발하고 장학금을 전달	
28	청소년상담실 운영	•일시: 년중 •장소: 예산문화원	청소년 상담뿐 아니라 일반인 상담을 전담으 로 하는 상담실 운영, 전임상담원 배치	
29	지역문화학교 운영	•일시: 9~12월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150명	풍선아트,풍물강좌,미취학아동을위한 프로 그램등을 4개월에 걸쳐 실시	
30	문화강좌 운영	•일시: 년중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200명	서예,사군자,시조,한학,풍수지리등을 주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좌	
31	어린이 영화상영	•일시: 년중 주말 •장소: 예산문화원 •참석인원: 2,000명	년중 9~10회에 걸쳐 어린이를 대상으 로 다양한 만화영화 상영	
32	예산문화 36집 간행	•일시: 12월 말 •대상: 문화가족 및 군민 •발행부수: 1,000부	문화원 소식지인 예산문화 36집을 발 간하여 회원 및 군민들에게 배포	
33	예산의 실학 연구서 간행	•일시: 상반기 •발행부수: 600부	예산지역의 실학연구서 책자 발간, 향 토사연구 회원 및 군민에게 배포	
34	예산의 유학 조사서 간행	•일시: 상반기 •발행부수: 600부	예산의 유학조사서 자료수집 및 발간.	
35	전통혼례 책자 발간	•일시: 하반기 •발행부수: 500부	전통혼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 보 존을 위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배포함	
36	내포지방의 풍물간행	•일시: 연중 •발행부수: 500부	내포지방의 풍물을 조사, 수집, 편집 하여 책으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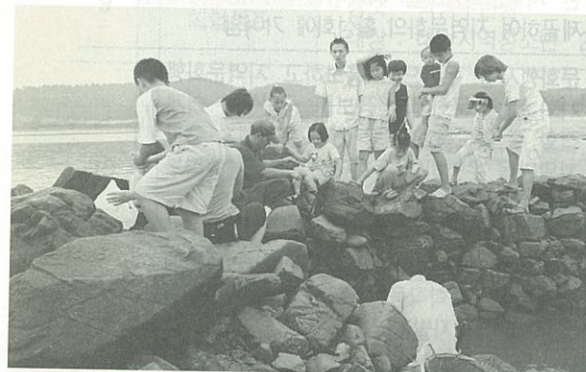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중앙대제	•일시: 2.14.(음1.14) 19:00 •장소: 문화원 •참석인원: 각급기관단체장, 주민100여명	태안의 전통문화로 태안군 각급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이 모여 국민안 시화연풍등을 기원하는 대제	
2	이원면 벚가릿대놀이	•일시: 3.3.(음 2. 1) •장소: 이원면 관리마을회관 •참석인원: 인근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100여명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월 보름 전날에 긴 장대를 마당 한복판에 세 우고 새끼줄을 꼬아 세갈래로 지지해서 세 워두었다가 머슴의날인 음 2월 1일에 벚 가릿대를 뉘인다. 이때 장대끝에 매달아 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한해의 풍·흉을 점치는 의식으로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행사	
3	문화 유적답사	•일시: 4.9~10일 •장소: 경주,의성 •참여대상: 임원,문화가족 자·고문위원	향토문화 유적답사를 통해 지역에 따른 문 화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견문으로 지 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4	문화가족체험단	•일시: 7. 30(독살) 10. 3(다도체험) 10. 25(야간독살) 11. 10(예정)	독살체험, 갯벌체험 야생화탐사등의 프로 그램을 통하여 문화체험을 통해 가족간의 협동과 사랑을 확인할수 있도록함	
5	향토민속 도서관 운영	•일시: 연중 •장소: 문화원 •참석인원: 10명	수집된 도서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서관 을 조성하여 향토유물전시관과 함께 전국 의 지역문화자료를 언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관련 전문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의 각종문헌을 수집하여 제본으로 보 관한다.	
6	청소년 가요제	•일시: 예정 •장소: 예정	태안지역의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할수 있는 장기자랑 등의 공연 및 가요제 형식 으로 참여	
7	태안문화원 초대전	•일시: 9. 27 ~ 10. 1 •장소: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전시작품수: 51점	샘골스케치회, 예술태안회, 이목회, 태안 사진동우회,태안중등미술교육연구회,태안 초등미술교과교육연구회,연목회등 태안관 내 예술단체참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교 류 및 유대강화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8	초·중·고 학생품물경연대회	•일시 : 9. 5/ 14:00~18:00 •장소 : 예술회관 •대상 : 초·중·고등학교 •참석인원 : 300여명	초·중·고별 품물경연(앉은반, 선반)과 초 청공연실시	
9	청소년문화 체험캠프	•일시 : 8.15~8.17 •장소 : 학생수련원 •대상 : 태안지역청소년 200명	연극반, 문예창작, 종합공연, 판타미믹공연등 다양한 청소년 교육문화활동 등과 같은 다양 한 청소년 교육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10	주말영화교실	•일시 : 7.5~10.26 (매주토요일) 오후3시 •장소 : 문화원 •대상 : 태안군민, 학생	다양한 문화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원 강당을 이용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매주 자료지를 발행하고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할수 있는 공간과 분위 기를 조성함	
11	제 12회 소성백일장	•대상 : 초·중·고학생 •참가인원 : 267명중 118명입상 20개학교	태안문화원 계속 사업으로 태안군의 학생들 이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생활문화를 주 제로 지역문화와 문학을 접목시킬 수 있도 록 자연과 생활문화를 주제로 시와 산문을 학교별로 접수하여 심사함	
12	초·중·고 미술실기대회	•일시 : 10.21(화) 14:00 •장소 : 여고교정 •참석인원 : 265명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수 있도록 풍경, 구성, 한국화, 경험화등 사 상대회를 실시함	
13	고남면 조개부르기제	•일시 : 음력 10월중(사리때) •장소 : 고남면 누동리 바닷가 •참석인원 : 마을 주민 100명	누동리 1구 대동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안 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행사로 제단올리 기, 축문읽기, 조개부르기 한마당의 순으로 진행된다.	
14	리지발간	•일시 : 연중 •참석인원 : 100명 •발간부수 : 1,000부 •대 상 : 소원면 송현리, 원북면 방갈리	태안지역의 소단위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내 65개 법정리중 기초자료 수집 능력과 자체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리를 선 정하여 리지를 발간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15	지역문화학교	•일시 : 4.3~11.4/ 19:00 •장소 : 문화원 •참가인원 : 170명	■ 프로그램 댄스스포츠:4~10월 / 민요교실:4~6월 사물놀이:4~10월 / 풍물교실:4~9월 천연염색:7.21~25일 / 사진교실:4~6월 요 가:8~10월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6	태안군 문화예술인워크숍	•일시 : 11월중 •장소 : 안면도	지역문화예술인 현황과 활동사례발표지역문 화예술단체 공연관람,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토론, 지역문화예술정책과 방향에 대 한 강연, 유적답사, 친교의 시간등을 실시	
17	사이버문화원	•일시 : 연중 •장소 : 문화원 홈페이지관리	향토민속문화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다양 한 지역문화정보를 사이버상에서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	
18	문화예술홍보 지원단운영	•일시 : 연중실 A •대상 : 태안군 8개읍면 상가 및 기관단체	문화행사를 우편으로 홍보하고 지역문화행 사와 각종 문화예술 정보를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8개읍·면에 문화예술 홍보 지원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단체의 홍보부 담을 덜어줌	
19	소성의향기9집	•일시 : 연중 원고모집 •발간부수 : 1,000부 •배부처 : 문화가족, 전국문화 원, 군내 각기관 및 단체	문예작품, 향토문화, 특별기고, 각종 문화예 술계소식, 문학작품, 우리고장 문화소식등 을 수록한 책자발간	
20	움직이는 문화공연	•일시 : 연중 •장소 : 태안군일원(5회실시) •대상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회관등	비교적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 역의 복지원, 경로당,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최 대한 활용하여 순회공연을 실시함.	
21	황도봉기풍어제 영상제작	•일시 : 2월~12월 •내용 : 영상자료 500매	음력(1.1) 2일간 열리는 봉기풍어제의 모습 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널리보급하고 지역의 민속문화교육자료로 활용	
22	향토문화지 발간 (향토문화15집)	•일시 : 연중 •대상 : 향토문화연구위원, 향토사학자등 •부수 : 400부	매년 향토문화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우리지 역의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여 체계화 함	
23	우리문화 역사마을만들기 '반도의역사소금마을' (자염축제)	•일시 : 자염축제/ 10월 4일 연중실시 •장소 : 근흥면(낭금마을) •참석인원:1,000명	반도의 역사 "소금마을"사업으로 소금과 관 련된 전시장, 체험학습장, 소금축제, 종합갯 벌 체험마을을 조성함	
24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일시 : 4월~11월 •장소 : 8개읍·면 노인회관등 •참석인원 : 총64회강좌 4,000명 •대상 : 지역주민	문화관련 8인의 전문강사를 위촉(미술, 사진, 풍물, 건강, 향토사, 교양강좌, 동학혁명등) 하여 매달 8개 읍·면순회 문화강연실시	



▲우리문화역사마을만들기 '반도의역사소금마을'(자염축제)



◀ 문화가족체험-독살체험



▲황도봉기 풍어제



▲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 노래교실



2003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대보름 맞이 축제	·일시:2003.2.21 ·장소:당진문화원 ·참여인원:100여명	민속 고유의 민속놀이를 재현하고 지역민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 마련	완료
2	민요 한마당	·일시:2003.9.6 ·장소:당진읍사무소 ·참여인원:1,000여명	읍승격 4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민요한마당과 마당극을 공연함	완료
3	남이홍 문화제 학생백일장	·일시:2003.9.24 ·장소:대호지면 총장사 ·참여인원:2,000여명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이홍 장군의 살신위국 정신을 기림	완료
4	마당놀이 조각전	·일시:2003.10.2~12.31 ·장소:문화원 야외공간 ·참여인원:연인원 1,000여명	조각가 이계정을 초대하여 문화원 야외공간에 지역민을 위한 조각품 전시	완료
5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일시:2003.10.22 ·장소:당진문화원 ·참여인원:100여명	국립민속박물관과 연계하여 문화강좌를 개최 (안방에 앉은 목가구들, 일과 놀이가 어우러진 대동마당두레)	완료
6	향토민속발굴사업	·일시:2003.4.1~11.30 ·장소:당진문화원 ·유물수:약 30점	지역의 유물을 수집·전시하여 지역민에게 사라져 가는 유물을 널리 알림	12월 전시예정
7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제1차 답사 -일시:2003.4.2 -장소:오송고속철도, 연기군 -참여인원:90여명 ·제2차 답사 -일시:2003.6.3 -장소:충북 충주 -참여인원 :90여명 ·제3차 답사예정(전북고창)	지역의 향토문화를 이해하는 현장 경험의 자리 마련	추진중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8	당진문화 21호 발간	•일시:2003.1.1 ~ 12.31 •장소:당진문화원 •발행부수:2,000부	당진문화 소식지 및 정보지	12월 발간예정
9	당진의 역사 발간	•일시:2003.1.1 ~ 12.31 •장소:당진문화원 •발행부수:1,500부	당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교 육·홍보용 책자로 발간	12월 발간예정
10	당진의 풍어제 발간	•일시:2003.1.1~12.31 •장소:당진문화원 •발행부수:1,600부	지역내 풍어제의 옛모습을 화보와 해설 로 엮어 발간	12월 발간예정
11	문화학교	•일시:2003.1.1~12.31 •장소:당진문화원 •참여인원:2,160여명(약간)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강좌를 연중 실시	추진중
12	수강생 발표회	•일시:2003.12.12 •장소:당진문화원 •참여인원:500여명(예상인원)	1년동안 문화학교에서 수강생들이 수업 한 내용을 발표함	12월 12일 추진예정
13	문화예술인잔치	•일시:2003.12.12 •장소:당진문화원 •참여인원:500여명(예상인원)	지역내 문화예술인을 초청 공연하여 지 역민들에게는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작 은 축제 마련	12월 12일 추진예정



▲ 남이흥 장군 문화제 기념 학생 백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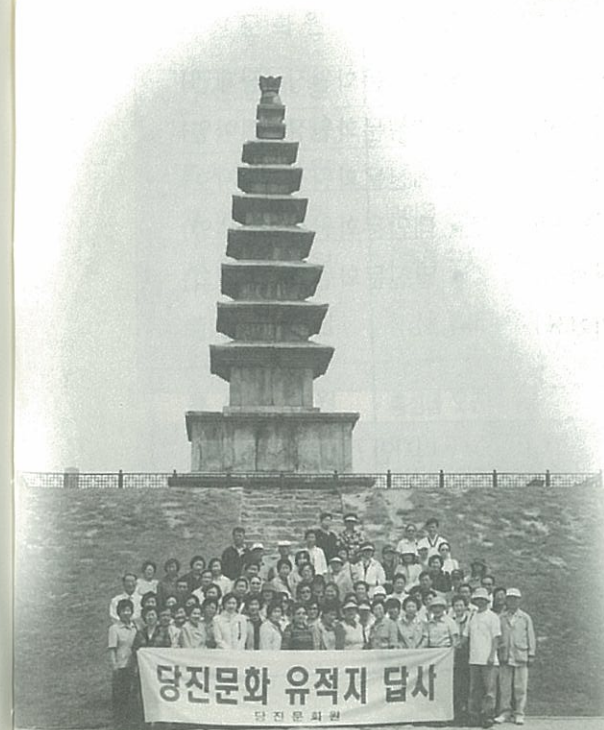


▲ 군민과 함께 하는 민속놀이 대회

마당놀이 야외 조각전(2003.10.2 ~12.31) ▶



▼ 향토문화유적지 답사



▲ 음승격 40주년 행사와 연계한 민요 한마당



편집위원

- 천안문화원장 (민병달)
- 아우내문화원장 (조성민)
- 성환문화원장 (지해두)
- 공주문학원장 (정재욱)
- 대천문화원장 (윤병배)
- 온양문화원장 (박노을)
- 서산문화원장 (신상찬)
- 논산문화원장 (박응진)
- 금산문화원장 (신정교)
- 조치원문화원장 (장영)
- 부여문화원장 (장영석)
- 서천문화원장 (이상용)
- 청양문화원장 (정재권)
- 홍성문화원장 (이하영)
- 예산문화원장 (이지호)
- 태안문화원장 (정우영)
- 당진문화원장 (정정희)

• 장정 / 이정우

교정 / 이명렬

디자인 / 임미영 · 손정숙

충남도내 문화원 현황

(2003. 12월 현재)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면적(평)	문화가족			전화번호
				원장	사무국장	직원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천안문화원 내			회장 민병달	사무국장 이정우	간사 이은미	576-3004
천안문화원	천안시 성정동 694-9	54. 7. 10	800	민병달	이정우	이은미 정종현 최강덕 양해정 민근홍	575-3004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161	조성민	조동준	홍순분	564-1022
성환문화원	성환읍 성환리 449-66	68. 1. 25	84	지해두	신광식	김정선	581-2101
공주문학원	공주시 반죽동 184-2	54. 12. 16	653	정재욱	현대수	류재열 장미숙 김설희	852-9005
대천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309	윤병배	오종화	임형숙	934-3061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동 206-24	64. 11. 24	285	박노을	김환주	지상미 배영숙	545-2222
서산문화원	서산시 읍내동 516	57. 6. 15	570	신상찬	한기홍	김기영 안지현	669-5050
논산문화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 14	105	박응진	양순모	김현중	732-2395
금산문화원	금산읍 상리 176-43	68. 3. 5	138	신정교	안용산	석현숙	754-2724
조치원문화원	조치원읍 교리 21-1	64. 10. 14	90	장영	이원재	길말숙	865-2411
부여문화원	부여읍 동남리 722	54. 4. 1	145	장영석	김인권	이미영	835-3318
서천문화원	서천읍 군사리 176-2	65. 1. 26	301	이상용	정해성	최신희	953-0123
청양문화원	청양읍 읍내리 202-5	65. 2. 11	286	정재권	임두순	이경숙 한남희	943-4774
홍성문화원	홍성읍 오관리 412-13	65. 1. 26	150	이하영	김경식	한경원 서정일	632-3613
예산문화원	예산읍 대회리 247-11	55. 10. 15	340	이지호	김문희	이용남 윤선숙	335-2441
태안문화원	태안읍 남문리 53-11	90. 9. 15	250	정우영	정지수	이연숙	674-2192
당진문화원	당진읍 읍내리 529-9	58. 3. 5	380	정정희	정제상	이삼월	354-2367